

## 제2장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주요 활동

제1절 총회 • 035

제2절 실무위원회 • 107

제3절 분과위원회 • 186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제2장 연합(NEAR)의 주요 활동

### 제1절 총회

#### 1. 총회의 개요

##### 가. 구성

- 총회는 연합의 최고의결기관이며 각 회원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2년 마다 격년제로 개최
- 의장은 임기 2년이며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장이 총회 개최 시까지 의장직을 수행, 다만, 의장 유고 시 직무는 소속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행
- ※ 2000년 효고 총회까지는 총회를 개최한 자치단체장이 차기총회 개최 시까지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차기총회 개최 단체장이 부의장을 맡았으나 4회 하바롭스크 총회 이후 현행과 같이 변경

##### 나. 기능

현장 제8조는 총회의 기능으로 10개 항목을 규정

- (1) 감사의 선출
-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 (4) 회비의 결정
- (5) 현장의 개정
-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 (7)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 (8) 사무국의 설치 장소결정
- (9) 각종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의사결정

- 각 회원단체는 동등하게 1개의 투표권을 가짐.
- 총회의 기능 중 제1호에서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2. 역대 총회 결과

### 가. 연합창설 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

#### (1) 제1회 회의

##### (가) 회의 개요

- 1) 기 간 : 1993년 10월 8일
- 2) 장 소 : 일본 시마네현
- 3) 참가범위 : 4개국 11개 단체

국 가	참가자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2	하북성, 영하회족자치구
일본	6	니가타현, 토야마현, 효고현, 돗토리현, 히로시마현, 시마네현
한국	1	경상북도
러시아	2	하바롭스크변경주, 연해변경주

4) 주 제 : 동북아시아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지향

5) 토의개요

#### 가) 동북아시아지역 각 자치단체의 과제와 비전

참가자치단체의 지역간 교류 현황과 과제 및 비전을 논의하였으며 동북아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인식과 상호이해를 심화하였다.

#### 나) 동북아시아지역에 관한 연계 및 협조

지금까지 일대일로 이루어진 지역간 교류를 네트워크화하기 위한 연계와 협조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동북아 지역의 지역간 교류활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 < 구체적 제안 >

- 동북아 지역의 공동재산인 동해의 환경, 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 조사와 공동연구에 협조
- 농림수산업의 기술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한 동북아 지역 전체의 발전
- 지방자치단체 주재(駐在)사무소의 상호개설에 따른 교류확대
- 동북아시아 학(學)의 창설 및 연구 네트워크,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 동북아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
- 교류 네트워크화를 위한 각 자치단체 대외연락부문의 명료화
- 공동 비전 확립과 실현을 위한 조직 설립 등

### 〈 시마네 선언 〉

1993년 10월 8일, 시마네현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 '93 (NEAR '93)이 개최되어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관련 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달과 교통 네트워크가 정비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긴장 완화의 흐름과 더불어 국가 對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과의 교류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보더레스(무국경)화와 더불어,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와 기술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어서 대규모로 급속히 왕래하는 등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져 풍요롭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평화와 교류의 지역으로 변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이 회의가 각 자치단체의 지역간 교류 네트워크화를 촉진하고 각기 동북아 지역 발전에 크게 일조하는 것이라는 공동 인식을 가졌다. 우리들은 각각의 지역간 교류의 현실과 향후 전망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 ① 자치단체 회의의 계속적인 개최

지역간 교류를 촉진하고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도 이후에도 자치단체로 구성된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 ② 지역간 교류사업의 공동실시

지금까지 일대일로 실시해 온 교류 사업 중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시행하는 등, 지역간 교류의 네트워크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 (2) 제2회 회의

#### (가) 개최배경 및 목적

동북아시아의 지역 차원의 교류를 더욱 증진하고 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함께, 지역이 주체가 되는 국제교류권 형성을 목표로 동북아시아의 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간 교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인식과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며 더욱 효과적인 지역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연계와 협조 등을 협의함.

#### (나) 회의개요

- 1) 기 간 : 1994. 9. 7 ~ 9. 8 (2일간)
- 2) 장 소 : 일본 효고현
- 3) 주 제 :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생과 발전  
- 상호신뢰관계의 수립과 새로운 지역간 교류의 전개
- 4) 주 최 : 효고현, 일본해 연안지대 진흥연맹, 환일본해교류 서일본협의회

- 5) 후 원 : 국토청, 외무성, 자치성, 전국지사회, 주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주일대한민국 대사관, 주일러시아대사관
- 6) 참가범위 : 4개국 10개 단체

국 가	참가자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2	하북성, 흑룡강성
일본	5	니가타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한국	1	경상북도
러시아	2	하바롭스크변경주, 연해변경주

7) 회의 내용

- 동북아시아간 교류에 관한 각 자치단체의 현황, 앞으로의 전망 및 협조사항 토론
-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 수산자원보호, 환경문제 등 공동문제 상호 노력
- '95년 10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제3회 회의 개최
- 교류활성화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효고현 주관)
- 청소년교류활성화를 위한 「소년의 배」 운영(시마네현 주관)

< 효고선언 >

작년 시마네현 마즈에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 '93의 시마네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1994년 9월 7일과 8일에 효고현 이즈시町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 '94”가 개최되어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관련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통신 기반 교통 기반의 정비와 긴장 완화로 인해 점점 무국경화 되고 상호 의존성이 강해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밀접한 연계 없이는 각국 및 지역의 존재도 있을 수 없게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동북아시아지역도 상호간의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해 '공존'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문화·인적교류, 경제·기술교류 등 분야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관련 자치단체가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연계·협조하고 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의 연대감을 높이고 일체성을 강화해 가는 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공통인식에 이르렀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다음 사항의 공동 실현을 향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동북아시아지역의 연대감을 높이고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로 구성된 회의를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개최한다.

2. 관련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영속적인 국제조직의 구체화에 대해 검토한다.
3. 실시 가능한 자치단체간의 연계 및 협조에 따른 교류 사업의 구체화에 대해 검토한다.

(3) 제3회 회의

(가) 회의 개요

- 1) 기 간 : 1995년 9월 7일
- 2) 장 소 :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 3) 참가범위 : 4개국 17단체

국 가	참가지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4	요녕성, 허북성, 흑룡강성, 길림성
일본	7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대한민국	2	경상북도, 경상남도
러시아	4	하바롭스크변경주, 연해변경주, 사할린주, 유대자치주

(나) 회의내용

- 문화·인적교류
  - 지금까지의 양국간 교류에서 동북아시아의 다국간 교류로의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전제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의 적극 추진(우호의 배, 우호의 캐러밴(caravan) 등의 실시)
  - 전문가, 연구원 상호 교류촉진
  - 학생 및 전문가 양성에 관한 협력, 어학학습 지원
  - 연구, 인재양성을 위한 동북아시아지역 센터 설립
  - 1996년 돗토리현 사카미미나토市에서 개최된 재팬 엑스포에서 '지역간 협력' 논의
- 경제·기술교류
  - 자본이동의 원활화, 대외무역 자유화, 인적 이동 촉진이 중요 포인트, 이를 위해서는
  - 도시정비, 통신 및 교통기반의 정비 등 인프라 정비
  - 시장 매커니즘의 정비
  - 대외투자에 관한 인포메이션 센터의 설치
  - 대외투자 개런티 확보
  - 산성비 대책, 동해 환경 및 자원 확보 등에 관한 과학기술교류 추진
  - 입국 수속(비자취득)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에 대해 동북아시아지역 간의 협력이 불가피함.
- 교류전반에 대해

- 국제기구 창설 초안 제시(효고현)
- 상설 실무기관을 설치하고 국제조직설립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함.
- 실무기관 설치 및 선언문 처리
  - 한국 경상북도가 차기 회의 개최지로 결정됨.
  -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설 실무기관 설치 초안 등을 경상북도가 정리해서 차기 회의에 제시, 실무기관 멤버는 다음으로 함.
- 일본 : 효고현, 토야마현
- 한국 : 경상북도
- 러시아 : 극동자바이칼협회(극동자바이칼 연방구성주체의 지역간 경제 상호협회)
- 중국 : 귀국 후 결정
  - 선언문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하바롭스크변경주 정부가 수정안을 작성해서 후일 참가 자치단체에 재송부함.

#### < 하바롭스크 선언 >

1993년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시, 그리고 1994년 효고현 이즈시町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회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1995년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러시아연방의 자치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제3차 자치단체회의가 1995년 9월 6, 7일 양일간에 걸쳐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인접 자치단체들간 대화 전개는 국제적 긴장의 완화, 세계 경제권의 결속강화,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간 상호관계의 확대, 국제관계의 발전 과정상 지역적 자유재량권의 확대,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수단의 발달, 인접 지역과의 유대관계 확립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 증대 등의 결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바롭스크 국제회의의 기간 중 참가자들은 지역 차원에서의 문화·인적교류, 경제관계 및 과학·기술 협력 등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견해들을 교환했다. 회의 기간동안 참가자들은 현재의 지역간 광범위한 관계로도 충분히 아시아·극동지역 국가간 관계 발전과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에 주목했다. 동시에 회의에 참가한 지역 대표들은 더욱 확대된 지역간 교류는 관심 있는 지역 자치체의 노력으로 설립될 “국제조직”에 의해 확인될 조정과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

하바롭스크 회의에 참가한 각 자치단체 대표들은 이상의 견해를 교환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려해야 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호혜와 상호이해,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근거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간 협력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2. 관심 있는 자치단체가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할 영속적인 국제조직의 설립을 위한 '실무단'의 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3. 지역간 협력체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간 교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호혜적 정책입안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 '95년 하바롭스크 회의는 일본측 자료를 근거로 작성  
그리고 합의문은 사무국 NEAR 총람을 근거로 작성

## 나. 연합창설 이후 총회

### (1) 제1회 총회

#### (가) 개최배경 및 목적

##### 1) 대립과 긴장에서 우호와 협력

세계는 교통·정보 통신시설 확대 그리고 정치적인 긴장 완화의 흐름 등으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한 왕래가 더욱 더 활발해지고 상호이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제 세계 각국, 각 지역과 긴밀한 협조 없이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아시아의 지중해인 동해가 “대립과 긴장의 바다”에서 “우호와 협력의 바다”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문화, 학술, 경제,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이 전개되고 있음.

##### 2) 세계 경제의 뉴프런티어 - 동북아 지역의 결속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 블럭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된 동북아 경제권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어떤 인위적인 모티브 보다는 각국의 발전 전략이 맞물려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음.

최근 두만강유역 개발 계획,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계획,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개발 계획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나) 회의개요

##### 1) 회의명

- 국문 - '96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
- 영문 -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Conference '96  
(약칭: NEAR Conference '96)

##### 2) 기간: 1996. 9. 11(수) ~ 9. 14(토)

##### 3) 장소: 경주 보문 단지 내 경주힐튼호텔, 경주현대호텔

##### 4) 주최: 경상북도, 내무부, 외무부

5) 참가범위 : 4개국 29개 자치단체

국 가	단체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3	흑룡강성, 하남성, 산둥성
일본	9	나이가타현, 토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효고현, 교토부, 아오모리현, 이시가와현, 후쿠이현
한국	9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러시아	8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캄차카변경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브랴티야공화국, 치타주

6) 주 제 : “21C를 향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의 실천적 교류협력 방안”

7) 회의내용

- 지역간의 교류협력 프로젝트 및 발전전략 토의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의 영속적인 국제기구 설립

8) 회의진행 : 동시통역에 의한 Round Table 형식

9) 회의시간 계획표

시 간	9/11(수)	9/12(목)	9/13(금)	9/14(토)
09:00		개회식, '95 회의결과보고	산업시찰/관광	관광/출국
10:00		국제기구 설립안 보고 및 토론		
11:00	입국/등록	수석대표연설 및 제안(1)		
12:00		오찬		
13:00	경제인 간담회	수석대표연설 및 제안(2)		
14:00		수석대표연설 및 제안(3)		
15:00		제안사항 토론 및 선언문 채택		
16:00		기념촬영		
17:00		공동선언문 발표 및 기자회견		
18:00	환영연			
19:00		경북의 밤		
20:00 ~ 22:00	동북아 민속공연			
		전시회(수출상품/미술작품)		

(다) 회의내용 총괄

- 1) 개회선언(사회자)
- 2) 환영사(경상북도지사 : 이의근)
  - 대표단 및 내빈 환영
  - 자치단체간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강조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기대
- 3) 중앙정부 축사(국무총리)
  -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본 회의를 축하
  - 지역 간 공동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를 기대
- 4) 코디네이터 인사(코디네이터)
  - 동북아시아지역은 세계 희망의 중심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의 협의체 설립이 중요
- 5) '95 회의결과 보고(하바롭스크지사)
  -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원칙 설명
  - '95 하바롭스크선언문의 주요내용 보고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의 지속적 개최
    - 상설 국제기구의 설립은 '96년 회의시 검토
    - 공동사업안 작성
- 6) 국제기구 설립안 보고(경상북도지사 : 이의근)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설립을 위한 추진경과 보고
    - 기구의 설립계획안 마련
    - 각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의견 수렴
    -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각국 대표자치단체의 실무자가 모여 연합현장 초안 작성
  - 각 자치단체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영속적인 국제기구라는 점에 입각하여 연합현장(안) 작성
- 7)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토론
  - [토야마현 부지사]
    - 국제조직의 현장안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
    - 다수 자치단체의 참가를 희망
  - [충청남도지사]
    - 본 회의의 영속적 개최를 전폭적으로 지지
    - 회의 발전을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에 감사

[흑룡강성 주석]

- 동북아시아 각국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기원
-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

[하바롭스크 지사]

- 국제기구 창설은 반드시 필요
- 현장의 기본정신에 동의

[전라북도지사]

- 연합 구성에 찬동
- 제2조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문구 삽입 제안

[전라남도지사]

- 제17조 “회원 범위”를 수정할 것을 제안

[하바롭스크 지사]

- 제15조 “재정”에 관하여 결정이 필요함

[경상북도지사]

-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회비는 당분간 보류
- 제2조와 제 17조는 회원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

[효고현 부지사]

-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경상북도지사의 의견에 찬동

8) 연합현장 서명(코디네이터)

- 4개 국어로 작성된 현장에 서명 후, 사무국에 영구 보관
- 각 자치단체에는 현장 사본을 송부

9) 수석대표 연설 및 제안

[흑룡강성 주석]

- 앞서의 발언으로 대신하고자 함.

[충청남도지사]

- 이 회의가 공동체로서 확고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 마련
- “동북아 환경포럼” 구성을 제의

[하바롭스크 지사]

-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동부지역의 경제 사회발전의 총체적인 계획 수립 중
- 북한 자치단체의 초청을 제안

쁘리마꼬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보 내용 소개

[전라북도지사]

- 이번 회의는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매우 시의적절
- 가고시마현, 강소성, 워싱턴주와 자매결연

[시마네현 지사]

- 다수 대상의 광역적이고 구체적인 연계협력사업 추진
- “교류의 배” 사업을 국제조직의 공동사업으로 제안

[전라남도지사]

- 인적, 문화적 교류로부터 경제·기술교류로 확대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류사업 개발 실천

[경상남도지사]

- 문화예술, 전통공예, 특산품 등의 교환 전시 필요
- 주요 이벤트 개발, “국제기계박람회” 정기적 개최

[이르쿠츠크주 의회의장]

- 환경에 관한 특별위원회 창설 아이디어 지지
- 연합 현장 채택 적극 지지

[하남성 주임]

- 금년에 러시아, 베트남의 도시와 자매결연 예정
- 각 자치단체들과 더욱 광범위한 교류협력 기대

[산둥성 부주임]

- 성공적인 회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기원
- 정보, 인적교류의 강화 및 무역협력의 연계 형성

[효고현 부지사]

- 동북아시아지역의 광역 연계 필요
- 기술협력, 해외기술연수생 파견, 환경, 지진, 홍수, 화재 등의 공동조사 제의

[아오모리현 부지사]

- 중국과의 국제 정기항공노선 개설 희망
- 경제교류는 물론 문화, 관광교류에도 주력

[토야마현 부지사]

-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 제안
- 자치체회의 토야마현 개최 희망

[이시가와현 부지사]

- 문화·기술·기능 등 교류협력 추진 희망
- 해양자원 보전, 산성비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조직이 필요

[후쿠이현 부지사]

-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교류 필요
- 1997년 “후쿠이 국제예술제” 개최 계획

[교토부 부지사]

- '96.12 교토부에서 국제심포지움 개최
- 외국 유학생들을 명예우호대사로 임명

[돗토리현 출납장]

- “산음 - 꿈의 항구 박람회”에 참석 요청
- 강원도 및 연해지방 등 다양한 교류 추진

[아무르주 부지사]

-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
- “교류의 배” 및 “환경위원회”의 공동사업 지원

[브라티아공화국 부총리]

-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가능 부문에 대한 교류 확대
-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외국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캄차카주 부지사]

- 자연개발부분에서의 공동연구와 어류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연합의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사하공화국 부총리]

- 25개의 합작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동
- 연합의 현장은 민주적이며, 적극 지지

[사할린 부지사]

- 해외협력가들과 무역거래 확대 희망
- “외국투자를 유치한 설비생산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법” 시행
- 현장채택을 위한 하바롭스크주 지사의 제안 지지

[치타주 부위원장]

- 해외기술 및 해외자본 유치 촉진
- 치타국제공항 설립 중(관세 자유지대)

[경기도 행정부지사]

- 경제협력, 민간교류 확대, 상호 신뢰구축 강조
- '9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꽃박람회'에 많은 참가 기대

[강원도 정무부지사]

-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광루트 개발
-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 논리가 중요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그린21세기” 실현, “푸른 지구 가꾸기” 추진
- 환경문제,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체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 “섬 관광정책포럼”을 내년에 창설
- 국제수준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경상북도지사]

- “동북아연구센터” 설립
- “동북아민속 축제” 정례화
- “’98 문화Expo” 개최
- 환경문제를 협의할 실무위원회 구성
- 기능경기대회에 전 회원 자치단체 참가 희망

10)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정리(코디네이터)

- 공동 관심사항(7대 공동과제)
  - 러시아, 중국의 자원에 대한 투자, 개발
  -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
  - 동북아연구센터 설립 추진
  - 북한, 몽골의 연합체 참여
  - 각종 박람회, 문화예술제, 전시회 등의 공동개최

11) 제안사항에 대한 토론

[시마네현 지사]

- 제안사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 “동북아시아 교류의 배”에 관한 추가 설명

[흑룡강성 주석]

- 회의에 대한 결론 도출에 감사
- 성공적인 회의에 만족

[경상남도지사]

- 방대한 사업을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제의

12) 차기개최지 결정(코디네이터)

- 1998년 제 5회 회의는 토야마현에서 개최됨을 선언
- 2000년 제 6회 회의는 사하공화국에서 개최 희망

13) 연합의장 수락 연설(경상북도지사)

- 연합의 첫 번째 의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낌
- 상호이해, 평등, 신의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완수할 각오

14) 공동선언문 채택(코디네이터)

- '96 경북선언문 채택

15) 회의종결(코디네이터)

- 새로운 국제기구의 의장과 사무국을 맡은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와 경상북도 관계자에 큰 기대

16) 공동선언문 발표(경상북도지사)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들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영속적인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을 결성하고, 그 현장을 채택
-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 공동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 차기회의는 1998년 일본국 토야마현 에서 개최

< 경북선언문 >

'93년 일본의 시마네현 회의, '94년 효고현 회의, '95년 러시아의 하바롭스크회의에 이어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러시아 연방의 자치단체들은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 만나 『'96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지역은 세계경제의 뉴-프론티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화질서 구축, 경제협력, 환경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오랜 기간 밀접한 교류, 협력관계를 맺어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들은 보다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호혜·평등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협력활동을 통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왔다.

이상과 같은 공통인식과 지난 3년간의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21세기를 향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의 실천적 교류·협력방안”을 주제로 하여 이 회의를 영속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기구로 정착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광범위한 과제들의 실천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들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영속적인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을 결성하고, 그 현장을 채택한다.

2. 지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3. 차기회의는 일본국의 토야마현에 개최하기로 한다.

**(라) 행사성과 및 과제**

1) 주요성과

- 연합현장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자치단체 간 국제기구로는 사상초유의 「동북아 자치단체연합」이 공식적인 국제조직으로 출범
- 지역간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음.
-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극동시베리아지역에 대한 투자진출과 자원 확보는 물론 북방교류의 전진기지를 구축하였음.
- 회의에 참가하는 러시아대표단과 경상북도 기업인이 경제인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통상진흥의 계기를 마련함.
- 중국, 일본, 러시아의 민속예술단과 경상북도의 국악 및 무용단 등 4개국 9명이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민속축제를 펼침으로써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하였음.
- 이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민화합을 도모하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2) 평가

- 중앙정부 세계화 시책의 지역적 구현
  - 세계화, 지방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중앙정부의 「북방외교」를 지방적으로 보완
- 지방이 주체가 된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 「국가간」 관계위주에서 「지방간」 「비정부조직(NGO)간」 관계로 외교의 지평 확대
  - 국제경제의 지역화, 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기틀 마련

**(마) 부대행사**

1) 동북아 민속축제

- 공연기간 : '96. 9. 7 ~ '96. 9. 13(7일간)
- 공연횟수 : 7회(8,000명 정도 관람)
- 공연장소 : 4,563석
- 공연시간 : 100분(팀당 20분)
- 공연단 : 5개 팀 91명
  - 중국 하남성 문화예술대표단 16명 : 민속악기로 전통민요 연주
  - 일본 시마네현 高津神樂예능단 16명 : 대표적인 민속예능인 神樂 공연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벨로로자바야 민중 무용단 19명(전형적인 러시아 지방민속무용)

- 경상북도 김동은 무용단 20명 : 민속무용, 부채춤, 장고춤, 살풀이 등
  -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20명 : 사물놀이, 민요
- 2) 경제인 간담회
- 일시 : '96. 9. 11(수) 16:00 ~ 18:15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B1)
  - 참가 : 30명
    - 러시아 참가자: 11명(이르쿠츠크주 4, 사할린주 3, 브라티야공화국 4)
    - 도내 경제인 등: 19명(경제기관 단체 7, 기업체 대표 12)
  - 내용
    - 환영인사(행정부지사)
    - 경북산업설명 VTR 시청
    - 통상 및 투자관련 간담
    - 환영연 참가

※ 진행 : 대구대 이해두 교수
- 3) 전시회
- 수출상품전시회
    - 전시기간 : 9. 11 ~ 9. 14 (4일간)
    - 전시장소 : 현대호텔 1층 미술전시실
    - 전시부스 : 24개 (전시품목 : 90개 품목)
  - 미술작품전시회
    - 행사개요
    - 기간 : '96. 9. 10 ~ 9. 14(5일간)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1층 미술전시실(50평)
    - 주관 :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 전시작품 : 118점 (한국화 26, 양화 64, 서예 12, 조각 8, 공예 4, 판화 4)
- 4) 산업시찰 및 관광
- 일시 : '96. 9. 13(금)(08:00, 09:00, 09:30 ~ 현대호텔 현관)
  - 출발 : 현대호텔 현관, 지정버스 승차안내
  - 인원 : 3개국 200여 명
  - 시찰코스 및 시간
    - 제1코스 : 경주고적 탐방 (불국사, 박물관, 천마총, 첨성대, 석굴암 등)
    - 제2코스 : 포항제철시찰 (러시아 54명, 10:20 ~ 11:40), 경주고적 탐방
    - 제3코스 : 구미공단시찰 (중국 11명, 9:40 ~ 10:10), 구미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LG전자 구미제2공장 (10:25 ~ 11:40), 경주고적탐방  
 ※ 오전 산업시찰 후 오후 경주사적지 관람

(2) 제2회 총회

(가) 개최배경 및 목적

동북아시아의 자치단체가 호혜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이해에 따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전체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동시에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 협력을 비롯한 경제통상과 학술문화교류, 방재 협력 등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진지한 논의와 함께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뢰관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지역간 교류활동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나) 회의개요

- 1) 기 간 : 1998. 10. 20(화) ~ 9. 23(금)
- 2) 장 소 : 토야마시내 (메이테츠 토야마호텔)
- 3) 주 최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토야마현
- 4) 후 원 : 외무성, 자치성, 일본해연안지대진흥촉진의원연맹, 일본해연안지대진흥연맹, 주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주일러시아대사관
- 5) 참가범위 : 5개국 24개 자치단체 (옵서버 : 극동자바이칼협회)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2	요녕성, 산둥성
일본	11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몽골	1	투브아이막
한국	7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러시아	3	사하공화국,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6) 회의시간계획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10월 20일 (화)	14:00	등록
	16:00	실무자준비회의
	18:00	환영만찬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10월 21일 (수)	9:20 9:30	연합의장 인계식 개회 • 내빈인사-외무대신, 자치대신, 駐 니가타대한민국총영사, 주일중화인민공화국대사(일등서기관 대독), 주일러시아연방대사(참사관 대독) • 내각총리대신 축전
	10:20 10:30	• 자치단체연합활동보고-경상북도 국제통상과장 • 연합현장개정 (1) 의결사항 -현장개정 : 연합의 범위확대,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연합지원기관의 등록 (2) 승인사항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의 5개 분과위원회 설치 승인 (3) 보고사항 -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하여
	11:00	제안 및 협의 1 제안 자치단체 : 후쿠이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13:30	중식
	13:30	제안 및 협의 2 제안 자치단체 : 요녕성, 산둥성, 투브아이막, 사하공화국,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15:20	제안 및 협의 3 제안 자치단체 :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16:30	질의
	17:00	차기 총회개최단체 결정
	17:30	'98 토야마선언 채택
	17:40	수석대표 기념촬영
18:30	기자회견 (연합의장 등) 교류파티	
10월 22일 (목)	9:00	시찰
	19:00	우호 교류단체와의 교류회
10월 23일 (금)		출국

(다) 회의내용 총괄

1) 연합활동보고 (경상북도국제통상과장)

- '96 동북아시아지역자치체회의 개최시 현장제정 및 채택하고 연합설립초대의장단체에 경북, 부의장단체에 토야마현이 선임되어 의장단 구성, 7대 공동과제 채택, 부대행사로 동북아 민속축제, 경제인 간담회, 수출상품 및 미술작품 전시, 산업시찰 등 실시
- '97년 8월에 경주에서 연합현장 제10조에 따라 실무위원회 개최(4개국 26개단체 참가, 러시아 극동자바이칼협회 옵서버 참석) '96년 회의에서 채택된 7개 공동과제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경제통상, 환경, 교류일반 등으로 나누어 토론, 40여 개의 공동과제가 제안됨.
- '97년 11월 26일~29일까지 제1회 실무소위원회 개최(4개국 7개 단체) 한국 경상북도, 충청북도, 중국 하남성, 흑룡강성, 러시아 극동자바이칼협회, 일본 토야마현, 효고현의 과장급 14명이 참석
- 북한과 몽골의 연합가입문제에 대해 논의, 현장 4조의 회원범위 조항의 수정안에 합의, 5개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고 현장규정개정안을 작성
- '98년 7월 7일~10일까지 제2회 실무소위원회 개최(4개국 7개 단체)  
한국 경상북도, 충청북도, 중국 흑룡강성, 하남성, 러시아 극동자바이칼협회, 일본 토야마현, 효고현 참석  
분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논의되고 회원확대를 위해 현장규정에 몽골과 북한을 추가하기로 함.  
각 회원단체가 설치 혹은 설치계획중인 기관을 연합과 연계시켜 연합활동을 서포트 하기 위해 현장상 연합지원기관규정을 신설하는 案을 마련
- 연합사무국은 '96 동북아자치단체회의 및 '97 실무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 배포 '동북아시아연합뉴스' 지를 발행, 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중
- 회원단체가 추진한 시마네현의 동북아지역교류의 배, 경상북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제주도 문화 축제, 이르쿠츠크 동양학 국제회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제1회 포럼을 후원

2) 의결 사항- 현장개정 (연합사무차장)

- 연합회원범위 확대 : “연합”의 회원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등 여러나라의 자치단체 중에서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추가(개정내용)

**제10조 (구성 및 운영) 제4항**

- ③ 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제4항**

-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연합 지원기관 등록에 관하여 : 신설

**제4절 연합 지원기관(연합 센터 등)**

**제16조 (신설)**

회원자치단체는 동북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이하 '연합 지원기관(연합 센터 등' 이라고 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등록)**

- ① 회원자치단체가 연합지원기관(연합 센터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회원자치단체의 신청에 의거하여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연합지원기관(연합 센터 등)은 활동 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

3) 승인사항 - 분과위원회 설치(연합 사무차장)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의 5개 분야에서 각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승인하는 안건

4) 보고사항 - 분과위원회 규정(연합 사무차장)

실무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실무소위원회에서 각국 대표 자치단체들이 검토협의를 거쳐 제정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헌장 제11조제4호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제1조 (설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서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 혹은 과제(이하 '개별 프로젝트' 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2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② 문화교류분과위원회

- ③ 환경분과위원회
- ④ 방재분과위원회
- ⑤ 일반교류분과위원회

### 제3조 (기능)

1. 각 분과위원회는 제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해 검토, 협의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참가 자치단체가 제안한 개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검토 협의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4조 (구성)

분과위원회는 각각의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부·국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운영)

1. 각 분과위원회에 호선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연락, 조정,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이하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라고 한다)를 둔다.
2. 코디네이터 자치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을 막지 않는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통신방식(우편, 팩스 등)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 (참가)

1. 분과위원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각 코디네이터 자치단체에 대해 참가 신청을 한다.
2.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는 해당 분과위원회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7조 (비용부담)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교통비 및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회원참가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 (연합 사무국과의 관계)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사무국에 송부하고 사무국은 그것을 분과위원회 구성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송부하도록 한다.

### 제9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 (효력)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5) 제안·협의

#### [후쿠이현 지사]

-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치단체 환경 시책이나 환경관련 정보, 참고가 될 만한 기술연구 제도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정보수집 및 전달을 네트워크화  
먼저 환경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 조사 실시에 대한 검토 필요

#### [경상북도지사]

- 국제유교문화제 개최에 많은 참가 부탁
-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대회 정례화 - 각 회원단체 순회 개최 제안
- 연합의 동북아지역 교류촉진 채널 역할 강화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많은 참가 부탁

#### [강원도 정무부지사]

- 북한이 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개최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주시 '동북아 자치단체 무역박람회' 병행 개최 제안
- 동북아자치단체 테크노마트 개최 제안

####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국제환경회의 및 포럼 정례화, 환경정보교류센터 설립, 자연생태계 보전을 잘한 지역을 선정 하여 상호 시찰

####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 전자상거래에 관한 자치단체간의 통상교류 확대 제안
  - 각 자치단체 통상담당자가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특산품과 농산물을 게재하고 자치단체가 거래 이행 및 사후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방식 제안
  - 기업인이 공통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공간 및 공동 시스템을 개발하여 동북아의 각 자치단체에 등록시킴으로써 구매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원활히 함. 농산물의 경우 각 자치단체 담당자의 알선을 통한 계약재배 유도 및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를 통해 자치단체간의 계약 재배를 활성화 시킬 것 제안
- 2000년에 F1 그랑프리 대회 개최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 전라남도 소개 및 경제교류 프로그램, 테마파크 조성, 2010년 해양엑스포 지원 요청, 음식 축제 참가 요청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 창원 국제 기계박람회 참가요청 및 경남지역의 관광 개발 투자 유치 제안

**[요녕성 외사판공실 주임]**

- 경제협력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 지도 등 인재양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중요성,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

**[산둥성 외사판공실 주임]**

- 자치단체가 연락 창구 및 책임자를 정해서 연합사무국으로 가능한 빨리 연락처를 보내고 연합사무국은 그것을 정리해서 회원단체에 배부해주길 요청
- 사무국이 회보 혹은 정보지를 창간해 주기 바람
- 산둥성 경제무역상담회, 한중경제무역상담회, 태산등반제, 웨이팡 국제 연날리기 대회 등 행사소개 및 공자 연구원 건립 소개

**[몽골 투브아이막 부지사]**

- 지역 레벨의 교류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투브아이막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생각

**[사하공화국 대통령]**

- 경제협력 제안
  - 러시아와 일본간의 국제적인 에너지 브릿지 창설
  - 친환경 가스 등 연료자원 개발 프로젝트
- 동북아에서 천재, 인재 등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기금 창설

**[연해변경주 부지사]**

- 동해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분야의 협력에 관한 조사센터 설립 제안
- 동해의 환경보호 국제기금 설립 제안
- 동해 자연의 공동조사 제안
- UN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 실시로 인한 월경적 공업 및 생활하수가 동해의 생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조사 제안

**[하바롭스크변경주 부지사]**

- 자연재해 발생시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 제안
- 지난 회의에서 하바롭스크가 북한과 몽골을 연합에 가입시킬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북한과 몽골에 연합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 몽골은 즉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오늘 회의에도 참석

북한 외무성의 러시아부 부장과 하바롭스크변경주에 소재한 북한 대표부를 통해 북한 정부에 제안. 처음에는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며 지방의 한 곳을 가입시켜도 좋다고 함. 그러나 그 후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동북아의 몇몇 나라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임. 그 후 북한에서도 하바롭스크변경주에 소재한 대표부를 통해 북한은 동북아자치단체 회의가 러시아, 중국, 몽골에서 열릴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함. 이러한 경위로 인해 참가는 피하고 있으나 지역레벨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음.

[니가타현 부지사]

- ‘니가타 · 동북아시아 경제회의 99’ 안내
- 각 지역의 싱크탱크간 및 각 지역 싱크탱크와 동북아 연합과의 네트워크 강화 제안

[토야마현 부지사]

- 다양한 환경협력 프로젝트 추진 제안 및 환경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의향 있음
- 동북아 멧세 in 토야마 개최 안내

[이시카와현 부지사]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솔선해서 나설 필요가 있음. 각 자치단체가 추진 상황, 조사 연구 성과나 환경 관련 기술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중요
  - 지구 온난화 방지 :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과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 추진상황
  - 오존층 보호 : 특정 프레온가스 회수 추진
  - 산성비 방지 : 추진상황과 조사연구결과 공표
  - 해양오염 방지 : 대규모 기름 유출 재난 정보 및 대응
  - 철새 보호

[교토부 부지사]

- ‘교토 의정서’ 채택 소개
- 학술, 연구를 통한 교류 제안

[효고현 이사]

- 동북아의 방재능력 향상을 위해 방재관련정보 교환 및 방재담당자의 교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측정방법 등을 통일하여 평가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현황조사 와 기술 교류 추진을 제안
- JAPAN 플로라 2000 참가 부탁

[돗토리현 출납장]

- ‘산인 · 유메미나토 박람회’ 와 ‘동북아 경제포럼 요나고 회의’ 보고
-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 제안

[시마네현 부지사]

- ‘동북아교류의 배’ 사업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제안
  - 동북아 자치단체연합의 첫 액션프로그램으로서 13개 자치단체의 공동 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13일간 총 358명이 참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크루징 하면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교류를 담당할 인재 육성과 인적교류 네트워크 형성 도모를 위해 이루어짐.
  - 다지역간 교류사업의 선구적이며 획기적인 모델
  - ‘동북아시아 교류의 배’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및 총회 당일 배포
  -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실시형태는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는 것이 적당

6) 협의

[강원도 정무부지사]

-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보충설명

[연해변경주 부지사]

- 오늘 있었던 제안을 총괄, 정리해서 보내주기 바람.

[하바롭스크변경주 부지사]

- 분과위원회 활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바람.

[니가타현 부지사]

- 각 지역에서 상담전시회 등을 많이 개최하고 거기에 참가 요청도 많이 하는데 더욱 유효하게 개최하기 위해서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상담회, 상담전시회 등의 개최 기간이나 내용, 혹은 방법 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길 바람.

[이시카와현 부지사]

- 연해주의 환경협력에 관한 지역간 조정 센터 창설에 대한 제안은 내용, 기능 면에서 분과위원회와 비슷한 면을 지닐 것으로 생각되므로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조정 및 검토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음.

[사하공화국 대통령] - 환경 장관 발언

- 사하공화국의 특별 자연보호구역 설정 및 관련 회의 소개

7) 차기 개최 자치단체 결정

[효고현 이사]

- 중국, 러시아에서 개최를 희망했는지 확인
- 차기 개최지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장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
-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자치단체가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자치단체의 의사 표명이 없음을 전제로 일본(토야마현)-일본(효고현)의 연이은 개최는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함.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여 효고

현은 차기 개최지가 될 용의를 포함.

- 지금까지의 실무위원회 및 어제의 준비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비문제는 향후 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 효율적인 경비 부담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바람.

8) '98 토야마 선언 채택

① 1998년 10월 21일 일본 토야마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및 러시아 연방 등 관계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98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치단체회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연합>이라고 함) 설립 후 첫 회의이며,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연합활동을 평가하고, 아시아 경제위기 등 어려운 정세 하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경제통상·문화교류·환경·방재 등의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교환과 협의가 이루어졌다.

② 경제, 정보,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 간의 협조와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항만, 공항 등의 생산·교류기반의 충실화, 생활환경과 문화의 풍요로움 등 다면적인 매력을 강화해가는 것이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과 안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졌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지역의 각 자치단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교류·협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꾀하여 이 지역의 보다 나은 발전과 안정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각종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③ 우리 참석자들은 이러한 공통인식과 <93 시마네회의>, <94 효고회의>, <95 하바롭스크회의>, <96 경상북도회의>의 정신을 계승함과 함께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연합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시키고, 연합 현장을 개정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을 확인했다.

○ 연합회원의 확대와 연합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에 몽골국 등 동북아시아지역 모든 국가의 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몽골 투브아이막의 참가를 환영한다. 또한 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 자치단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치단체의 연합참여에 관하여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노력해 간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 자치단체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프로젝트의 구체화와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마다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단체간의 제휴협력·교류사업을 촉진한다.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문화교류분과위원회
- 환경분과위원회
- 방재분과위원회
- 일반교류분과위원회

- 연합참가자치단체는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연합지원 기관(연합 센터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
- ④ 우리 참석자들은 각 자치단체로부터의 제안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각 프로젝트 등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검토·협의할 것을 확인했다.
-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담·물산전시·투자환경소개·관광PR 등의 자리 제공과 정보교환에 노력함은 물론 상거래의 원활화, 기술교류, 기업연수의 장려 등 경제통상분야의 연계협력을 촉진한다.
-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 극복은 인류공통의 과제이며, 각 자치단체가 각각의 특색을 살린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동조사 실시, 정보교환, 연구자 교류 등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관계를 강화한다.
- 다양한 문화·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더욱 깊은 상호 이해를 위해, 문화·학술 관련 국제적 특별행사나 교류사업에 각 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참가, 지원에 노력하는 등 문화·학술적인 면에서의 교류협력을 촉진한다.
- 지진, 홍수, 산림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 체제와 사례연구 등의 정보교환 및 조사·시찰단의 파견, 방재담당자 등의 인재교류 가능성을 검토한다
- ⑤ 그리고, 올해 비정상적인 홍수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동북아시아지역 피해지역의 자치단체, 주민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조속한 회복을 기대한다.
- ⑥ 효고현으로부터 차기 자치단체회의를 2000년에 일본국 효고현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어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연합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경비부담의 문제 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 (3) 제3회 총회

#### (가) 개최배경 및 목적

동북아시아의 자치단체가 호혜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지향하며, 세계평화에 동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된 ‘동북아시아자치단체 연합회의’의 제3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모여 연합 설립 이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지역간 교류의 전개방식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며 지역의 과제에 대한 공통인식과 상호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연합의 목적인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다.

(나) 회의개요

- 1) 기 간 : 2000. 9. 4(월) ~ 9. 7(목)
- 2) 장 소 : 효고현립 아와지 유메부타이 국제회의장
- 3) 주 최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효고현
- 4) 후 원 : 외무성, 자치성, 주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주일몽골국대사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주일러시아대사관
- 5) 참가범위 : 5 개국 26개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3	흑룡강성, 산둥성, 영하회족자치구
일본	11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몽골	1	투브아이막
한국	7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러시아	4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캄차카주, 사할린주

6) 회의 일정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9월 4일 (월)	14:00	등록
	16:00	실무자준비회의(국제회의장 2층 메인홀)
9월 4일 (월)	17:00	강연회(국제회의장 1층 오피 시어터) 강사 :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아오키 타모츠 교수 주제 : 동북아시아의 신세기-지방정부의 역할
	18:30	환영리셉션
9월 5일 (화)	8:30	연합의장 인계식, 개회식
	9:10	전체협의
	10:10	-휴식-
	10:30	의견교환 [섹션 1] 주제 : 동북아시아의 지속적발전과 경제교류
	12:30	-중식-
	14:00	의견교환 [섹션 2] 주제 : 동북아시아 지역간 인적교류, 인재육성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16:00	차기개최단체 결정
	16:15	-휴식-
	16:45	선언문 채택
	17:00	폐회, 수석대표단 기념촬영
	17:15	기자회견
	18:30	교류파티
9월 6일 (수)	9:30	아와지 꽃 박람회 '재팬 플로라 2000' 시찰
	11:30	-중식-
	13:00	아와지 섬 '노지마단총보존관'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베 시내코스</li> <li>• 히메지 시내코스</li> </ul>
9월 7일 (목)		출국

(다) 회의내용 총괄

〈전체협의〉

의제 1 '연합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실무소위원회 설치'

[연합사무차장 (효고현 국제국장)]

(제안 내용)

1998년 10월 토야마현 총회 때부터 현안이었던 경비부담 문제를 비롯하여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 운영에 관한 과제에 대해 실무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함.

- 1) 회비제 도입 등 연합의 재정기반 정비에 관한 과제
- 2) 상설사무국 설치 등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과제
- 3) 회의 활성화 방안

의장단체, 차기 의장단체(부의장단체), 각국 2단체 정도로 구성되는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 운영에 관한 실무소위원회' 설치 제안

(제안 이유)

- 1) 총회 개최에 앞서 연합 운영에 관한 각 자치단체 의견을 종합한 결과 먼저 회비제 도입 등 연합의 재정기반 정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비제 도입을 통해 회의 개최 단체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연합의 재정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회비제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2)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는 순회로 사무국을 맡지 말고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3) 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총회, 실무위원회 이외에도 회원단체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음.

총회는 격년, 실무위원회도 연1회로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실무위원회 자리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따라서 실무위원회 안에 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위원회 협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경상북도지사]

순회사무국은 자치단체가 사무국을 공유해서 운영한다는 메리트도 있으나 사무국의 지속성, 원활한 정보 공유와 기록 보존이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현행 순회사무국과 병행해서 운영될 상설사무국 설치를 위한 논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 사무국 설치 임무를 경상북도에 부여해주길 바람.

[연합사무차장]

고정 사무국을 이 자리에서 경북에 설치하자는 제안이며 그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경상북도지사]

상설사무국과 순회사무국 기능문제, 재정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경상북도로서는 상설사무국을 우리에게 준다면 앞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

의제 2 '회원 범위의 확대'

[연합사무차장]

1998년 제2차 총회에서 한국과 러시아 자치단체에서 북한의 연합 가입에 대해 각 자치단체가 계속 노력하기로 한다는 발언이 있어 선언문에 그 취지를 담았음.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본 총회에서도 북수의 참석 자치단체에서 북한의 지방자치단체가 동북아 공동발전과 세계평화 기여라는 연합 목적에 찬동하고 참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옴.

[경상북도지사]

북한의 연합 참가를 위해 연합 명의로 공동선언문 채택을 희망

[하바롭스크변경주 부지사]

동북아지역의 전 지역, 자치단체가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가입을 지지함.

[토야마현 지사]

경상북도와 하바롭스크변경주 의견에 찬성

<의견교환>

섹션 1 테마 : 동북아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교류

[경상북도 지사]

자치단체의 공동변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단체간의 결속을 다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 협조가 필요

- 지방을 주체로 한 평화와 공동 변영이라는 연합의 이상과 가치를 재차 강조
- 경제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구체화
-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 연합과 세계 경제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

[토야마현 지사]

- 동북아시아의 환경보전 입장에서 의견 제시
- 환일본해 환경협력센터 설치- 정부소관의 공익법인으로 인정. 북서태평양지역보전실천 계획 (NOWPAP)의 지역 활동 센터로 지정됨.

[산둥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 연합의 비정식회원으로서 연합의 총회, 실무위원회 및 경제무역교류 이벤트 등에 적극 참여 해 왔음.
- 산둥성 청도시에서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심포지움' 및 청도 대외경제무역상담회 개최

[니가타현 부지사]

- 동북아시아경제회의 설명

[교토부 부지사]

- 환경문제 중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에 대한 노력 소개

[강원도 부지사]

- 각 지역간을 연결하는 운송망, 정보통신망 확보가 필요  
- 속초~자루비노~훈춘 항로 개통
-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있음.

[하바롭스크변경주 부지사]

- 안정된 경제적 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는 에너지
- 에너지 부문 협력은 국가차원의 문제이지만 지방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도 있음.

[충청남도 부지사]

- 국제박람회에 따른 교류와 협력 확대 제안
-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소개

[이시카와현 부지사]

- 이시카와현의 동북아시아지역과의 교류 소개

[후쿠이현 출납장]

- 쓰루가항을 중심으로 중국 다롄 또는 한국 부산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 확립을 위해 노력 중
- 공룡박람회 개최

[돛토리현 부지사]

- 환동해지역 경제교류 현황과 향후 계획 소개

[전라북도 부지사]

- 해외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 전라북도, 가고시마현, 이와테현과 함께 과학기술 교류사업 추진

[연해변경주 부지사]

- 연해변경주의 발전가능성과 동북아지역에 대한 공헌 소개

[경상북도지사]

- 현재 NEAR 사무국 홈페이지를 보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축 제안

[연합의장- 효고현 지사]

- 효고현과 자매결연 지역과의 경제교류를 위해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관련산업도 포함한 산업 전시회 개최
- 폐쇄성 해역의 환경 대책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또는 참가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연락해 주기 바람.

[투브아이막]

- 두만강 개발계획의 더 많은 프로젝트 추진 기대, 북한 가입 지지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장]

- 부산시의 경제현황 소개

[교토부 부지사]

- 교토는 닌텐도, 교세라, 오펜 등이 입지한 세계적인 하이테크 산업의 집적지이며 마이츠 루 항구도 정부로부터 FAZ 지정을 받아 항만정비를 추진 중.

[경상북도지사]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소개

[충청북도 부지사]

- 세계인쇄문화엑스포 소개

<의견교환>

섹션 2 테마 : 동북아지역간의 인적 교류, 인재 육성

[시마네현 출납장]

- 인재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올해 4월 시마네현립대학 오픈, 동북아지역연구센터 설치

- ‘동북아시아 교류의 배’ 와 같은 연합 공동사업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필요 있음.

[토야마현 이사]

- 제2회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제안 소개
  -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 개최에 합의
  - ‘동북아시아지역 교류의 배’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를 포함한 인재육성사업에 공동으로 노력할 액션프로그램이 제안됨.
  - 조사연구기관의 연계강화방안
  - 정보교류 추진

[사할린 의전부장]

- 동북아의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 소개

[충청북도 부지사]

- 자치단체간 직원 상호교류, 민간단체 교류, 청소년 교류 제안 및 구체적인 공동프로그램 논의 제안

[영하회족자치구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 영하회족자치구 소개

[전라북도 부지사]

- 청소년 육성사업, 자치단체 직원 교류 추진 상황 소개

[연해변경주 부지사]

- 연해변경주의 인재 양성 및 교류 활동 소개

[후쿠이현 출납장]

- 후쿠이현과 연해변경주의 상호 시찰 협력단 파견 및 청소년 교류사업 소개

[하바롭스크변경주 부지사]

- 동북아시아 각국의 외국어 교육과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실시를 중심으로 인재육성 전개

[돗토리현 총무부장]

- 환일본해 국제 어린이 문화 교류 사업 실시 및 ‘환일본해 어린이 환경 서미트’ 개최
- 역사 연구에 관한 교류 추진
- 몽골에는 우물 설치 협력, 중국에는 식수 사업을 하는 등 민간차원 국제협력에 자치단체도 함께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

[이시카와현 부지사]

- ‘UN 동북아시아 카나자와 심포지움’ 개최 및 ‘아시아 포럼’ 개최

[충청남도 부지사]

-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행정교류, 청소년 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등 소개

[강원도 부지사]

- 직원교류, 농업, 보건 환경 등 전문분야의 연수생 상호파견
- 파견 및 교류사업이 자매결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전 회원단체로 확대되길 바람.
- 한국전 참전국 군인들이 모여 연주회를 갖는 '2000년 세계평화 팡파레' 사업 소개

[교토부 기획참사]

- 교토부와 각 출신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교토부 명예우호대사 사업 소개
- 지적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 자치단체 관계자, 기업,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일본해 아카데미 포럼' 소개
-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학술을 통한 교류가 특히 중요

[연합의장(효고현 지사)]

- 효고현의 인적교류 시책 소개
  - 자매결연 자치단체에서 무역, 농업, 수산, 의료 분야의 기술연수생 수용사업
  - 재해대책에 대한 국제협력
  - 국제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
  - 효고현과 아태지역 대학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HUMAP) 소개
  - '아태 포럼 · 아와지 회의' 소개

[니가타 부지사]

- 니가타현이 실시하고 있는 유학생과 연수생 지원사업 및 니가타 아시아 문화제 소개

[투브아이막 기획 · 재정경제부장]

- 일본 돗토리현과 공동으로 3년째 우호교류사업 실시 중
- 몽골 청년 교육에 대한 강원도와 토야마현의 협력에 감사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장]

- 문화기술분야와 청소년 분야에 관한 인재교류 소개

[산동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 각 자치단체가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각도에서 앞으로도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길 바람.

[토야마현 이사]

- 일반분과위원회의에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인재 육성 사업을 하는 액션 프로그램을 검토하기로 합의
- 우호체결지역의 틀을 넘어 다지역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재육성 사업에 타 자치단체도 정보제공 및 참가를 통해 가능한 협력하자는 인식이 강화됨.

<차기 개최단체 결정, 회의총괄 선언문 채택>

[연합의장]

-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2002년 총회 개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의사표시가 없었음.  
(하바롭스크변경주 2002년 총회 개최에 만장일치 합의)

[하바롭스크변경주 지사]

- 러일 정상회담에 참가하느라 이번 총회에 지각하게 되어 죄송하며 2002년 연합총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회원단체에 감사

[하바롭스크변경주 경제관계국장]

- 하바롭스크변경주의 현황 설명

[연합의장]

- 효고·아와지 선언 협의 및 선언문 통과 선언

4) 효고·아와지 선언

2000년 9월 5일 국제 원예·조원(造園) 박람회인 아와지 꽃 박람회 <JAPAN FLORA 2000> 이 개최되고 있는 일본 효고현의 아와지 유메부타이 국제회의장에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및 러시아 연방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 2000>을 개최하였다.

이번 자치단체회의는 1996년에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제3회 총회로서 개최되었다.

1990년대를 지나며 동북아 지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국에서는 경제를 중심으로 글로벌화가 진전되어 풍요로워진 반면, 금융위기 등 정부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과제도 발생했다. 또한 각지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지진과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NGO 등도 참여한 국제적인 구원 활동이 일상화 되었다. 인류 공통의 과제인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화가 한층 더 진전되고 있는 21세기에 대해 NGO, 개인,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가 이외의 활동 주체가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 조류는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한 지역간 연계에 따른 과제 해결의 중요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또한 비약적인 발달이 기대되는 정보 기술은 지역간 연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 대표자가 21세기를 위한 동북아 지역간 교류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교류촉진 방안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 참가자들은 설립 후의 연합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연합의 내실 등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지역간 교류 전개에 대해서 「동북아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교류」 및 「동북아지역의 인적 교류·인재 육성」의 두 가지 주제를 정해 경제, 환경, 문화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 걸쳐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협의를 통하여 우리 참석자들은 동북아 지역의 각 자치단체가 지역간 교류 촉진에 따라 상호 이해를 심화, 그리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전체적 발전을 지향하는 연합의 의의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다음 사항에 대해 공통 인식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 동북아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를 한층 더 충실히 함과 아울러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기업 멧세나(mecenat) 이벤트 등에 상호 참가함으로써 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류사업의 장을 확대한다. 그리고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수라는 인식하에 국제회의의 개최 등에 의한 환경정책과 관계되는 정보교류의 내실을 도모함과 아울러 환경문제와 관련한 역내 자치단체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2. 동북아지역간의 폭넓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술, 문화, 예술 등의 인적 교류와 도시문제 등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관한 연계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동북아지역을 이끌어 갈 청소년과 학생 등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이해의 심화를 도모한다. 또한 건강, 방재 등의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 등 인재육성 분야의 지역간 협력 추진을 도모한다.
3.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의 방향성과 회비 등 재정적인 과제를 포함하여 연합의 운영에 관한 과제와 대응책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실무위원회에 의장 단체, 부의장단체 및 각 국 2개 단체 정도로 구성되는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 운영에 관한 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검토에 이바지한다.
4. 금년 6월에 열린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동북아지역의 각국 중에서 유일하게 연합참가 자치단체가 없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방 자치단체가 동북아시아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여라는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연합 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5. 차기 총회는 참가자치단체의 전체 뜻에 따라 2002년 러시아 연방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개최한다.

#### (4) 제4회 하바롭스크 총회

##### (가) 개최배경 및 목적

- 1) 개최배경 : 세계화 흐름 속에 동화하면서, 그것과 경계를 두지 않고 조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화 활동에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 2) 목적 : 동북아지역의 상호이해, 호혜와 평등에 바탕을 둔 지역협력을 위한 장치 마련의 모색

(나) 회의 개요

- 1) 기 간 : 2002. 9. 10 ~ 11
- 2) 장 소 : 러시아 하바롭스크 시
- 3) 주 최 : 하바롭스크 시
- 4) 참가회원단체 : 6개국 30개 지역자치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러시아	8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 브라티야공화국, 이르쿠츠크주, 캄차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오르진스크-브라티야 자치구
일본	9	아오모리현, 후쿠이현, 효고현, 이시가와현, 니가타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토야마현, 야마가타현
몽골	1	셀렝그아이막
중국	3	닌샤 후에이 자치구, 흑룡강성, 산둥성
북한	2	함경북도, 라선시
한국	7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5) 관찰자 권한으로 참가

- 일본(3) : 하바롭스크 일본 영사, 총영사, 일본 공사

6) 주제 : 세계경제의 지구화와 관련된 동북아시아 지역들간의 경제협력의 전망과 기본발전방침의 검토 논의

(다) 회의내용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 분과위원회들의 사업 보고
- 연합회 임시사무국의 소재문제의 변경
- 차기총회의 소집과 관련된 일부 경비의 분담제도의 기본 원칙의 승인
- 연합회 상설사무국의 설치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몽골 및 러시아의 지역단체 입회

(라) 회의시간 계획표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9월 9일 (월)	11:00 ~ 13:00	시내구경
9월 10일 (화)	09:30 ~ 10:00	참가자 리셉션
	10:00 ~ 10:30	포럼의 개회, 의장 임명 인사말 : 하바롭스크변경주 지사 이사예프 빅토르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인사말 : 호고현 지사 이도, 사무국사업의 보고 러시아연방정부의 인사말
	10:30 ~ 11:20	정기회의
	11:20 ~ 11:40	커피 타임
	11:40 ~ 12:00	정기회의 : 연합회 새 현장 초안의 토의
	12:00 ~ 12:40	토론회 : 현장에 대한 지적과, 제안
	12:40 ~ 13:50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 새 회원 입회 점심
	14:00 ~ 16:30	발표회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현황에서의 동북아시아들간의 협력 추진"
	16:30 ~ 16:50	커피타임
	16:50 ~ 18:00	연합회 조직문제 토의와 의결
	18:00	폐회
	19:00 ~ 20:30	하바롭스크변경주 정부 주최의 만찬-인투리스트 호텔
9월 11일 (수)	10:00 ~ 12:00	시내구경, 향토/미술 박물관 관람
	12:30 ~ 13:45	점심
	14:00 ~ 15:50	토론회
	15:50 ~ 16:00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의 새 현장 채택
	16:00 ~ 16:35	선언서의 토의와 채택
	16:35 ~ 16:40	의장권을 흑룡강성 단장에게 이양하는 의식
	16:40 ~ 16:45	흑룡강성 단장의 답례사
	16:45 ~ 16:55	하바롭스크변경주 지사 이사예프의 폐회사
	17:00	포럼의 폐회식, 기념촬영
	17:15 ~ 17:30	기자회견

(마) 회의내용 총괄

- 1) 환영사 (하바롭스크 이사예프 주지사)
- 2) 인사말 (효고현 이도 지사)
- 3) 정기회의 : 연합회 분과위원회 사업보고
  - 환경 분과위원회
  - 문화교류 분과 위원회
  - 경제통상 분과 위원회
  - 일반 교류 분과 위원회
  - 천재방지 분과 위원회

의견교환 및 발표

4) 연합회 조직문제 토의와 의결 : 효고현에서의 4자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효고현 국제교류실 사무국장 야마다 까즈히데 효고현 지사의 연설

5) 토론회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현황에서의 동북아지역간 협력추진”

효고현 지사의 연설

강원도(한국)정치문제 연설

돗토리현 부지사의 연설

(5) 제5회 총회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 연합 발전 대계 논의, 지역협력 및 공동 발전 모색

(나) 회의 개요

1) 기 간 : 2004년 9월 7일 ~ 8일

2) 장 소 : 중국 헤이룽지양성 하얼빈시

3) 주 최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중국 헤이룽지양성 인민정부

4) 참가회원단체 : 6개국 27개 자치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4	헤이룽지양성, 허난성, 닝시야후에이쭈 자치구, 산둥성
일본	9	아오모리현, 후쿠이현, 효고현, 이시가와현, 니가타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토야마현, 야마가타현
한국	7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북한	2	함경북도, 라선시
몽골	2	셀렝그아이막, 투브아이막
러시아	3	아무르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하(아쿠치아)공화국

5) 주 제 : 연합의 발전 대계 논의, 지역협력 및 공동발전 모색

(다) 회의내용

- 각 회원자치단체간의 협력 문제에 관해 논의
- 분과위원회 업무 보고
- 연합 휘장 제정, 상설사무국 체제 확정 및 설치장소, 임기, 연합현장 수정 등의 문제 토론 및 표결

(라) 회의시간 계획표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9월 6일		회의 참석자 등록
9월 7일	09 : 00 ~ 10 : 30	개막식, 분과위원회 업무보고
	10 : 45 ~ 12 : 00	회원단체대표 발언
	12 : 00 ~ 13 : 50	오찬
	14 : 00 ~ 15 : 00	회원단체 대표 발언
	15 : 00 ~ 17 : 30	의제 발표 및 토론
	18 : 00 ~ 19 : 00	환영만찬
9월 8일	09 : 00 ~ 10 : 30	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 토론 및 표결
	10 : 30 ~ 11 : 30	폐회선언
	오후	시찰
9월 9일		각 대표단 출국

(마) 회의 내용 총괄

1) 개막식

- 개회 선언 (헤이룽지양성 장쭈어지 성장 개막사)
- 축사 (중국 외교부 리 후에이 장관보)

2) 연합 주요활동 경과 보고

- 제4차 실무위원회 경과보고(헤이룽지양성 장칭이 부성장)
  - 상설 사무국 설치 문제
  - 회원자치단체 신분 문제
  - 연합회장 제정 문제
  - 연합회원자치단체간 인재교류 강화에 관한 의제
  - 연합회원자치단체간 경제·무역, 환경보호 등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해 의견 교환
  - 차기 연합 순회 사무국에 관한 문제

3) 각 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시마네현)
  - 2001년 11월,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제1회 회의 개최
  - 중, 러, 일 3개 언어로 문화교류분과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2004년 8월 시마네현에서 5개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청년우호교류행사 실시

-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 4개국, 13개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해변 표착물 조사 실시
    - 철새 공동 조사
    - 한국 충청북도 보령시에서 청소년 환경 세미나 개최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한국 경상북도)
    - 5개국가 23개 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제4회 동북아 비즈니스촉진회의' 개최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설명
    - '동북아경제통상정보시스템' 구축 설명
  -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 5개국 12개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제2회 방재분과위원회 개최
    - 방재분과위원회 활동상황 소개
- 4) 수석대표 연설 및 제안
- 헤이룽지양성 성장
    - 사회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여 지역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함경북도 대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간의 무역 및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번영, 그리고 이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
  - 부산광역시 부시장
    - 2006년 제6회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북의 물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아무르주지사
    - 각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자국의 언어와 영문으로 중요한 자치단체 관련 업무와 지역경제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보를 게재해 놓았는데 이는 지역간의 무역, 투자, 생산기술 및 과학 분야의 협력에 도움이 됨.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생명과학의 국제교류실시와 국제회의의 순회개최를 위해서 '국제생명 과학포럼' 창설을 제의
  - 닝시아후에이쭈 자치구 주석

-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협력과 교류를 실시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 토야마현 부지사
    - 동북아시아의 인재 육성과 환경협력을 위한 의견 제시. 연합의 각 자치단체가 각 분야에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지역간의 교류 실시 제안
  - 셀렝그 아이막 지사
    - 발전을 전제로 하여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자. 관광, 광산 및 식목 등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제의
  - 충청남도 대표
    - 2006년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소개 및 회원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요청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2007년 세계물류엑스포 개최 계획 및 회원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희망
  - 사하공화국 부대통령
    - 중국 하이룽지양성과 경제, 문화·교육, 과학 등 3개 분야의 협력방안 소개. 7월에 야쿠츠크에서 개최되는 제3회 아시아 어린이 국제스포츠 대회 소개
  - 산둥성 부성장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라는 교류의 장을 활용하여 상호연락을 적극 강화하고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공동번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임.
  - 전라남도 부지사
    - 전라남도의 투자환경과 우수산업 및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신청을 소개하고 각 회원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지 희망
  - 허난성 성장보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은 다양한 형식의 회의를 통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고 지혜를 모으며 시야를 넓히고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제공해 줌.
  - 나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 이처럼 풍부한 자연자원과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을 발전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우수성을 충분히 발휘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공동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 5) 총회안건 제안 및 토론
- [9월 7일]
- ① '연합회장 제정' 에 관한 제안 (하이룽지양성과 토야마현 공동)
- 토야마현 :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회장의 필요성과 선정절차를 강조

- 경상북도 : 이 제안에 동의하며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
- 하바롭스크변경주 : 회장 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여 이를 지지
- 헤이룽지양성 : 이 제안의 찬반에 관해서 거수를 통해 표결을 진행, 만장일치로 통과, 회장 제정은 의제에서 제출한 절차에 따라 차기 사무국에서 추진하도록 결정

② '변경협력분과위원회 신설' 에 관한 제안 (하바롭스크변경주)

- 하바롭스크변경주 : 제안에 대한 설명. 변경협력 실시는 변경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원동력임을 강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한차례씩 코디네이터 단체 소재지에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실시할 것을 제안
- 아오모리현 : 현재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있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중이니 중복을 피해야 함.
- 아무르주 : 변경 지역의 협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오를 수 있기에 변경협력 분과위원회 신설을 지지
- 셸렝그아이막 : 이 제안에 찬성. 이는 우리의 앞으로의 협력과 경제발전과 관광개발에 도움이 됨.
- 경상남도 : 경제통상분과위원회와 별개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동의
- 흑룡강성 : 거수로 표결을 진행, 만장일치로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신설과 하바롭스크의 코디네이터 담당을 결정. 이를 총회 선언문에 수록할 것임.

④ '연합총회 개최 시 기업박람회 개최' 에 관한 제안 (경상북도)

- 경상북도 : 제안에 대한 소개. 이 행사가 경제통상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촉진하는데 더 크고, 편리한 무대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제안
- 헤이룽지양성 : 이 제안은 경북이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번 총회에 상정된 것으로 총회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에서 일부 자치단체가 비용문제를 제기. 이에 경북은 이 제안을 의무조건으로 하지 말고 총회 개최단체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자 제안
- 경상북도 : 개최 능력에 따라 동시에 개최하던지, 총회만 개최할 것을 강조
- 닝시야후에이쭈 자치구 : 여건이 맞으면 병행개최를 하되, 의무적으로 병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효고현 : 경비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심도 깊게 토론할 필요가 있음.
- 허난성 : 기업박람회 개최에 동의하지만 개최능력 등과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하바롭스크변경주 : 개최지의 능력에 근거해서 병행개최를 실시해야 하고,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 부산광역시 : 반드시 의무화 할 필요는 없고, 총회개최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

• 산동성

- 연합의 명의로 유사한 행사 개최 시 연합에 상정하여 토론하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야 함. 단, 어떤 시, 주, 도, 현의 명의로 유사한 행사 개최 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 개최국에서 이러한 의제를 내놓았을 때, 회원들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 비용에 있어서는 개최국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참가단체가 나머지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 헤이룽지양성

- 경제무역 관련 행사 개최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자
- 총회 개최 의장단체는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부대행사 개최, 회원간 경제무역협력 교류 강화
- 행사를 폐쇄적이 아닌 개방형으로 개최하여 세계 어느 지역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됨.

⑤ 연합상설사무국에 관한 제안 (효고현, 경상북도)

- 효고현 : 상설사무국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 방안 제안. 각국에 사무국 지부설치 제안. 직원파견은 파견직원의 신분, 경비, 등급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생각
- 경상북도 : 6년 임기제가 사무국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에 유익하겠지만 연합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4년 연임제에 동의함. 지부 운영의 경비는 각국이 부담할 것을 제의. 직원파견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
- 전라남도 : 의장에게 효고현과 경상북도의 의견을 한번 더 확인해 줄 것을 부탁
- 헤이룽지양성 : 효고현과 경상북도에 아래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
  - 4년 연임제의 정의
  - 지부를 국가별로 설치할 것인지 원하는 회원자치단체가 설치할 것인지
  - 직원파견시 국가별로 1명 씩인지, 회원자치단체별로 1명 씩인지. 파견시 비용부담은 상설사무국이 할 것인지, 파견국 혹은 파견자치단체가 할 것인지
  - 상설사무국의 비용은 사무국 설치 자치단체 부담인지 모두가 부담하는 것인지
- 효고현
  - 1회 임기는 4년이며 연임에 관한 문제는 차기 총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하여야 함. 총회에서 동의하면 가능
  - 국가별로 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

- 파견직원 문제에 있어서 파견직원의 경비, 직위 등에 관해서 지금 토론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고 생각
- 상설사무국의 경비 문제는 좀 더 자세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
- 경상북도
  - 기본적으로는 상설사무국이 어느 한 곳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4년 동안 상설사무국을 잘 운영했다면 자동적으로 연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 이는 4년 후 총회에서 토론하면 된다고 생각
  - 국가별로 지부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결국 국가별로 설치하길 원하면 상황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회원단체간에 지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사무국은 상관하지 않음.
  - 직원 파견에 있어서 각 회원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파견. 직원파견 시 경비는 기본적으로 파견측에서 부담하고 어떤 경비는 사무국이 부담할 수 있음. 이는 파견측과 사무국이 토론하여 결정
- 효고현 : 상설사무국의 경비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 제안. 단 회원단체의 부담 능력에 근거하여 부담할 것을 제안. 상세한 부담 문제는 차기 실무위원회에서 토론할 것을 제안
- 닝시야후에이쥬 자치구 : 상설사무국 설치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 지부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며 연락처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
- 토야마현 : 상설 사무국의 4년 임기에 동의하며 1번만 연임할 것을 제안. 지부설치에 대해서는 각국이 결정하든지, 혹은 연합현장에 지부설치를 규정하는 것 제안
- 산퉁성
  - 상설사무국 설치 찬성
  - 4년 임기에 동의하며, 연임은 총회의 동의를 거쳐 할 수 있다고 생각
  - 사무국의 인원은 사무국 소재 자치단체가 정하고 기타 인원은 국가별로 한 사람씩만 파견, 사무국 소재 자치단체는 3~4명 파견가능. 사무국 총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
  - 사무국 소재 자치단체는 사무국의 사무, 교통비를 부담하고 또한 기타 임금과 생활전반에 대한 경비는 파견국에서 부담
  - 지부의 명칭에 관해서 연락소 혹은 사무처로 부를 것을 제안. 지부를 국가별로 설치하

는 것보다 회원단체별로 설치하여 사무국과 연락할 것 제안

- 셀렝그아이막
  - 4년 1회 임기에 동의
  - 상설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
  - 각국의 자치단체가 연합과 연락을 하고 있으므로 지부 설치의 불필요함.
  - 회비는 경제 상황에 근거하며 납부한다는 의견 지지
- 전라북도 : 상설사무국, 임기, 지부, 파견직원 등의 문제를 저녁에 실무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세한 부분을 토론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남성
  - 상설사무국의 설치에 동의
  - 4년 1회 임기에 동의. 임기 만료 후에는 총회를 거쳐 연임여부 결정
  - 경상북도에 사무국 설치 동의. 경북이 적극적이고 가장 먼저 설치를 신청하였기 때문
  - 지부 설치의 동북아연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
  - 사무국 경비문제는 사무국 사무비용은 사무국 소재 자치단체에서 부담, 파견직원의 개인비용, 임금은 파견측에서 부담
- 하바롭스크변경주 : 사무국은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경북에서 설치를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동의. 지부는 회원단체의 설치의향과 여건에 따라 설치. 임기는 사무국의 임기는 1회 연임을 원칙으로 할지, 무제한 연임제를 채택할지 좀 더 구체적인 의견 교환
- 부산광역시 : 사무국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것의 여부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함. 사무국지부, 직원파견, 경비 등 문제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밤에 토론했으며 내일 총회에 보고. 전라북도의 의견에 동의
- 헤이룽지양성 : 경상북도의 상설 사무국 신청의사 다시 한번 요청
- 경상북도
  - 상설사무국을 유치한다면 경북에서 관련 비용 부담
  - 인터넷을 통한 자치단체간 정보교류 교환 웹 사이트 구축
  - (1회에 한한 4년 임기제이며) 사무국 운영 비용은 상설사무국 설치 단체가 부담, 파견 인원의 비용은 파견국에서 부담
  - 회비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서 회원단체가 일부 부담
- 헤이룽지양성 : 오늘 저녁에 중국 헤이룽지양성, 일본 효고현, 토야마현, 한국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변경주 등 6개 회원단체가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사무국의 체제 및 직능, 임기, 설치장소, 지부설치, 경비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 내일 오전 총회에 의견 제출할 것.

[9월 8일]

- 헤이룽지양성 : 9월 7일 저녁 실무소위원회에서 토론하여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다음 이에 대한 각 회원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는 동안 부산광역시의 차기 총회 신청 요청
- 부산광역시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 2002년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 개최. 2005년 11월 APEC 회의 개최 예정. 2006년 연합 제6회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신청하며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희망
- 헤이룽지양성 : 거수를 통해 표결 실시. 만장일치로 통과. 부산광역시에 수락연설 부탁
- 부산광역시 : 각 회원단체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북아시아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회원단체간 정보교환, 인재, 물자교류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헤이룽지양성

가) 실무소위원회 공동 합의 사항 발표

- 상설 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연합 현장 제12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연합 상설 사무국은 연합 집행기구이며, 각국(각 회원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상설사무국에서 파견하는 직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실무 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상설사무국의 설치 장소에 관해서 실무소위원회는 상설사무국을 경상북도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사무국의 운영 비용은 경상북도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회비에 관해서는 실무소위원회는 회비제 도입에 만장일치로 동의. 현장 규정에 따라 회비의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차기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총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상기 합의 사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나) 합의 내용에 따라 연합 현장 일부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발표

**제12조**

-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 집행기관으로서 각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기구를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상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다) 동북아자치단체 연합 제5회 총회 <하얼빈 선언> 발표

상기 합의사항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상설 사무국 설치가 결정됨. 경상북도에 수락연설 요청

- 경상북도 : 의장님과 회원단체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계획 추진 예정

- 사무국 설치, 사무총장 선출, 직원 배치
- 제도적인 기반 마련 후 2005년 5월 이전에 개소
- 회원단체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 UN, EU 등의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연합의 지위 향상
- 동북아비즈니스센터 건립 구상

- 헤이룽지양성 : 하얼빈 선언을 통과시킴. 전체 회원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연합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 폐회 선언

○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정리

- ‘연합회장제정’에 관한 제안 : 이 제안의 찬반에 관해서 거수를 통해 표결을 진행 만장일치로 통과, 회장제정은 의제에서 제출한 절차에 따라 차기 사무국에서 추진하도록 결정
- ‘변경협력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제안 : 이 제안의 찬반에 관해서 거수를 통해 표결을 진행 만장일치로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신설과 하바롭스크변경주의 코디네이터 담당을 결정
- ‘연합총회 개최 시 기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제안 :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할 것. 총회 개최 의장단체는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회원간 경제무역협력 교류 강화. 행사를 폐쇄적이 아닌 개방형으로 개최하여 세계 어느 지역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 ‘연합상설사무국에 관한’ 제안
  - 상설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연합헌장 제12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연합상설사무국은 연합 집행기구이며, 각국(각 회원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상설사무국에서 파견하는 직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실무 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
  - 상설사무국을 경상북도에 설치하기로 합의. 사무국의 운영 비용은 경상북도에 부담하기로 결정

⑥ 연합헌장 수정 : 연합헌장 일부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발표

**제12조**

-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 집행기관으로서 각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기구를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하얼빈 선언문〉**

2004년 9월 7일 ~ 8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동부아자치단체연합('이하 연합이라 함') 제5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연방 등의 27개 회원 자치단체의 112명 대표가 본 총회에 참가하였다.

본 회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상호공존, 호혜평등'의 정신에 근거하여 연합과 동북아시아의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 총회에서 본 연합의 의장 및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 연방 등 각 회원 자치단체 대표가 발표하였다. 총회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내의 지역간 협력의 성공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특징을 잘 활용하고 지역내의 각 회원 자치단체간의 발전 불균형과 문화배경 차이 등의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인 지역 공동체 중의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총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 연합은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매우 중시하며 장차 분과위원회 사업의 수준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3. 총회는 일본 토야마현과 중국 흑룡강성에서 제출한 연합 회장 제정에 관한 제안과 차기 의장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차기 총회 의제를 확정지었다.
4. 총회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주가 제출한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범위는 기존 관련 분과위원회의 직능과 중복될 수 없으며 또한 동북아시아 회원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존하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와 반드시 협조하여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5. 총회는 한국 경상북도가 연합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한국 경상북도에 연합의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것과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총회의결을 거쳐 연임하는 등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6. 총회는 연합 현장 규정에 근거하여 각국(각 회원 자치단체)의 필요에 근거하여 연락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거듭 언급하였다.
7. 총회는 연합사무국의 현장수정에 관한 설명과 심의를 거쳐 현장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장의 수정안은 현행 현장에 근거하여 역대 총회의 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동북아지역과 전세계 경제발전의 협력의 새로운 추세를 인식하고 각 회원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기초 위에 작성된 연합의 강령문서이다. 현장 수정안은 상설사무국의 설치, 임기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설사무국의 성립의 연합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상설 사무국은 연합을 한층 더 성숙하고 정식적인 국제 협력조직으로서 한 발짝 더 매진한 것에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8. 동북아지역 각 회원자치단체간의 호혜평등에 근거한 경제무역협력을 한층 확대, 강화하고 동북아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는 각 회원자치단체들이 비교적 구체적인 구상과 의견을 제출하였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안건이 동북아지역의 경제무역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각 회원자치단체는 동북아지역내 각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국제 박람회와 경제무역투자 상담회를 적극 지지, 협조하기로 하였다.
9. 연합은 각 회원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의견에 근거하여 각 회원자치단체가 변경무역, 자원개발, 정보교류, 환경보호,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토록 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0. 본 총회에서 한국의 부산광역시가 차기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선언문은 연합의 발전과 협력에 관해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문서로서 2004년 9월 8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개최된 연합 제5회 총회에서 중국어, 조선(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의 5종의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각각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6) 행사성과 및 과제

### 가) 주요성과

- ‘연합회장 제정에 관한 제안 통과
- 변경협력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변경주가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기로 결정
- 연합상설사무국을 한국 경상북도에 설치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통과

- 연합 헌장 수정안을 통과

나) 과제

- 의제에서 제출한 절차에 따라 차기 사무국에서 회장제정을 추진하도록 결정

(6) 제6회 총회

(가) 개최배경 및 목적

1) 창설 10주년 맞은 NEAR의 전환점 모색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6회 총회는 창설 10주년을 맞아 NEAR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자 “동북아 지역간 공동 번영과 NEAR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나) 회의개요

1) 회의명

- 국문 - 제6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 영문 - The 6th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ssociation Conference

2) 기간 : 2006. 9. 12(화) - 9. 15(금), 3박 4일

3) 장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등

4) 주최 : 부산광역시, 동북아연합 사무국

5) 참가범위 : 5개국 24개 회원단체와 4개국 27개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총계	48 [51]	
중국	7	하남성, 산둥성, 흑룡강성, 영하회족 자치구, 호북성(옵), 섬서성(옵), 요녕성(옵)
일본	4	니가타현, 토야마현, 시마네현, 효고현
한국	10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옵)
몽골	19[22]	투브아이막, 셸렝그아이막, 울랑바토르시(옵), 도르노드아이막(옵), 수흐바타르아이막(옵), 헝타이아이막(옵), 도르노고비아이막(옵), 움노고비아이막(옵), 불강아이막(옵), 우부르항가이아이막(옵), 비양홍고르아이막(옵), 아르항가이아이막(옵), 흄스굴아이막(옵), 자브항아이막(옵), 호브드아이막(옵), 비양울지아이막(옵), 오르홍아이막(옵), 고비숨베르아이막(옵), 다르항아이막(옵) (미참가 가입 동의 3개 단체 : 둔드고비아이막, 고비알타이아이막, 옘스아이막)
러시아	8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사하공화국, 브라티아공화국, 톰스크주(옵), 프riba공화국(옵), 알타이주(옵)

6) 주 제 : “동북아 지역간 공동번영과 NEAR의 역할”

부 제 : “창설 10년을 맞이한 동북아연합 활성화”

7) 회의내용

- 연합 주요활동 경과보고 (실무위원회, 사무국, 각 분과위원회)
- 회원단체 대표 기조연설 (5개국 17개 단체)
- 총회 안건 토론 (6개 의제)

8) 회의진행 : 중, 일, 한, 몽, 러시아어 동시통역

9) 회의시간 계획표

시 간	9/12(화)	9/13(수)	9/14(목)	9/15(금)
09:00 ~ 09:20	도착	상견례(시장-단장)		출발
09:20 ~ 09:30	등록	개막식	주제발표	
09:20 ~ 09:30			가입 희망단체 소개, 가입 결의 가입인사	
09:30 ~ 09:35				
09:35 ~ 10:00				
10:00 ~ 10:20		사진촬영 및 휴식	차기총회유치 희망단체 소개	
10:20 ~ 10:30		분과위보고	차기 개최지 결정	
10:30 ~ 11:00			티타임/공동선언문 작성	
11:00 ~ 11:10			공동 선언문 발표	
11:10 ~ 11:30			폐회/외국 기자단 인터뷰	
11:30 ~ 13:00		오찬	중식/자유시간	
13:00 ~ 16:00		주제발표	시찰	
16:00 ~ 17:00		총회안건 토의		
17:00 ~ 18:00		휴식		
18:00 ~ 20:00		환영만찬	환송만찬	

(다) 회의내용 총괄

1) 개막식

- 상견례 및 소개
- 개막사(부산광역시장)
- 축사(대한민국 대통령(대독))
- 환영사(경상북도지사)

2) 연합 주요활동 경과보고

- 제5회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장)
  - NEAR 회장 제정 추진
  - 회원단체 직원 NEAR 사무국 파견
  - 중국 산둥성 제7회 총회 유치 희망 피력
  - 총회 상정 예상 의제에 대한 토의
- 연합 사무국 경과보고(사무국 사무총장)
  - NEAR에 대한 대외 홍보와 회원단체 신규가입 활동 전개
  - NEAR 공식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연합 회원 단체간 실질적 교류 협력 활성화 위해 “NEAR 실무자 워크숍” 개최, “동북아 지역협력 포럼” 개최 예정
  - 연합백서 발간 및 프로젝트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 해외 회원단체 파견직원의 현지 적응력 제고 위한 각종 지원

3)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가)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2005년 12월, 경주에서 “비즈니스 촉진회의” 개최
  - 회원단체는 흑룡강성 6대기지 건설사업, 산둥성의 중점 개발 계획, 이르쿠츠크주의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협조기로 의결.
  - 하남성 및 경상남도 주최 각종 국제무역 박람회에 적극 참여기로 의결
  - 아무르주와 흑룡강성 간 국제 경제특구 개발에 회원단체의 업체 적극 참여기로 의결
- 2005년 12월, 경주에서 “다자간 전문품목 상담회” 개최, 65개사 참여, 5백만불의 계약과 1천만불의 상담
- 2006년 5월 “경제통상 네트워크” 개통

나) 문화교류분과위원회

- 2006년 8월, 시마네현에서 “청년교류사업” 실시
- 2005년 시작한 “동북아 국제문화팔레트사업” 일환으로 영화회족자치구가무단이 시마네현 방문, 3곳에서 공연 및 교류활동

다) 환경분과위원회

- 2005년 7월 토야마현에서 제7회 환경분과위원회 개최
  - 동해연안의 기름오염 현황 평가 (러시아 연해변경주), 동북아지역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 (일본 토야마현) 등 2005년 개별프로젝트의 실시현황 보고
  - 동북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엄 (일본 토야마현) 등 2006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

- 코디네이터 단체로 토야마현 선출 (2005년 7월부터 2년간)
  - 2006년 개별 프로젝트 실시 상황, 2007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조사 중
- 라) 일반교류분과위원회
- 각 자치단체의 인재육성사업이나 홈페이지 작성상황 조사, 그 결과를 토야마현 홈페이지에 공개
  - 인재교류나 육성 부문에서 각 단체들간 연계나 공동사업 실시 등 검토예정
  - 정보교류 부문에서 각 자치단체들의 외국어 정보가 충실해지도록 노력
- 마) 방재분과위원회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방재체제 조사 보고서” 각 자치단체에 제공
  - 고베 대지진 재건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각종강의를 통해 참가자치단체에 전파
  - 방재분과위원회 개최시 효고현 재해대책센터나 재해 의료센터,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E 디펜스 등 방재거점의 시찰연수 실시
  - 정보 및 인재분야의 교류사업에서 참가형, 과제해결식 활동으로 업그레이드 예정
  - 방재대책 세계 표준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방재대책을 가시적인 형태로 향상할 방침
- 바) 변경협력분과위원회
- 2005년 6월 제1차 변경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변경협력분과위원회 규정 확정
    - 참가단체의 변경인프라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 러시아 극동지역의 국경통과 간소화 및 동북아 국가 간 무비자 관광에 대하여 논의
  - 하바롭스크주, 2007년~2008년 변경협력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의사 표명
- 4) 주제발표
- 부산광역시
    -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과다경쟁을 줄이는 등 동북아 항만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견고한 항만 물류 공조 체계 구축 제안
    - 도시간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연계시킨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동북아 자치단체간 유기적 관광 네트워크 구축 제안. 부산은 2002년 아태관광진흥기구 창설, 관광협력사업 진행 중
  - 흑룡강성
    - NEAR 발전위해 국제적인 지역협력의 성공경험을 배우고 동북아 특유의 뚜렷한 지역 특색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함.
    - 지역의 공동발전 위해 공동관심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소통과 교류 실시해야. 흑룡강성은 러시아 극동지역 5개 변경주 지도자들과 정기적인 회담 시스템 마련, 일본과는 ‘일중 동북 개발협회’ 같은 유관 단체와 긴밀한 우호 관계 수립, 북한의 함경북도 등 자치단체와 장기

적인 우호교류관계 수립함.

- 자원, 기술, 노동력, 시장 등 경제사회 분야의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 필요
- 투브아이막
  - NEAR 홈페이지 영상회의 인프라를 통해 회원단체간 협력 활동 및 정보교류 기능 확대 필요
  - NEAR 분과위 창설 찬성
- 브라티야공화국
  - 동북아연합은 회원단체를 위한 동북아의 단일경제시스템을 조성해야 함. 이를 위해
    - 자치단체간 상호존중원칙, 영토적 자주권 보호, 내부분쟁 불간섭
    - 경제통상분야의 협력, 교역활동에 방해되는 문제점 제거, 정치경제적 통합(블록화)에 적합한 규범 마련
    - 동북아국가의 경협 발전을 통해 지역의 국제정치, 군사경제적 대립관계 해소, 지역 내 안보, 국가간 신뢰강화 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 강조
- 경기도
  - 외교/안보/정치 분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영역이나 경제/사회/문화 분야는 지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여지 많음. 지역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이 지속·확대되면 공존 공영 위한 공감대와 정서 생성
  - 산업 및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신설, 그 발족회의를 경기도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 하바롭스크변경주
  - 연합창설 10년 지나고 상설사무국 개소, 연합 회원수 증가 등 연합의 위상 일정 부분 정립됨.
  - 최근 분과위원회 활동 소극적
  - 지역간 경제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연합은 동북아 국가간 경제교역 관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걸맞은 역할 모색 필요. 이를 위해
    - 이웃단체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자치단체 기업인 간 교류에 많은 관심 기울여야
    - 사무국에 특별 그룹 설치, 이 그룹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 지역 자치단체를 위해 실질적 조언을 해야 함.
    - 연합 회원단체간 친분 맺는 단계를 벗어나 동북아 지역간 협력을 통해 실제적 결과물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단계
- 강원도
  - 경제교류활성화 : 자유무역지구 등 실질적 경제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민간 교류단의 방문에 의한 경제정보의 교환, 상품교류전, 합작투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 각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각종 정보 공유필요 (인터넷 등 각종 정보통신망 활용)
  - 거점도시간 관광, 무역 운송네트워크 추진

-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감각을 지닌 인재육성
- 국가간의 환경보전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논의
- 영하회족자치구
  - 환경보호 강화, 환경분야 협력 추진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필요
- 충청북도
  - 특산품판매기획전과 지역문화·예술행사 동시개최 제안
  - 특정분야 기술연수 프로그램 개발 제안
- 아무르주
  - 연합 홈페이지에 자치단체 최신소식,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 정보 게재 제안
  - 통상, 투자, 생산, 학술 등 분야에서 박람회 개최시 연합 지역대표 참가 필요
  - 학술,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 교류확대 필요
- 충청남도
  - 지역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참여 독려
- 하남성
  - 경제, 무역, 투자, 공업 등 각종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위해 더 많은 전시회와 투자무역 행사 개최 필요
    - 그 방법으로 회원단체가 연합회의에 참석, 신청서 제출하여 연합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사의 주제 확정
    - 연합은 네트워크상의 우위를 이용, 회원단체를 위한 장 마련, 회원단체의 대규모 행사개최 정보를 게재, 타 회원단체의 참여를 유도
- 전라남도
  -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다도해 섬 테마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중
  -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 관광, 물류, 신소재, 조선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
- 셀렝그아이막
  - 심각한 사막화 현상 해결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 토종 소나무 숲 복원 대책 실시 중. 동북아 연합의 환경분과위가 690헥타르의 토지 식목을 위해 투자, 토지 일부의 명칭을 동북아 연합이라고 함. 토종 소나무에 대한 연합의 구체적 식목 투자 제안
  - 몽골 최초 자유무역지대인 ‘알당보락 아이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관심 독려
- 사할린주
  - 갈탄의 코크스, 액화 모터연료 및 기타 화학 합성 생산품 출하를 고려 중

- 수산물 인공양식, 수산물 양식장 건설 등 수산업 분야 발달. 일본, 중국 등 어업분야의 협력 시행가능
- 관광사업발전 위해 유즈노-사할린시에서 도로가 직접 연결된 산악스키장 건설 프로젝트 진행
- 독특한 동, 식물자원 보유한 꾸릴열도에 레저시설 건설 프로젝트
- 경상북도
  - 사무국의 자료수집 / 분석 능력,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 집행 능력, 대외 협력 / 홍보 능력 강화를 통한 연합 발전의 튼튼한 토대 구축 필요
  - 회원 자치단체의 주요 행사와 협력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연합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총회의결을 거쳐 반드시 실천
  -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연합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효고현
  - 분과위원회 활동성고가 연합의 전 회원단체,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연합의 성과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국내외로 전파
  - 방재분과위 활동을 참가형 · 과제해결식 분과위로 업그레이드 예정
    - 방재교재 공동개발 및 방재용어나 표시사인 등의 통일화 등을 포함한 광역 방재협력 시스템 구축 · 보급 · 실천.
    - 방재대책의 세계표준화 추진 활동 전개
    - “동북아 방재심포지움(가칭)” 개최 검토 중
- 5) 총회안건토의
  - 연합회장 제정 추진경과보고, 회장 제정안 상정 (사무국)
  - 연합 ‘자문위원회’ 신설 및 운영 의결 제안 (강원도)
    - 구성목적
      - 연합에서 활동한 역량있는 인사들과 동북아시아 저명인사로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
      - 연합의 대외 홍보 활동과 연합 발전에 대한 국제적 자문 역할 담당
    - 구성
      - 소속 : 총회의 직속기관
      - 구성 : 각 국별 2~3인, 전체 15~20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자격 : 역대 NEAR 의장 또는 국제 전문가로서 연합 회원단체에 국적을 둔 저명인사
      - 연 1 회 정기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 개최
  -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신설, 코디네이터 담당 제안 (경기도)
  - 연합 신규회원 가입 승인안 상정 (사무국)

- 중국(2) : 호북성, 호남성
- 한국(1) : 대구광역시
- 몽골(20) : 울랑바타르시, 아르항가이아이막, 바양울지아이막, 바양홍고르아이막, 불강아이막, 고비알타이아이막, 고비숨베르아이막, 다르항아이막, 도르노드아이막, 도르노고비아이막, 둔드고비아이막, 자브항아이막, 오르홍아이막, 우부르항가이아이막, 음노고비아이막, 수흐바타르아이막, 읍스아이막, 호브드아이막, 홉스굴아이막, 헝타이아이막
- 러시아(4)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톰스크주, 프riba공화국, 알타이변경주

○ 2008년 NEAR 제7회 총회 유치 공식 신청 (산동성)

### 6) 공동선언문 채택 · 발표

#### 〈부산선언문〉

－ 제6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

2006년 9월 13일과 9월 14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6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몽골, 러시아연방 등의 5개국 51개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공존공영”을 궁극적인 목표로 1996년 출범한 이래, 경제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이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평화와 번영의 지구촌 시대와 동북아시아시대” 개막에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부산총회에서 “동북아지역간 공동번영과 NEAR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합의 위상 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논의를 펼쳤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도출하여 함께 실천해나가기로 하였다.

1. 연합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립하며, 회원단체간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하여 교류 ·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다.
2. 연합은 회원단체들의 국제행사 유치 노력을 상호지원하며 다른 회원단체의 주요 행사와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3. 연합은 황사의 발생과 피해 저감 등 동북아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 시책의 공동 추진 및 협력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4. 연합은 차기 총회 때부터 총회를 종합적인 국제교류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의장단체에 권고한다.

이상 우리들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는 주역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06년 9월 14일

제6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총회 참가단체 대표

〈합의문〉

- 제6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

2006년 9월 13일과 9월 14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연방 등 5개국 24개 회원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6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본 총회에서는 동북아 공동 번영과 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상정된 제안들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총회는 『회장제정위원회』의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회장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회장(안)을 러시아 사할린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한다.
2. 총회는 NEAR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건에 대하여 차기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7회 총회에서 의결한다.
3. 총회는 대한민국 경기도가 제안한 『과학기술 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승인하고 코디네이터 단체는 경기도가 맡는다.
4. 총회는 『변경협력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를 러시아 연방아무르주로 변경한다.
5.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연방에 소속된 27개 자치단체의 신규가입을 의결한다.
6. 총회는 2008년에 열리는 제7회 총회를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에서 개최한다.

이상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 단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006년 9월 14일

제6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총회 참가단체 대표

(라) 행사성과 및 과제

1) 주요성과

가) 동북아연합 발전 기반 마련

- 한국 대구광역시 등 4개국 27개 자치단체가 신규 가입함으로써 회원 단체수가 68개로 확대됨. 자치단체 규모 면에서 아시아 전체 가장 큰 규모 국제회의로 발전
- 과학기술분과위 신설과 NEAR 자문위 신설논의 등 연합이 가일층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나) 동북아 환경문제 적극대처 및 자연친화적 시책 공동추진하고 협력 방안 마련하기로 합의
- 다) 부산시와 참가단체간 교류기회 마련
  - 부산총회 참가한 5개국 48개 단체가 상호간에 교류·확대 추진

(7) 제7회 총회

(가) 개최배경 및 목적

연합 창설이후 12년 동안 경제, 환경, 문화,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둠.

제7회 총회는 “혁신적인 협력으로 함께 번영을”이라는 주제로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

(나) 회의개요

- 1) 기 간 : 2008년 9월 1일~4일
- 2) 장 소 : 중국 산둥성 지난시
- 3) 주 최 :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
- 4) 참가범위 : 5개국 47개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9	헤이룽지양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닝시야후에이쭈 자치구, 산둥성, 랴오닝성, 산시성(山西省), 산시성(陝西省)
일본	6	토야마현, 효고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군마현, 와카야마현
한국	13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몽골	13	움노고비아йма, 다르항오올아йма, 고비숨베리아йма, 오르홍아йма, 우브르항가이아йма, 울랑바타르시, 바얀홍고르아йма, 불강아йма, 아르항가이아йма, 흠스굴아йма, 도르노드아йма, 옹스아йма, 호브드아йма
러시아	6	브라티야공화국, 사하공화국(야쿠치아), 알타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이르쿠츠크주, 마가단주

- 5) 주제 : “혁신적인 협력으로 함께 번영을”

6) 회의 일정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9월 1일 (월)	09:00 ~ 17:00	등록(장소 : 산동호텔 1층 로비 등록 데스크)
	17:30~18:00	산동성 성장 중국대표단 단장(부단체장 이상) 접견 (장소 : 산동호텔 센터 회견실)
	18:30~18:55	지앙 이강 당서기, 지앙 따밍 성장 공동으로 일, 한, 몽, 러 4개국 대표단 단장 (부단체장 이상)과 연합사무국 이해두 사무총장 접견 (장소 : 산동호텔 루닝청)
	19:00~20:30	산동성 환영만찬 (장소 : 산동호텔 대연회장)
	저녁시간	지난시 산동호텔에서 1박
9월 2일 (화)	07:30 ~ 08:30	조찬 (장소 : 산동호텔 다기능실)
	08:50 ~ 09:00	각 대표단 단장 회의장 전면 현수막 앞에서 단체사진 (장소 : 산동호텔 대연회장)
	09:00 ~ 09:05	차이리민 부성장 국가별로 대표단 소개
	09:05 ~ 09:15	지앙 따밍 성장 기조연설
	09:15 ~ 09:20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천 하오쑤회장 축사
	09:20 ~ 09:30	총회 1 : 실무위원회 업무보고 (중국 산동성)
	09:30 ~ 09:40	총회 2 : 연합사무국업무보고 (연합사무국 사무총장) 총회 3 :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09:40 ~ 10:20	① 경제통상분과 위원회(대한민국 경상북도) ② 문화교류분과위원회(일본 시마네현) ③ 환경분과위원회(일본 토야마현) ④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일본 토야마현) ⑤ 방재분과위원회(일본 효고현) ⑥ 변경협력분과위원회(러시아 아무르주) ⑦ 과학·기술분과위원회(대한민국 경기도)
	10:20 ~ 10:30	티 타임(각 대표단 단장 "동북아의 아름다운 정원" 보드판에 서명)
	10:30 ~ 12:00	총회 4 : 회원단체 자유발언 및 토론 ① 허난성 부성장 ② 효고현 부지사 ③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④ 우부르항가이 아이막 지사 ⑤ 알타이변경주 부지사 ⑥후베이성 부성장 ⑦전라남도 행정부지사 ⑧ 옴스아이막 ⑨ 후난성 부성장 ⑩ 도르노드아이막 부지사 ⑪ 헤이룽지양성 정협 부주석 ⑫ 닝시야후에이주 자치구 주석보
	12:00 ~ 14:10	오찬 및 휴식(장소 : 산동호텔 다기능실)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14:00 ~ 16:10	총회 5 : 의제 발표, 토론, 표결 (1) 2010년 총회유치 신청(대한민국 경기도) 경기도 유치성공 인사 (2) 사무국 유치 신청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상북도 유치성공 인사 (3) 해양·어업분과위원회신설 및 코디네이터 담당 신청(중국 산둥성) (4) 관광분과위원회신설 및 코디네이터담당 신청 (중국 허난성) (5) 연합회비제 도입제안(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경주) (6) 신규회원단체 가입 신청 (연합사무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마가단주, 인천광역시 가입인사	
	16:00 ~ 16:50	티 타임 (총회 선언문 초안 작성 및 번역)	
	16:50 ~ 17:20	총회 6 : 총회 선언문 내용 토론 및 심의	
	17:20 ~ 17:30	총회 7 : 총회 선언문에 전원 동의, 폐회	
	18:00 ~ 19:15	만찬 (산둥성 지도자들이 국가별로 대표단 단 장 초청) (1) 지양 따밍 성장 한국대표단 단장 초청 만찬 (장소 : 산둥호텔 제1연회실) (2) 리우 웨이 부당서기, 천 하우쑤 회장 초청 만찬 (장소 : 산둥호텔 센터연회실) (3) 왕 련위엔 부성장 중국대표단 단장 초청 만찬 (장소 : 산둥호텔 제5연회실) (4) 왕 진민 부성장 러시아 대표단 단장 초청 만찬 (장소 : 산둥호텔 제3연회실) (5) 차이 리민 부성장 일본 대표단 단장 초청 만찬 (장소 : 산둥호텔 제2연회실) (6) 지아 완쯔 부성장 몽골 대표단 단장 초청 만찬 (장소 : 산둥호텔 제노실)	
	19:30 ~ 19:50	예술공연 관람 출발	
	20:00 ~ 21:30	예술공연 관람 (장소 : 진주천 인민회당)	
	저녁시간	지난시 산둥호텔에서 1박	
	9월 3일 (수)	07:00~07:50	조찬 (장소 : 산둥호텔 다기능실)
		08:20	친환경박람회장으로 출발 (장소 : 지난 국제 컨벤션센터)
09:00		제3차 친환경산업 국제박람회 및 동북아 지역 환경보호산업 상담회 개막식 참석 및 참관	
10:30		시찰 (타이산, 취후우 2개 코스 중 택일)	
10:30 ~ 12:00		타이산 코스 타이산으로 출발	
12:00 ~ 13:00		타이산시에서 점심식사	
13:00 ~ 16:00		타이산 등반	
16:00 ~ 17:30		지난시 도착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10:30-13:00	취후우 코스 취후우로 출발
	13:00-14:00	취후우시에서 점심식사
	14:00-15:30	콩미아오(孔廟), 콩후우(孔府) 시찰
	15:30-17:30	지난시 도착
	19:00	지난시 인민정부 주최 환송만찬 (장소 : 소피 텔 호텔)
	저녁시간	지난시 산통호텔에서 1박
9월 4일 (목)		대표단 귀국

**(다) 회의내용 총괄**

1) 개회선언 (산통성 차이 리민 부성장)

- 동북자치단체연합 회원 단체와 연합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지아래 동북아 연합 제7차 총회가 개막됨. 회의에 진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 회의참석 대표 소개

2) 기조연설 (산통성 지양 따밍 성장)

○ 제안사항

1. 협력의 내용을 혁신

- 해양어업, 관광, 농업, 에너지 절약, 광산자원, 물류, 스포츠, 의료, 청소년, 여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더욱 더 폭 넓고 고차원적인 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

2. 협력의 형식을 혁신

- 연합의 각종 행사 개최 시 더 참신하고 지방수요에 잘 부합하는 형식 도입

3. 분과위원회 운영 방식 혁신

- 분과위원회 신설, 폐지, 코디네이터 임기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연구

3) 축사 (중국 인민대외 우호협력회 천 하오수 회장)

- 21세기, 동북아 협력의 의미는 더 커졌으며, 세계적인 국제 협력에도 긍정적인 역할 발휘 중.
- 향후 동북아 각국이 단결하여 세계발전을 추진할 것을 믿음.
- 동북아의 협력은 전세계에 막대한 이익과 밝은 전망 가져올 것.

4) 연합주요활동 경과보고

가) 실무위원회 경과보고 (산통성 외사판공실 쟡 웨이링 주임)

○ 2007년 제6회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5개국 31개 자치단체 81명 참가
- 동북아자치단체 국제협력대화회 개최
  - 산통성 총회의 기본 방안 발표
  - 해양어업분과위원회와 관광분과위원회 신설 제안

- 연합 회비제 도입 제안
- 한국 경기도의 2010년 총회 유치 신청
- 연합의 다음 회기 사무국 장소에 관한 의제 토론
- 일반교류위원회와 문화교류분과위원회를 교육문화교류분과 위원회로 합병
- 분과위원회 관련규정 개정

나) 사무국 경과보고(사무국 이해두 사무총장)

- 설립 당시 4개국 29개 단체에서 현재 6개국 65개 단체로 회원확대
- NEAR 홈페이지 구축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 NEAR 뉴스레터를 5개 국어로 발간, 회원단체 및 비회원단체에 배포
- 2006년부터 NEAR 실무자 워크숍 매년 실시
- 회원단체 공무원 파견근무 실시(국가별 1명)
- 연합백서 발간 및 종합적인 발전 프로젝트 수립 계획
- 연합회장 제정(제6회 부산총회 의결)
- 년부터 NEAR 국제경제포럼 개최
- 분과위원회 활동 활성화 방안 제안
- 2005년부터 국제연수실 운영
- 연합의 항구적인 발전과 상설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북아센터 건립 구상 등

다) 각 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대한민국 경상북도)
  - 2007년 동북아 국제경제포럼 및 다자간 무역 상담회 보고
    - “동북아 지방 정부간 경제협력 증진” 이란 주제로 세계적 석학과 경제관련 전문가 10명 발표
    - 동북아 지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공감하고 발전적인 방향 모색
  - 2009년 9월에 개최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 및 다자간 무역 상담회 참여요청 등
-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시마네현)
  - 청년 교류 사업 개최 결과 보고
    - 참가단체 (3개국 6개 단체)
    - 스포츠 교류, 전통(和)과자 만들기 등 문화체험 등
  - “동북아지역 국제문화 팔레트 사업” 개최 결과 보고
    - 러시아 소녀 민요 코러스 그룹 등 초청 공연
    - 올해 11월 낭시아후에이주 자치구 가무단 초청 계획
  -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문화교류와 일반교류분과위원회 통합) 코디 네이터로 계속 활동
-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 제8회 환경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각 자치단체의 환경현황과 과제에 관한 보고
    - 2007년 개별 프로젝트 실시상황 보고
    - 2008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
  - 토야마현이 코디네이터 단체로 선출
  -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 2007년 사업실적 및 2008년 계획 보고
      - 국제교류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출신국가의 생활, 문화, 습관 등 강의
      - 제1회 세계 어린이 무대 예술제 개최
    -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단체로 11년간 활동했으며 통합된 교육·문화분과위원회에서도 부코디네이터로 지속적으로 참가 계획
  -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
    - 2008년 제6차 방재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참가단체 (17개 단체 33명)
    - 각 자치단체의 사례발표
      - 효고환경체험관 및 효곳코 그린가든 추진사업
      - 하바롭스크변경주의 환경 모니터링 개선방법
      - 중국의 지진 피해 집계 시스템 (중국 후베이성)
      - 119 시민수상구조대 활동 및 운영방침 (한국 경기도)
    - 2009년 3월 개최되는 제7회 방재분과위원회에 많은 회원단체 참가 요청
  - 변경협력분과위원회 (러시아 아무르주 : 사무국 대독)
    -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중국 회원단체와 협력관계 소개
  - 과학기술분과위원회 (대한민국 경기도)
    - 2007년 제1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참가단체의 과학기술 개발현황 및 국제교류 협력방안 발표
    - 합의문 채택
      - 상호간 우수한 과학기술지원 및 육성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협력
      - 분과위 매 2년 마다 개최 및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 노력 등
    - 2009년 제2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와 제7차 실무위원회 회의 공동 개최 예정
- 5) 수석대표 연설 및 제안
- [허난성 부성장]
- 허난성은 농업대성에서 공업대성, 경제대성, 문화대성으로 변화 중

- 허난성은 5000년 중국역사에서 300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문화와 관광자원이 풍부
- 관광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를 맡게 되면 회원단체의 관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을 제공하여 상호이익을 실현할 것임.

[일본 효고현 부지사]

- 2009년 제7회 방재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소개
  - 중국 쓰촨우안성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내륙성 대지진 경험 발표
  - 민·관 공조를 통한 구조활동의 중요성 고찰
  - 다양한 체험형 학습 및 훈련실시 등
- 2009년도 방재분과위에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 2008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는 제10차 람사르 총회에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요청
- 제안사항
- 각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를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담당
  - 현재는 분과위원회에는 희망하는 단체만 가입하는데 많은 회원단체가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
  - 환경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신청
  - 지방자치단체 행정우수시책 세미나 매년 개최

[몽골 우브르항가이아이막 지사]

- 관광 종합계획 및 회원단체의 방문 요청
- 제안 사항
  - 회원단체는 희망협력 분야를 사무국에 알리고 각 회원단체들의 희망협력 분야를 관리, 조정

[러시아 알타이변경주 부지사]

- 경제발전이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연합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

[후베이성 부성장]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중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하여 체제혁신 및 대내외 개방 확대 회원단체의 후베이성 방문 요청
- 제안사항

- 국가별로 6개 분회 또는 연락기구 설립
- 교류범위 확대
- 대규모, 다자간 교류·협력 상담회 개최
- 간행물, 네트워크 등 정보교류 강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농업분야 교류협력 사업으로 연합 차원의 공동 연구 수행 및 농업분과위원회 신설 제안

[몽골 오피스아이막 지사]

- 제안사항
  - 연합이 회원단체간 우호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회원단체간 협력 강화

[후난성 부성장]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국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종합 개혁 실험지역으로 지정 회원단체의 지지와 도움 요청
- 제안사항
  - 동북아의 각 자치단체가 후난성의 양형사회 건설에 관심을 갖고 건설에 필요한 유익한 경험 공유 희망
  - 과학, 문화, 교육 분야 협력 강화
  - 인재교류 강화

[몽골 도르노드아이막 부성장]

- 몽골, 러시아, 중국 상품 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제안사항
  - 회원단체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활성화
  - 타 국제기구의 장점 파악 및 도입
  - 실무위원회 회의시 국제교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성공사례 발표

[헤이룽지양성 정협 부주석]

- 동북아연합이라는 무대를 활용하여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짐
- 빙설관광, 생태관광 및 변경여행은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 회원단체의 적극 참여 요청
- 석탄, 석유, 농업자원 풍부 회원단체의 적극 참여 및 교류·협력 요청

[닝시야후에이쭈 자치구 주석보]

- 2002년부터 청년교류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요청
- 닝시야후에이쭈 자치구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회원단체 참가 요청

## 6) 총회안건 제안 및 토론

### 가) 2010년 NEAR 제8회 총회 유치신청 (경기도 부지사)

#### ○ 2010년 NEAR 제8회 총회 유치 신청

- 1996년부터 창립멤버로 적극 활동
- 2007년 7월 제1회 NEAR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성공적 개최하여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보여줌.
-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 토론 및 표결

-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단체가 없어서 거수를 통해 경기도의 2010년 총회 유치 신청이 통과됨.

#### ○ 감사인사 (경기도 부지사)

- 2010년 총회 유치를 지지해 주신 회원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2009년 하반기에 실무위원회와 제2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공동개최 할 계획이니 회원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 나) NEAR 사무국 연임 제안 (경상북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 ○ NEAR 사무국 연임 제안

- 2004년 제5회 총회에서 사무국을 경상북도에 두기로 결정, 2005년 5월 경상북도 포항에 설치하고 공식업무 개시
- 안정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사무국에서 벌이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 연합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사무국 연임 제안

#### ○ 토론 및 표결

-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단체가 없어서 거수를 통해 경상북도가 다음 회기 연합사무국을 유치 하도록 결정됨.

#### ○ 감사인사 (경상북도 지사)

- 지지해 주신 회원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사항

## 7) 상설사무국의 제도화

- 연합의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사무국을 제도화 하여 회원자치단체의 한곳에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가)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신설 및 코디네이터 담당 신청 (산동성 해양·어업 부청장)

- 동북아지역에서 해양·어업 발전의 중요성 소개
- 기본 구상
  -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여 학술교류 실시

- 해양개발과 보호를 주제로 해양·어업 관리 세미나 개최
  - 기업간 무역 상담회를 개최하여 무역 왕래와 협력 촉진
  - 토론 및 표결
    -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단체가 없어서 거수를 통해, 해양어업 분과위 신설 및 산동성의 코디네이터 담당 신청이 통과됨.
  - 나) 관광분과위원회 신설 및 코디네이터 담당 신청 (허난성 여유국 국장)
    - 회원단체들에게 관광전시 및 홍보행사 개최, 관광협력 포럼 개최와 같은 실질적인 협력의 장 제공
    - 회원단체의 관광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조율
    - 토론 및 표결
      -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단체가 없어서 거수를 통해, 관광분과위 신설 및 허난성의 코디네이터 담당 신청이 통과됨.
  - 다) 연합 회비제 도입 제안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대외관계담당 주지사 고문)
    - 연합의 행사 주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회원자치단체의 책임감 있는 연합 활동을 위해 제안
    - 기본 구상
      - 회비산정 : 정확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회비 산정방법, 회비 규모, 회비 사용처, 잔여회비 관리방법 등을 제시
      - 이번 총회에서 회비제에 대한 표결을 하기를 희망
      - 회비제 도입 결정시 연합현장 수정 필요. 회원단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비계산방법과 사용처 논의
    - 토론 및 표결
- [효고현 부지사]
- 회비제 도입은 연합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도깊은 토론을 전개하여 충분히 연구·검토를 한 기초 위에 전체회원의 이해와 참여를 얻어내야 한다.
  - 회비가 사용되는 행사의 예산규모의 합리성, 행사내용, 도입시기,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
  - 회비제 도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의 논점들을 토론하고 회비제 도입여부를 포함한 각종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 [시마네현 부지사]
- 회비제 도입여부를 토론하기 전에 회비제 도입의 필요여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함.
  - 연합사무국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회비징수액 및 관련사항을 토론해야

하고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 총회에서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회비제 도입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토야마현 지사정책실 이사]

- 우선 회비제 도입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회비제 비용 분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 회비제 도입과 관련된 전문위원회에서 용도와 금액, 분담문제 등 관련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

[사회재(산동성 부성장)]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추세로 볼 때 회비제 도입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님.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해 회원단체가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연합사무국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비제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 차기 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을 제안
- 이 제안이 통과됨.

라) 연합신규회원 가입 신청 (연합 사무국 기획총무과장)

- 한국(4)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러시아(1) : 마가단주
- 토론 및 표결
  -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단체가 없어서 거수를 통해 신규회원 가입 신청이 통과됨.
- 감사인사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 회원가입을 지지해 주신 회원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NEAR 회원단체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동북아시아 발전에 기여
- 감사인사 (대전광역시 정부부시장)
  - 회원가입을 지지해 주신 회원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2009 국제우주대회(IAC)” 와 “2010년 세계 과학단지연합 총회” 에 회원단체의 관심과 참여 요청
- 감사인사 (울산광역시 국제협력과장)
  - 회원가입을 지지해 주신 회원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NEAR 회원단체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동북아시아 발전에 기여
- 감사인사 (마가단주 외교고문)
  - 회원가입을 지지해 주신 회원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광산자원이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마가단주는 투자자들에게 편리를 제공
  - 적극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여 연합의 회원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임.

○ 감사인사 (인천광역시 시장)

- 회원가입을 지지해 주신 회원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2009년 인천 세계도시 축전” 회원자친단체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요청

(다) 제안사항에 대한 종합정리

- 1) 2010년 제8회 총회를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개최 결정
- 2) 향후 4년 2012년 9월까지 연합사무국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두기로 결정
- 3) 해양·어업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승인하고 코디네이터 단체는 산동성에서 담당하기로 결정
- 4) 관광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승인하고 코디네이터 단체는 허난성이 담당하기로 결정
- 5) 연합회비제는 연합사무국에 위탁하고 각국 회원자치단체로부터 국가별로 1인의 대표를 추천 받아 “회비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다음, 차기 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을 거친 후 총회에서 결정
- 6)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러시아연방의 마가단주 등 5개의 자치단체 신규가입을 의결함.

합의문(발표문)

〈 산 통 선 언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7회 총회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 제7회 총회에 참가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몽골국, 러시아연방 등의 5개국 40개 회원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응전하고, 지역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창설한 이래 경제, 환경, 문화,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산동성 총회에서 “혁신적인 협력으로 함께 번영을”이란 주제로 회원 단체간의 신뢰, 호혜, 상생의 “하나되는 동북아 건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펼쳤으며, 연합내부 회원간 실무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의 흡인력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한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건설하는데 연합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연합은 회원단체들간의 상호 지원과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신뢰, 호혜, 상생의 가

치를 공유하는 조화로운 동북아를 건설한다.

2. 연합은 인적, 물적, 정보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동북아시아의 공동발전에 노력한다.
3. 연합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비회원단체의 참여를 환영하는 열린 동북아 건설에 노력한다.
4. 연합은 황사의 발생과 피해 저감, 지구온난화 대책 등 지구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시책을 실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에 함께 노력한다.
5. 본 총회에서는 동북아 공동번영과 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상정된 의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총회는 2010년에 열리는 제8회 총회를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개최한다.
- 총회는 2012년 9월까지 다음 회기 연합사무국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둔다.
- 총회는 중화 인민공화국 산둥성이 제안한 『해양·어업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승인하고 코디네이터 단체는 산둥성이 맡는다.
-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하남성이 제안한 「관광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승인하고 코디네이터 단체는 하남성이 맡는다.
- 연합회비제는 연합사무국에 위탁한다. 연합사무국은 각국 회원자치단체로부터 국가별로 1인의 대표를 추천받아 '회비제도입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한 다음, 차기 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토론한다.
- 총회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러시아연방 마가단주 등 5개의 자치단체 신규가입을 의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이상의 선언 및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9월 2일

**(라) 행사성과 및 과제**

1) 주요성과

- 차기 의장단체(경기도) 선출
- 다음 회기 사무국 유치단체(경상북도) 결정
-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신설과 코디네이터(산둥성) 결정
- 관광분과위원회 신설과 코디네이터(허난성) 결정

- 회비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연합사무국에 위탁)
- 5개의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하여 회원이 6개국 69개 단체로 확대

2) 과 제

- 총회의 위탁을 받아 연합사무국에서 각국 회원자치단체로부터 국가별로 1인의 대표를 추천 받아 ‘회비제도입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다음, 차기 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토론하기로 결정

(마) 부대행사

- 제3차 친환경산업 국제 박람회 및 동북아환경보호산업 상담회

## 제2절 실무위원회

### 1. 실무위원회 개요

가. 구 성

- 실무위원회는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회장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담임
-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결과는 총회에 보고
- 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

나. 기 능

헌장 제 11조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 6개 항목을 규정

-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검토
- 회원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역대 실무위원회 결과

가. 제1회 실무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가) 개최배경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회의는 연합헌장에 따라 연합 사무국 주최로 매년 1회

- 이상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회의로서
- 회원자치단체간의 실천적 협력방안을 모색
  - '97년 회의에서는 '96년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7대공동과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경제통상, 환경분야 등 분야별 토론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공동프로젝트를 모색

〈실무위원회의 기능〉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2. 회원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기능을 수행
  -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장 제3장제2절

○ 목 적

- 연례회의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연합의 공동발전 방안 도출
- 경제통상분야의 협력증진 모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회의개요

- 1) 기 간 : 1997. 8.27~ 8.30 (본회의: 8.28)
- 2) 장 소 : 경주 현대호텔(다이아몬드홀)
- 3) 주 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 4) 주 관 : 대한민국 경상북도
- 5) 참 가 : 4개국 26개 자치단체 75명

국 가	수	자 치 단 체 명
계	26	4개국 26개 자치단체
중국	3	흑룡강성, 하남성, 산둥성
일본	9	아오모리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가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러시아	6	하바롭스크변경주, 브라티야공화국, 사하공화국, 아무르주, 캄차카주, 사할린주
한국	8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6) 초 청 :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경제협의회
- 7) 주 제 : 동북아공동체를 위한 연합의 실천사업 모색

8) 회의시간 계획표

시 간	8/27(수)	8/28(목)	8/29(금)	8/30(토)
09:00	입국/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li> <li>• 연합의장 환영사</li> <li>• 도의회의장 축사</li> <li>• 사무국 활동보고</li> </ul>	관광/출국	(출국)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총장 인사</li> <li>• 제안의제 발표(일, 한)</li> </ul>		
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찬</li> </ul>		
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의제 발표(중, 러)</li> </ul>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의 I (문화예술분야)</li> <li>• 토의 II (경제통상분야)</li> <li>• 토의 III (환경분야)</li> <li>• 토의 IV (교류일반분야)</li> <li>▶ 차기총회계획보고(토야마현)</li> </ul>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결과 정리 및 발표</li> </ul>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셉션</li> </ul>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의장 주체</li> </ul>		

(다) 회의내용 총괄

- 개회선언 (사회자)
- 환영사 (경상북도지사)
  - 참석한 회원자치단체 대표단 및 내빈환영
  - 연합출범후 최초의 실무위원회의의 의의 강조
  - 발전방안 모색 및 공동과제 실천으로 연합이 내실있는 국제기구로 발돋움하기를 기대
- 축사 (경상북도 의회의장)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97실무위원회 개최 축하
  - 연합차원의 공동실천사업 모색을 기대
  - 21세기 동북아시아대를 주도해 나가도록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 사무국 활동보고 (경상북도국제협력실장)
  - '96년 경주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을 결성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사무총장 임명 및 사무국운영

- '96 동북아시아자치단체회의 종합결과보고서 발간 배포
- 분기별 “동북아연합 뉴스”지 발간
- 교류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동북아센터” 설립 추진
- 문화예술분야의 시범사업인 민속예술합동 공연행사 개최
- “북태평양환경서미트회의” 및 “동북아교류의 배” 후원
- 사무총장인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연합현장에 따른 의장자치단체로서 지난해 10월 이후 사무국을 운영해 오면서 회원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 교류확대, 실무위원회 개최 등 연합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
  - 이번 회의를 통해 동북아 공동체의 영속적 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이 모색되기를 희망함.
- 코디네이터 인사 (코디네이터)
  - 연합발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실무회의인 만큼 소중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
  - 회의 진행 및 발표요령 설명
- 일본측 대표 의제발표
  - [토아마현 기획부장]
    - 환경협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해양환경 보전대책
  - [교토부 기획환경부 차장]
    - 아카데미 포럼의 교류활동
    - 지구환경 문제
  - [효고현 국제국장]
    - 방재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재교류
    - 水환경보전에 대해
  - [돗토리현 총무부 차장]
    - 싱크탱크의 네트워크 강화
    - 참가 각 자치단체의 개요 정리가 필요
    - “산음·꿈의 박람회”에 대한 협조 기대
  - [시마네현 총무부장]
    - 동북아시아지역 연구센터의 설립
    - 동북아시아지역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환경네트워크 사업
    - “동북아시아지역 교류의 배” 사업 협조에 감사
- 한국측 대표 의제발표

[강원도 통상협력과장]

- 자치단체간 통상촉진단 파견협조 시스템 구축
- 공동전시 판매회 개최

[충청북도 국제협력담당관]

-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질의 유지·관리를 위한 “생명의 숲” 조성
- 산간계곡수 보호관리

[충청남도 보건환경국장]

- 환경테마설정
- 자치단체간 그룹연구 및 연구결과의 공유화

[전라남도 경제통상국장]

- 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교류와 협력 방안 기대

[경상북도 국제협력실장]

-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한 협조기대
- 동북아비즈니스 촉진회의 공동개최
- 대기오염 문제에 공동대응
- 청소년 탁구대회 공동개최

[경상남도 국제협력과장]

- 경남국제기계박람회 개최 협조
- 지역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통상협력과장]

- “관광에이전트 교류사업” 공동추진

○ 중국측 대표 의제발표

[하남성 외사판공실 부처장]

- 경제건설 및 회원자치단체간의 경제교류협력 기대

[산둥성 외사판공실 처장]

- 자치단체간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증진
- 청도 경제무역상담회 개최
- 공자·맹자사상 공동연구 추진

[흑룡강성 외사판공실 부처장]

- 흑룡강성의 투자환경 소개
- 회원자치단체의 투자협력을 기대

○ 러시아측 대표 의제발표

[사할린주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사할린주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투자제안
- 한국, 중국 도시들간 자매결연체결 기대
-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간 국가간 협력 강화

[캄차카주 대외경제협력관광국장]

- 캄차카 관광개발
- 자연재해 안전대책
- 캄차카주 투자프로젝트 참여, 초대

[아무르주 부지사]

- 아무르주 공가공사업 및 에너지분야 투자제안

[사하공화국 대통령 행정실 수석부실장]

- 사하공화국 투자환경 소개
- 지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브라티야 공화국경제부 제1차관]

- 브라티야공화국의 자원 및 투자환경 소개
- 다양한 투자프로젝트 소개 및 협력방안 제안

[하바롭스크변경주 의전국장]

- 연합회비에 관한 현장규정 마련 및 연합사무국 장소 고정화의 필요성
- 환경분야에 있어서 회원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 북한의 연합 가입을 추진

[극동자바이칼 경제협의회 사무총장]

- 연합의 운영방향에 대해
  - 회비, 사무국고정 문제 등에 대한 검토 제의
  - 7대공동과제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연구단 창설
  - 경제인·학자협의회 구성 및 비즈니스포럼 개최 제의
  - 정보교류 체계화 및 동북아연합 TV프로 방영

○ 제안사항 종합정리 (코디네이터)

- 각 자치단체 대표들이 제안한 의제를 요약하면
  - 일본측에서는 환경분야와 교류문제를
  - 중국과 러시아측에서는 경제협력관계를
  - 한국측에서는 환경, 경제, 일반교류에 대해 제안

○ 제안사항에 대한 토론

[토야마현 기획부장]

- 각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이벤트 행사와 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를 구분하여 토의할 것을 제의

[시마네현 총무부장]

- 극동아시아지역센터 설립에 대한 회원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경상북도 국제협력실장]

- 문화예술분야의 이벤트행사에 대해
  - 개별적인 행사는 사무국에서 적극 홍보하고 회원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
  - 공동사업은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홍보하고 많은 참여를 유도

[후쿠이현 현민생활부 차장]

- 비즈니스축진회의 및 관광에이전트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회원자치단체의 동의를 유도
- 투자촉진을 위한 정보수집 및 현지조사가 필요
- 정리된 정보는 각 회원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정보의 공유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국제협력과장]

- 후쿠이현의 제안에 동의, 단 방법론에 있어 분야별로 실무대표들이 발표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회원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회원자치단체의 의견 개진 후
- 공동과제를 선정

[토야마현 기획부장]

- 경상남도 제안에 찬성하며 '98총회에 앞서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
- 워킹그룹에서 도출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사무국이 총회에 보고

[전라남도 경제통상 국장]

- 제안된 사업을 개별적 사업과 연합 공동사업으로 구분하여
- 사무국에서 종합정리후 각 단체에 배부

[사하공화국]

- 사무국 고정에 관한 협의와 재정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

[캄차카주 대외경제 협력국장]

- 연합사무국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배포제의

[사할린주 대통령 행정실 수석 부실장]

-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 등 회원간 정보체계 수립의 필요성

[산동성 외사판공실 처장]

- 토의 자료의 사전 배부의 필요성 제기
-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

[연합사무총장]

- 각국 대표자치단체 선정, 워킹그룹 구성에 동의
- 결과보고서를 '98년 총회에 보고

[토야마현 기획부장]

- 토야마현에서 워킹그룹을 개최할 것을 제의

[연합사무총장]

- 워킹그룹은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의 책임하에 경북에서 개최하고, 내년 총회를 준비하는 토야마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효고현 국제국장]

- 연합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의
- 워킹그룹은 사무국인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러시아 각 대표단]

- 러시아측 대표로 극동 자바이칼경제협의회가 선정되도록 제의

[토야마현 기획부장]

- 극동 자바이칼경제협의회와 실무자회의 참가자격에 의문을 제기

[연합사무총장]

- 연합이 발족되기까지 극동 자바이칼협회의의 역할을 설명
- 사무국으로서는 러시아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극동 자바이칼경제협의회 대표성 인정

[경상북도 국제협력실장]

- 이번 회의에 제안된 모든 안건을 워킹그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 (사무국 고정 및 연합회비 등)
- 워킹그룹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자치단체와 국별로 하나의 자치단체로 구성할 것을 제의

[흑룡강성외사판공실 부처장]

- 워킹그룹 구성보다는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각 회원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할 것을 제의

[경상북도 국제협력실장]

-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대표자치단체 선정시기를 결정할 것을 제의

[연합사무총장]

- 최종정리 및 인사말씀
  - 내년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

- 워킹그룹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이 폭넓게 수용되도록 최선의 노력 약속

## 합의문

### 〈합 의 문〉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회원인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자치단체의 실무대표들은 1997년 8월 28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97 실무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글로벌화와 블록화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동과제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지역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열어 나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공동체를 위한 연합의 실천사업 모색」이라는 주제로 '96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서 채택된 7대 공동과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경제, 통상, 환경, 교류, 일반 분야로 의제를 나누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모든 자치단체가 능동적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각종 포럼, 박람회, 전시회 및 학술적 연구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사에 회원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2. 경제통상분야에 대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자원개발 및 투자가 확대되도록 협조해 나가고, 모든 회원이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사무국에 송부하여 상호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3. 환경분야에 대하여 지구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 기술 교류, 공동조사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 교류일반분야에 대하여 사무국 운영문제와 공동과제 추진기구 설치 등 연합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의 사무국과 각국의 대표자치단체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반에서 합리적인 안을 작성하여 이를 '98총회 의제로 보고하기로 한다. 또한, 북한 및 몽골 자치단체의 회원가입은 러시아 극동지역자치단체들과 일본 홋카이현이 주도하여 '98총회 시 가입을 목표로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 (라) 회의성과 및 과제

### ○ 주요성과

- 1996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결성되고 연합현장에 의거 처음 개최된 '97실무위원회의에서는
- 각 회원자치단체에서 50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안건을 제의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연합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연합의 항구적인 발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음.
- 특히, 경상북도가 제안한 동북아연합 비즈니스 촉진회의, 제주도가 제안한 관광진흥을 위한 공동사업, 효고현의 방재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연합의 회원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어 높은 성과를 거양
- 하바롭스크주와 돗토리현의 노력으로 북한과 몽골의 연합참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연합의 중요성을 재인식

### ○ 과 제

-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 중 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할 공동프로젝트와 러시아 측에서 제안한 사무국 고정화 및 재정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하여
- 의장 자치단체, 부의장 자치단체, 국별 대표 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실무소위원회(워킹그룹)를 구성하고 협의의 결과는 내년도 토야마총회에 제출

## (마) 부대행사

### ○ 리셉션

- 일시 : '97. 8. 28 19:00~21:00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루프가든
- 참석 : 100여 명
- 형식 : 스탠딩 뷔페(4개국 메뉴)
- 진행순서
  - 19:00 개회 및 참석인사 소개
  - 19:10 만찬사(연합사무총장)
  - 19:25 답사(토야마현 기획부장 - 차기총회 개최지)
  - 19:35 환담 및 식사
  - 21:00 종료

### ○ 산업시찰 및 관광

- 일시 : '97. 8. 29 09:00~12:40
- 참석 : 회의참석자 전원
- 코스 : 경주관내 (석굴암, 불국사) 박물관 참관 등 회의참석자의 희망에 따라 적극 협력

나. 제2회 실무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1996년 동북아시아 지역 각국의 자치단체들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이 설립되었다.

이번에 국장급 간부들의 회의인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연합의 기반 강화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더욱 활발한 교류 협력 추진 등에 대해 협의 및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환경분과위원회, 일반교류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2) 회의개요

- (가) 기 간 : 1999. 7. 14(수) ~ 7. 15(목)
- (나) 장 소 : 토야마 다이이치 호텔
- (다) 주 최 : 토야마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 (라) 참가범위 : 5개국 25개 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4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산둥성
일본	9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몽골	1	투브아йма크
한국	7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러시아	2	브랴티야공화국, 하바롭스크변경주

(읍서버(2) : 한국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극동자바이칼협회)

(마) 회의일정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10월 21일 (수)	9:30	개회 • 개회인사 - 나카오키 유타카 토야마현지사 (연합의장)
	9:50	•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① 경제통상분과위원회 조창현 경상북도경제통상국장 ②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카사키 타카노리 시마네현국제과장 ③ 환경분과위원회 타치카와 히로타카 토야마현환경정책과장 ④ 방재분과위원회 타카미 타카시 효고현방재기획과장 ⑤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시마다 칸스케 토야마현일본해정책과장
		중식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10월 21일 (수)	13:20	경비부담문제 등 합리적, 효율적 운영에 대해 칸다 에이지 효고현부장 (기획, 국제담당)
	14:00	연합지원기관의 등록요강 제정에 대해 시마다 칸스케 토야마현 일본해정책과장
	14:40	사무국 러시아지부의 설립에 대해 시마다 칸스케 토야마현 일본해정책과장
	14:50	2000년 총회 개최요강에 대해 칸다 에이지 효고현 부장 (기획, 국제담당)
	14:55	NEAR21(동북아시아경제교류EXPO) 개최에 대해 후지이 켄조 토야마현 관광통상과장
	15:30	합의문
	16:00	폐회

(바) 회의내용

○ 보고사항 1 -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멤버 구성-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개국 21개 단체
- 회원단체 경제상황과 통상관련 정보를 수록한 연합총람을 편찬, 각 자치단체에 송부
- 중국 흑룡강성에서 개최되는 하얼빈 경제무역상담회 참가, 아무르주의 콩박람회 및 올해 토야마현에서 개최되는 NEAR21(동북아시아 경제교류 EXPO) 홍보
-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상교류와 경제연구소의 네트워크화 등 총회나 실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정리
- 9월에 개최될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각종 박람회 등 각 회원단체가 준비하는 통상관련사업의 상호협력방안 논의 및 경제 통상분과위원회의 활동 지침이 채택되기를 기대

[문화교류분과위원회]

- 4월 중순에 참가 자치단체에 활동 스케줄을 알리고 제안사항을 정리
  - 교토부 제안 : 학술, 연구를 통한 교류 촉진
  - 산동성 제안 : 중국 공자 연구원 건설 준비에 대한 참여 등
  - 시마네현 제안 : 동북아지역연구센터 설치
- 위 제안에 대해 분과위원회 참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류 의사 및 의견을 모으는 중이며 회답이 정리되는 대로 참가 자치단체와 협의해가면서 활동방향을 정할 생각

[환경분과위원회]

- 개별 프로젝트 조사표 및 향후 스케줄 등 환경협력 추진 방법에 대한 토의. 합의된 조사표에

근거하여 2000년 초반까지 각 프로젝트의 제안 및 참가 의향에 관한 조사 실시 예정. 참가 의향조사는 환경분과위원회 소속 자치단체가 아닌 곳도 포함하여 34개 연합 회원에 송부할 예정

#### [방재분과위원회]

- 자연재해 피해 경감에 관한 모니터링, 혹은 구조팀 상호파견, 훈련소 상호 연수 등의 제안이 있었음.
- 효고현은 코디네이터로서 다음 두 가지 사업 검토 중
  -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 관한 경험과 교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
  - 방재에 관한 인재교류

#### [일반교류분과위원회]

- 동북아시아 교류를 지원하는 인재육성사업 (NEAR 교류의 배) 성과를 바탕으로 일반교류분과위원회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교류사업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가능하면 상호 적극 참가
- 조사 연구기관의 연계 강화
  - 동북아시아에 있는 조사연구기관의 홈페이지 개설을 촉진하고 연합 홈페이지와 연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조사연구기관의 상호 정보교환을 지원
  - 조사연구기관끼리의 정보교환회의 개최, 혹은 공동연구지원 등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가기로 함.
- 동북아 여성회의 개최 검토

#### ○ 분과위원회 보고에 관한 각 자치단체의 주요 의견

##### [하바롭스크변경주]

- 경제통상상분과위원회 안에 동북아·유럽 운송회랑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지역의 구체적인 교통 관계에 관한 프로젝트 검토 제안
- 조사·연구기관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연합에 속한 연구기관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동북아의 경제협력 zone 창설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제안

##### [충청북도]

- 연합 총회 개최 시 주최하는 자치단체가 산업박람회나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는 것, 무역 활성화를 위해 무역사무소 (부스 설치) 만드는 것 제안

##### [경상북도]

-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총회에 산업 박람회 병행개최 제안
- 무역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장소와 경비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

[전라북도]

- 각국의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로 모아 팜플렛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배포

[브라티아 공화국]

- 자치단체 연합에 참가하는 자치단체의 각각의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 교환 제안

○ 협의사항 1 - 경비부담 문제 등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제안 : 효고현)

- 2000년 총회 개최 희망 자치단체가 나오지 않은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개최 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함. 회의 개최 경비를 가능한 절감하고 운영체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많은 자치단체가 회의를 주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함.
- 현행 현장을 전제로 한 제안
  - 현장 제15조제1항에 회의 개최경비와 사무국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원자치단체의 회비 및 기타 잡수입으로 운영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제2항제2호에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개최경비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 회의 개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최단체의 부담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간소화 하자는 제안
- 현장 개정과 관련한 제안
  - 사무국 체제와 회비 문제를 포함해서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 등 전반에 대해,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각 자치단체의 개별 프로젝트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인 검토 필요성 확인
  - 현장 제15조제2항에서 '잠정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연합의 발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15조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회비제 혹은 회의 개최 경비의 분담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연합의 재정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경비부담 문제 등 합리적, 효과적 운영에 대하여 (案)

제안 자치단체 : 효고현

I. 회의개최에 관한 경비부담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현장 제1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경비에 관한 자치단체 부담 관련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사항에 관한 경비는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① 회의장 확보 관련 경비

② 회의 통역 관련 경비

• 회의 통역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4개국어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함.

③ 회의자료작성 관련 경비

• 회의자료는 상기 4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료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④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적 경비

⑤ 기타 개최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제의가 있었던 경비

2. 다음 사항의 실시는 개최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최 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회비제 (참가는 임의)로 할 수 있다.

① 리셉션

② 시찰

3. 다음 1 내지 2의 사항 이외 경비에 대해서는 참가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함. 단, 개최 자치단체가 자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제의가 있던 경우에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① 해외 이동경비 등 교통비 (개최 자치단체 내의 이동수단 제공은 제외)

② 숙박비 등 체재비

II.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의 검토를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이번에 러시아 자치단체의 상설지부 설치 제안, 분과위원회 설치와 함께 향후 각 자치단체의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무국 체제와 회비 등을 포함하여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 운영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활동상황, 각 자치단체의 개별프로젝트의 상황, 지부 활동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검토한다.

○ 각 자치단체 주요 의견

[하바롭스크변경주]

- 러시아는 '97년에 회비 도입을 제안. 소액이라도 회비를 도입하면 그만큼 사무국 비용도 커버 할 수 있고 사무국도 상설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 금액에 관해서는 여기서 발언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대단히 공평하다고 생각
- 회비가 없는 현재 상황, 회의 개최경비는 개최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현실은 금후 연합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

[후쿠이현]

- 회비를 걷지 않은 이유부터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야마현(의장)]

- 경제수준, 물가 차이가 너무 나서 좀처럼 결론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분간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었음. 그러나 제1차 총회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열의도 있고 하여 회의에서는 개최지에서 부담한다는 추가문을 넣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

[경상남도]

- 오늘은 먼저 제1단계로서 체제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

[전라남도]

- 연합의 정신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회비 징수 문제는 실무자들이 먼저 논의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년 총회 자리에서 자치단체장급이 논의하게 하자.

[전라북도]

- 내년 효고현 총회에서 효고현이 2명의 체제비를 부담하고 리셉션과 시찰을 간소화한다는 것에 찬성
- 지금까지의 개최 자치단체인 시마네현, 효고현, 하바롭스크변경주, 경상북도, 토야마현이 노하우를 갖고 있을거라 생각, 개최단체들이 회비 문제를 약간 논의해서 차기 자치단체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절차 필요, 상설사무국 설치문제는 찬성

[토야마현(의장)]-정리

- 총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역대 개최지역의 노하우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먼저 심의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음.
-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

○ 협의사항 2 - 연합지원기관의 등록 요강 제정에 대하여 (제안: 토야마현)

- 작년 총회에서 연합 지원기관(연합 센터 등)의 자치단체 연합에 대한 등록제도가 창설되었음. 연합 지원기관 등록 절차를 정하기 위해 등록요강을 제정하고자 함.

연합지원기관 등록 요강(案)

(목적)

제1조 이 요강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헌장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한 연합지원기관의

등록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합지원기관의 기능)**

제2조 연합지원기관은 분과위원회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분과위원회에서의 원활한 협력과 그 협력을 통해 실시되는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분과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조언·지도 및 정보제공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에 옵저버 참가하여 전문적인 관점에서 지도·조언
- ③ 분과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실시되는 개별 프로젝트의 실시에 관한 협력

**(등록요건)**

제3조 연합지원기관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 ② 분과위원회와 연계·협력하여 자치단체연합이 실시하는 개별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할 의사가 있을 것
- ③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④ 연합회원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것

**(신청)**

제4조 자치단체연합 회원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합지원기관으로 추천하려고 할 때는 연합지원기관등록신청서 (별지 양식)을 연합사무국에 제출한다

**(등록)**

제5조 ① 연합 사무국은 前條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등록 사실 및 그 기관의 개요를 회원자치단체에 통지한다. 그리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한 자치단체에 알린다.

- ② 연합사무국은 연합지원기관 등록명부를 작성한다.
- ③ 연합사무국은 매년 1회 등록사항의 변경 유무에 대해 각 연합지원기관에 조회하고 연합지원기관 등록명부를 갱신한다.

**(등록 말소)**

제6조 ① 연합지원기관이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합사무국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② 연합사무국은 연합지원기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회원자치단체에 통지한다.

**(연합지원기관 부담)**

제7조 연합지원기관은 이 요강에 근거한 등록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활동보고)**

제8조 연합사무국은 연합지원기관에 대해 활동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요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연합지원기관 등록후보명부**

자치단체명	명 칭
야마가타현	야마가타현 일본 중국 우호협회
	쇼나이 국제교류협회
	츠틀루오카 타가와 지구 일중우호협회
	(재) 데와 쇼나이 국제교류재단
	일본 유라시아협회 츠틀루오카지부
	야마가타현 쇼나이 일한친선협회
	사카타 지구 일중우호협회
	동방수상실크로드 무역촉진협의회
	아츠미마치 일중우호협회
니가타현	(재)환일본해경제연구소 (ERINA)
	니가타대학환일본해연구회
	니가타현 대외과학기술교류회
토야마현	(재)환일본해환경협력센터
	토야마다학 환일본해지역연구센터
	환일본해 무역교류센터
	(재)토야마 국제센터
이시카와현	일본국제연합협회 이시카와 지부, 호쿠리쿠 환일본해 경제교류촉진협의회
효고현	(재)21세기 효고 창조협회
돗토리현	(재)돗토리 정책종합연구소
충청북도	(재)충북개발연구원
경상남도	(재)경남개발연구원
사하공화국	국가통일기업 사하·보스토크
	국가통일기업 아쿠치아 석탄
	공개주식회사 아쿠치아 삼림공업

자치단체명	명 칭
	민족석유·천연가스조합 사하석유·천연가스
연해변경주	경기·예측 국제연구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하바롭스크변경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 보고사항 2 - 사무국 러시아지부 설립에 대하여(보고자 : 연합사무국)

- 연합 현장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따라 사무국 러시아지부가 설립됨.
- 개요
  - 각국별로 1개의 사무국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사무국 지부의 설치에는 지부가 속해있는 국가의 모든 회원자치단체의 합의를 요한다.
  - 사무국 지부의 설치장소, 임원·직원은 지부에서 결정한다.
  - 사무국 지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지부의 부담으로 한다.
  - 사무국 지부의 기능은 연합사무국 본부 및 사무국 지부 내의 자치단체와의 연락조정, 기타 연합에 관한 연락조정을 한다.
- (의장) : 연합사무국과 러시아 극동 자치단체와의 연락은 지금까지 극동 자바이칼 협회가 창구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는 연합사무국 러시아 지부로서 연합의 러시아 회원자치단체와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해주시기 바람.

〈사무국 러시아지부 개요〉

- ① 주소 680002 하바롭스크시 무라비요프 아무르 19 극동자바이칼협회 內
- ② 연락처 TEL +7-4212-32-5489 or 7602 FAX +7-4212-32-5907
- ③ 임원 지 부 장 A.M 노베쇼-로프 (극동자바이칼협회 사무국장)  
 부지부장 A.G 부-뤼 (극동자바이칼협회 대외경제교류부장)

○ 보고사항 3 - 2000년 총회 개최 개요에 대하여 (보고자 : 효고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2000년 총회 개최 개요(案)

1. 개최기간 : 2000년 9월 4일(월)~ 7일(목)
2. 개최장소 : 효고현립 유메부타이 국제회의장(가칭)
3. 숙 박 : 웨스턴호텔 아와지

- 4. 주 최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효고현
- 5. 참가자치단체 동북아지역 (중국,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의 광역 38개 단체 지사급
- 6. 스케줄
  - 9월 4일 (월)    오후   실무자 준비회의  
                  밤     환영만찬
  - 9월 5일 (화) 오전~오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  
                  저녁   수석대표기념촬영, 기자회견  
                  밤     교류파티
  - 9월 6일 (수) 오전~오후 시찰
  - 9월 7일 (목)           귀국

[하바롭스크 변경주]

- 경비 절감을 전제로 2002년 제4회 총회 개최 제안

(사) 제2회 실무위원회 합의문

1999년 7월 15일 일본 토야마현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인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몽골국, 러시아연방의 자치단체 실무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2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실무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동북아 시대로 보고 이 지역 자치단체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북아 경제권', '동북아 교류권' 이라고 할 만한 글로벌한 일대 교류권의 형성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향후 활동 등에 관하여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합지원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1998년 10월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98]에서 만들어진 연합지원기관 등록제도에 관해 등록요강을 제정함과 함께 29개 기관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록을 실시하였다.

2.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보고를 받고, 향후 각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개별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착실하게 협의를 추진해 갈 것을 확인했다. 또 복수의 추가적인 프로젝트의 제안이 있어, 관련 분과위원회

에서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

①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활동보고

연합회원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및 통상관련 정보를 수록한 연합총람을 발간하고 회원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제관련 사업에 대해 협력하였다. 금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통상관련사업의 상호협력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기로 한다.

② 문화교류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분과위원서 추진할 제안사항을 '학술·연구를 통한 교류 촉진', '중국 공자 연구원 건설 준비에 참가', '동북아시아지역연구센터'의 3가지를 선정하였다. 향후, 타 분과위원회와의 연계 및 분과위원회 참가 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기로 한다.

③ 환경분과위원회의 활동보고

개별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각 자치단체의 참가의향에 관한 통일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초까지 이를 정리하여 프로젝트 실현을 도모하기로 한다.

④ 방재분과위원회의 활동보고

각국의 방재체제 상황을 상호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재에 관한 정보 교류, 인재교류를 먼저 실시하고 이들 분야에 관한 프로젝트의 제안을 분과위원회의 참가 자치단체에 요청. 또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부흥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연합의 전체 참가 자치단체에 전달하기로 함.

⑤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활동보고

동북아시아의 교류를 담당할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각 자치단체의 교류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 지역의 조사연구기관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통해 각 기관에 대해 홈페이지의 개설을 촉구. 이외에 '시험연구기관간에 의한 각종 정보교환회', '동북아여성회의(가칭)'의 개최 등에 관하여 계속 검토해 가기로 한다.

3. 사무국 러시아지부 설립 등에 관하여

연합헌장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무국 러시아지부가 극동 자바이칼협회에 설치된 것이 보고되었다. 또 설립시에는 각국별로 각각 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자치단체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지부 설립시의 요건에 관해 합의

4. 경비부담의 문제 등 합리적, 효과적 운영에 관하여

효고현에서 제안된, 총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개최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경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기타 경비부담의 문제 등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계속 검토 추진

5.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제3회 총회에 관하여

효고현은 2000년 일본 효고현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제3차 총회일정, 장소 등 개최 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6.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4회 총회에 관하여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연합 제4회 총회를 2002년에 러시아연방 하바롭스크변경주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으나, 제4회 총회의 개최지는 2000년의 제3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 2000년 7월 10일

토야마현 일본해정책과장이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회원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지원기관에서의 등록말소(통지)' 공문 발송

○ 등록을 말소한 기관(9개)

- 야마가타현 일본 중국 우호협회
- 쇼나이 국제교류협회
- 츠루오카 타가와 지구 일중우호협회
- (재) 테와 쇼나이 국제교류재단
- 일본 유라시아협회 츠루오카지부
- 야마가타현 쇼나이 일한친선협회
- 사카타 지구 일중우호협회
- 동방수상실크로드 무역촉진협의회
- 아즈미마치 일중우호협회

연합지원기관 명부

(2000. 07. 10)

자치단체명	명칭 (20개 단체)
니가타현	(재)환일본해 경제연구소 (ERINA)
	니가타대학 환일본해 연구회
	니가타현 대외과학기술교류회
토야마현	(재)환일본해 환경협력센터
	토야마대학 환일본해 지역연구센터
	환일본해 무역교류센터
	(재)토야마 국제센터
이시카와현	일본국제연합협회 이시카와 지부
	호쿠리쿠 환일본해 경제교류촉진협의회

자 치 단 체 명	명 칭
효고현	(재) 21세기 효고 창조협회
돗토리현	(재)돗토리 정책종합연구소
충청북도	(재)충북개발연구원
경상남도	(재)경남개발연구원
사하공화국	국가통일기업 사하·보스토크
	국가통일기업 야쿠치아 석탄
	공개주식회사 야쿠치아 삼림공업
	민족석유·천연가스조합 사하석유·천연가스
연해변경주	경기·예측 국제연구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하바롭스크변경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다. 제3회 실무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1996년 9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창설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국장급 간부 회의인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00년 9월 효고총회에서 합의한 연합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계속적인 검토에 대해, 2001년 2월에 개최된 ‘연합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실무 소위원회’에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참가대표자간의 협의 및 의견을 교환함.

(2) 회의개요

- 가) 기 간 : 2001. 8. 27(월) ~ 8. 30(목)
- 나) 장 소 : 효고현립 아와지 유메부타이 국제회의장
- 다) 주 최 : 효고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 라) 참가범위 : 5개국 23개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2	흑룡강성, 영하회족자치구
일본	10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몽골	1	투브아이막
한국	8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러시아	2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극동자바이칼협회사무국 러시아 지부)

마) 회의일정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8월 28일 (화)	9:00	개회 인사- 후지모토 카즈히로 연합 사무총장 (효고현 부지사)
	9:10	[보고사항 1] 분과위원회 보고 ①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황성길 경상북도 경제통상실장 ② 문화교류분과위원회- 나카타 모리요시 시마네현국제과장 ③ 환경분과위원회- 나카이 토쿠타로 토야마현생활환경부장 ④ 방재분과위원회- 기무라 히로키 효고현 방재기획과장 ⑤ 일반교류분과위원회- 나카이 토쿠타로 토야마현생활환경부장
	10:15	[협의사항 1] 회의 개최 경비의 일부 분담제에 대하여
	11:15	-중식-
	12:45	[협의사항 2] 연합에 의한 사업인정 및 후원제도의 창설에 대하여
	13:45	[협의사항 3] 상설사무국의 설치 등 사무국제도의 방향성에 관하여
	16:50	[보고사항 2] 2002년 총회 개최 개요에 관하여 하비롭스크변경주 지사고문 블라디미르 구축
	17:10	합의문
	17:30	폐회

(3) 회의내용 총괄

○ 보고사항 1 -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제1회 및 제2회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대회 개최
  - 부대행사로 세미나 개최, 특산물 전시, 카다로그 전시
-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정보센터 설립, 동북아연합 회원단체간의 통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무역박람회 개최 등 사이버 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즈니스의 대변혁을 추진한다는 계획

[문화교류분과위원회]

- 공동사업을 어떻게 추진해갈지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예정

[환경분과위원회]

- 제2회 환경분과위원회 보고
  - 2000년 8월에 일본, 한국, 러시아 15 자치단체가 참가. 1999년에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

실시현황 보고 및 환경분과위원회 운영 협의

○ 제3회 환경분과위원회 보고

- 2000년도 개별프로젝트 실시 결과 보고 : 동해 연안 해변의 매물, 표착물 조사, 동북아 환경 평가 공동사업,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 2001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 및 실시상황 보고
- 차기 코디네이터 선출 : 토야마현 재선출

[방재분과위원회]

- 방재 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의 방재 체제 등에 관한 설문조사, 효고현이 고베대지진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파
- ‘지진재해대책 국제종합 검증사업’의 검증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전 회원자치단체 앞으로 송부

[일반교류분과위원회]

- 제2회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는 ‘동북아 21세기 여성회의’ 개최 계획, 인재육성사업, 조사 연구기관 연계 강화 방안의 3개 사항에 대해 협의
- 조사연구기관 연계 강화 부분에서는 작년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동북아시아의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연구기관 리스트를 확충
- 토야마대학 극동지역 연구센터에서 실시중인 ‘일본해학’ 소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지역학
  - 명칭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이 공감해서 부를 수 있는 명칭이 나오길 바람.

[전라북도]

- ‘일본해학’이라는 표현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거나 한국에서는 ‘동해학’, 일본에서는 ‘일본해학’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을 병기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토야마현]

- 통일적으로 ‘일본해학’이라는 명칭을 동 분과위원회에서 쓴다는 합의는 안했음. 공통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찾고자 함.

[전라북도]

- 회의자료에는 ‘일본해학’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아직 잠정적인 것이라는 설명 없이 배부되어 있음. ‘일본해 혹은 동해학’이라는 형태로 병기할 것을 제안

[토야마현]

- 자료의 한국어 표기는 ‘일본해’라고 되어 있을 것. 이것을 ‘일본해(동해)’로 할지 ‘동해학’이라고 할지를 논의한 뒤에 정정한 것을 회원단체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한가?

[의장]

- 국가에 따라 바다를 부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해도 확정되지 않을 것.

의장으로서 ‘일본해학’은 잠정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인식시켜드리는 것은 어떤가.

[전라북도]

- ‘일본해학’의 뒤에 ‘또는 동해학’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회의 중에는 어렵다면 추후 정정해서 보내주기 바람.

[의장]

- ‘일본해학’ 혹은 ‘동해학’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데 양 쪽 다 괜찮은가.

[토야마현, 전라북도 동의]

- 이 표현을 가능하면 회의중에 각국어로 수정하겠음.

[토야마현]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보고 중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 보충설명 드림.
- 1999년 동북아시아의 경제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NEAR 21(동북아시아 경제교류 엑스포)’를 개최. ‘NEAR 2002 중국’을 개최
- 각 자치단체에서도 동북아시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 이런 사업들에 대해 경제통상분과 위원회에서 조사 및 정리후 정보를 제공 요청

○ 협의사항 1 - 회의개최경비의 일부 분담제에 대해

[사무국]

- 제안 취지 및 경위 설명
- 2001년 2월 실무소위원회에서 회의개최비용의 일부 분담제 도입 案이 많은 지지를 얻어 사무국이 각 단체의 의견을 조화하여 많은 단체가 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기로 합의됨.

〈제안내용〉

- 분담대상경비
- 회의자료 작성비, 회의 운영비 이 2가지를 참가 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체재비는 토야마에서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참가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됨.
- 분담액 산출방법
  - 분담대상 금액의 반액을 회의개최자치단체가 부담. 나머지 반액은 개최 자치단체를 제외한 연합 회원 자치단체수(35)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참가 자치단체가 부담. 참여하지 않은 단체의 부담금은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
  - 구체적인 분담액 결정은 개최자치단체가 의장자치단체와 협의
- 분담액의 결정 순서
  - 차기 총회 개최지로 입후보하는 자치단체가 해당회의 직전 해에 열리는 총회 혹은 실무위

원회에서 차기 총회 분담 대상 경비의 대략적인 액수를 제시

• 면제조치

- 자연재해 등 부담이 매우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 회의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액의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 안은 연합현장의 재정에 관한 제15조제2항제2호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회원 단체의 찬성을 얻어 회의자료에 첨부된 현장 개정안을 총회에서 의결토록 조치

• ‘회의개최경비 일부 분담에 관한 요강(안)’ 첨부

[토야마현]

•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일본 회원단체가 엔화로 내도 되지 않은가? 개최국 통화로 지불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은가.

[사무국]

• 그러한 방향으로 문안을 재검토하겠음.

[경상남도]

• 각국 통화를 사용하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됨.

• 연합 현장에 사무국 회계는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5조제2항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한다’고 하고 ‘회비는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어, 모순된다 생각되므로 제15조의 사무국 회계는 회의의 참가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개정함은 어떠한지.

[사무국]

• 사무국에 각 나라별 통화로 돈을 내면 몇번이나 통화를 교환해야 할 필요가 생김. 동일국내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미 달러로 환산할 필요 없이 동일국의 통화도 괜찮을 것 같음.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2항제2호의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경비에 관한 것임. 회의 참가 분담금은 회비가 아니므로 이번 개정 대상은 제2항제2호의 부분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사무국의 생각

[경상남도]

•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1항에서 ‘회비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하면서 잠정적이라고는 해도 ‘회비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어 자체가 상호 모순되는데 하나의 조문 안에서 상호 모순되는 것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사무국]

• 원칙은 원칙으로 1항에 규정해 둬. 단 회비제 도입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도입이 어려운 현재 상황도 제2항으로 명기해 둬. 원칙은 원칙으로 정해놓고 당분간 회비제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문언상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의장]

- 회비와 분담금의 표현차이라고 생각

[사할린주]

- 토야마현의 제안 내용은 대단히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
- 여러가지 사정으로 분담금을 내지 않는 단체가 있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주최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지 말고 해당금액을 어떠한 형태로든 징수하는 것을 총회에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의장]

- 회의 개최국내에서 분담금 지불 시 미 달러와 연동시키면서 개최국 통화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이의 여부. (이의 없음)
- 부담금을 내지 않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아마가타현]

-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단체에게도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회의의 실비 부담이라는 취지에 벗어남.

[의장]

- 아마가타현은 불참하는 단체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나 사할린주의 의견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분담금을 내지 않는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사할린주]

-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일정하며 참가자 수와 관련된 비용은 회의자료 작성 정도가 될 것. 회의전체 비용은 참가자 수의 수가 약간 변동되었다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님.

[사무국]

- 실제 부담 액수를 산출, 계산할 경우에는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하고, 실제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만 돈을 내는 제도를 제안하는 것임.

[사할린주]

- 2개 단체가 참가 안하더라도 회의전체 비용은 변동없음.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건가.

[전라북도]

- 회의개최비용은 개최하는 주최측과 참가하는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안에 찬성. 이것은 회비가 아니라 실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며 경비를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함.
- 회의자료 작성비와 운영경비는 개최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해외출장의 경우 체재비와 교통비가 보통 자국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국내교통비를 개최자치단체에서 부담해준다면 체재비는 50%씩 참가자치 단체와 개최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을

제안함.

#### [하바롭스크변경주]

- 현행 제도에서는 총회 뒤 2년간 회의개최자치단체가 모든 회의 개최 준비와 모든 사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다음에 열리는 총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열림.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역으로 바꿔서 예를 들면 먼저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위에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는 총회를 위해 2년간 준비하도록 함.
- 회의 개최국이 총회준비를 위해 자기 지역에 사무국을 두는 식으로 바꾸면 일하기 쉬울 것 같음.

#### [의장]

- 부담금 납입 문제와 사무국 구조의 문제가 관련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가능하면 부담금 문제를 처리한 뒤에 사무국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면 함.

#### [사무국]

- 사할린주 의견에 대해, 지금까지 총회 혹은 실무 위원회의 회의개최비용은 모두 회의개최지가 부담하고 있어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래서 회비제 도입은 힘들지만 개최지의 부담을 줄여서 회의개최를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 연합 회원과 회의개최 단체 각자가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경비를 부담함으로써 개최지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을 제안한 것임을 이해바람.
- 전라남도의 의견에 대해, 먼저 체재비는 지난번 토야마에서 있었던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 이미 참가단체 스스로 체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됨.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 경비를 받기 때문
- 외국에서 참가자들이 그 국가 내에서 이동이 어려울 것이므로 공항 등에서 회의장까지의 이동은 회의개최지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서 회의개최국내의 교통비는 개최지가 부담하기로 합의되었음. 그리고 회의자료 작성경비, 회의 운영경비는 개최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나 실무위원회에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또 의장단체와도 사전에 논의한 뒤에 정하도록 순서를 밟으면 좋겠다고 생각. 나라에 따라서, 또는 개최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신중하게 절차를 밟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아오모리현]

-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
- 각 자치단체의 연합 활동에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 예산화하게 되면 메리트와 非메리트를 검토해야만 함. 우리 현로서는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니가타현]

- 아직 연합의 방향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따라서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

[사무국]

- 구체적으로 경비부담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된 것은 '98년 10월의 토야마 총회부터임. 총회 개최와 사무국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기 개최지 후보가 없었음. 그래서 회의 개최지의 부담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연합 총회 개최 등 연합 발전에 대한 강한 위기감이 들었기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음.
- 따라서 1999년 실무위원회, 2000년 총회, 그리고 올해 2월 실무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했으며 향후 연합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경비 문제는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므로 회의 개최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
- 작년 총회에서도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얻어 분담제 도입이 이루어지기 바람.

[의장]

- 토야마 총회시 비용 문제로 입후보하는 단체가 없어 효고현이 나선 경우가 있음.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이어져 총회를 개최하려는 자치단체가 나오지 않으면 연합의 존속자체에 있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정적인 조치일지라도 차기 하바롭스크 총회까지는 개최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여 그 다음 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실무소위원회를 열어 합의한 것이 바로 이 제안임.
- 이 문제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된 것을 기본으로 하바롭스크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되어 있음. 그럼 의제 1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제안한 방향에 따라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하고 차기 하바롭스크 총회에서 보고 및 의결하도록 하겠음.

○ 협의사항 2 - 연합의 사무 인정 및 후원제도 창설에 대해

[의장]

- 두번째 협의사항은 연합 활성화 관점에서 연합 참여 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연합 자격으로 지원하는 제도 제안

[사무국]

1. 첫번째는 특정사업에 대한 연합의 인정에 관한 것.
  - 제안취지 : 다수의 회원자치단체 등이 참가하는 국내박람회 등의 사업은 연합의 목적인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 지향과 공동의 과제해결의 장을 제공한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연합회원자치 단체가 실시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 연합이 인정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국제박람회 등 사업 촉진과 개최자치단체의 성공 및 지역의 대내외적 교류촉진을 도모하고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 제안내용 : 인정사업에 관한 요강

인정기준 : 1) 연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것, 2) 사업의 주최, 또는 공동개최가 회원자치단체일 것, 3) 개최자치단체의 국가를 포함한 연합참여 3개국 이상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사업일 것, 4) 정치활동, 종교활동 등과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것, 5) 특정 개인 및 단체의 선전, 또는 영리에 관여하지 않을 것, 6) 기타 연합, 회원 및 특정인의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 국제박람회, 전시회, 기타 사업의 어느 한 분야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일 것.

규모의 기준은 국제박람회일 경우 예상입장객 50만명 이상, 개최기간은 대략 2주간 이상. 산업전시회의 경우는 참가기업 및 단체 예상 수가 100개 이상, 예상 입장객 5,000명 이상, 개최기간 3일 이상.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인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함. 단, 규모 기준은 개최지에 따라 인구, 경제규모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으로 삼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그리고 인정 횟수는 연간 대략 4개 ~ 5개 사업으로 한정하며 동일국 내에서는 연간 2개 이상의 유사한 사업은 인정 않도록 함.

• 표창제도 창설

- 인증사업을 개최하는 자치단체가 뛰어난 전시품 혹은 파빌리온 등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상' 을 수여
- 표창 심사는 개최단체가 사무국과 협의

• 인정사업에 관한 노력 의무

- 연합사무국은 개최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홈페이지나 회보지 등에 인정 사업에 대한 회원자치단체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에 관련된 국제조직 등에 협력요청을 함.
- 개최자치단체는 인정사업에 참여하는 연합 회원단체에 대해 우선적인 편의제공과 회원자치단체의 참여에 따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나 기타 국내조직에게 협조 받을 것. 인정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를 회원자치단체에 제공
- 각 회원자치단체는 인정사업에 대한 참여 및 협력에 힘쓰고 관련단체에 대한 PR과 참여요청에 힘쓸 것.

• 인정 절차

- 회원자치단체가 사무국에 공문 제출, 인정사업 선정은 실무위원회에 설치할 '심사위원회' 에서 실시. '심사위원회' 는 의장단체, 부의장단체, 각국 1단체 총 7개단체로 구성하

- 고 총회에서 선출하여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 2년으로 함.
- 사무국은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심사 후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정사업의 승인을 얻음.
- 이 제도에 대해 회원단체가 찬성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2002년 하바롭스크 총회에서 결의될 수 있도록 할 생각

2. 두번째로는 '개별사업에 대한 연합의 후원제도'

- 제안취지 : 1996년 연합 출범 이래 경제,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회원 자치단체가 다수의 구체적인 제안을 함. 전시 상담회나 각종 박람회 등 지역교류사업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회원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개별사업에 대해 연합이 후원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회원자치단체가 서로 타 단체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합을 통한 역내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 제안내용
  - 후원명의 사용승인 : 기본적으로는 인정시의 조건과 같지만 차이점은 회원단체 이외에 회원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주최, 또는 공동개최하는 사업으로 소재지의 회원자치단체가 후원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대상으로 함. 그리고 후원시에는 대상분야의 한정이나 규모 기준을 만들지 않음. 그리고 승인 내용은 연합의 후원명의 사용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사업 PR시에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후원' 이라는 형식으로 소개가 가능함.
- 승인 신청
  - 회원자치단체가 사무국에 공문 제출. 사업주최가 회원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경우 소재지의 회원자치단체가 적합성을 판단한 뒤 해당 회원자치단체가 필요한 신청 절차를 밟음. 심사는 사무국이 하며 승인 결정은 사무총장이, 승인 상황은 사무국이 바로 다음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함.
  - 승인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인정 제도와는 달리 이 실무위원회에서 찬성되면 연합현장 제11조 6호에 규정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라는 점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요강(안)을 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고자 함.

[강원도]

- 실제로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조속히, 그리고 많이 실시하지 않으면 연합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함께 찬성하고 시간을 끌지 말자.

[의장]

- 연합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상호 이익이 발생하는 형태로 추진해가기를 바라므로 차기 하바

롭스크 총회에 보고하여 '인정제도'가 결정되기 바람.

- 연합의 후원명의를 사용 승인 제도는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하고 본 제도의 운영요강 결정 및 추진하겠음. (이의 없음)

[충청남도]

- 연합이 형성된 뒤로 계속 서로 협력하고 돕는다는 취지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
- 내년 충청남도에서는 안면도 꽃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국제기구인 AIPH(국제 화훼생산자 협회)의 인정을 바탕으로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간 열림. 관람객은 70만명에서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30개국 또는 50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방금 말씀하신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 인정제도는 하바롭스크 총회까지 기다려야 하고 후원은 이번 실무위원회가 끝난 뒤에 가능 하도록 되었는데 충청남도의 꽃박람회는 내년 4월에 열리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운지 사무국의 의견을 듣고 싶음.

[사무국]

- '인정'은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인정사업을 선정하여 자치단체간 상호 연계하는 취지로 계획을 세웠음. 이는 각 단체에 의무사항은 아니나 노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하여 내년 총회에서 결정시 시행한다는 생각에서 제안
- 반면 '후원'은 기본적인 생각은 같지만 기초자치단체 사업도 포함시켜 폭넓은 후원을 통해 연합을 알리자는 취지이므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양해해주신다면 당장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함.

[충청남도]

- '후원'은 오늘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인정'은 내년 9월 하바롭스크 총회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함. 일정상 '인정'은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 안면도 꽃 박람회는 인정사업에 걸맞는 사업이지만 연합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그러나 후원은 나중에 사무국에서 이번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후원 절차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음.

3. 상설사무국의 설치 등 사무국 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사무국]

- 제안 취지 : 현재 의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사무국 본부를 설치하는 순회사무국 제도를 재 검토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연합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사무국체제에 대해 검토함

으로써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 추진에 기여

- 제안 경위 : 지난 9월 효고총회에서 사무국의 방향성 등 연합의 운영에 관한 과제와 대응책을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2002년에 열리는 하바롭스크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실무소위원회 설치도 함께 결정. 효고총회에서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현재 순회사무국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순회 사무국과 병행해서 상설사무국 설치 제안과 경상북도가 상설 사무국을 설치 의향이 있음을 발표. 그리고 올해 2월에 열린 실무소위원회에서 경상북도가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안함. 실무소위원회에서는 현행 순회사무국의 문제점 및 국제조직으로서 상설사무국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이 일치. 그러나 경상북도의 상설 사무국 설치안에 대해서는 참가단체의 많은 지지가 있었으나 제안된 상설사무국의 기능, 또는 현행사무국과의 역할분담, 지휘 명령계통, 경비부담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소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무국이 각 단체와 의견 조정을 하여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이번 실무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함. 또한 모든 회원자치단체에 대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의향 여부 조사 합의

〈A案 : 상설사무국만 설치할 경우〉

- 현행 순회사무국 제도를 폐지하고 독립된 하나의 상설사무국을 신설하는 것, 이 경우 의장 단체는 회의를 개최하는 개최지, 소위 호스트 자치단체의 위치. 상설사무국은 연합 조직의 사무국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담당
- 상설사무국에는 의장 직속의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국 요원이 배치되는 형태. 그리고 상설사무국은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독립된 연합의 독자 조직으로,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 요원도 연합회원자치 단체에서 폭넓게 선발하거나 파견받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우리 연합의 현재 체제를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 단독으로 사무국 운영시 많은 자금과 폭넓은 인재 확보가 필요한데 연합자체의 재정기반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단독 사무국의 조속한 실현 등 조건 정비를 위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
  - 상설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 등 특정단체가 운영경비를 모두 부담할 경우 설령 상설사무국이 그 소재지단체에서 독립된 연합의 독립조직이라 해도 역시 그 소재지 자치단체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무국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연합 의장의 지휘 명령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직원 파견 등 사무국에 폭넓은 인재를 확보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이런 시스템이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

- 이상의 점에서 이 방법은 아직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많다는 것이 사무국의 인식

〈B案: 사무국의 병행 설치〉

- 현행 순회사무국을 남겨둔 채 새로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것.
-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사무국 기능의 분담은 원활한 조직 운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음.
- 굳이 기능을 나눈다면 상설사무국은 데이터뱅크, 혹은 싱크탱크적인 기능만 갖고 현행 사무국이 기본적인 사무국 기능을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음.
- 회의개최 및 결의사항 수행 등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은 지금까지처럼 현행의 순회사무국이 담당하고 상설사무국은 연합관련 정보 수집 관리나 장기적인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제안 등의 데이터뱅크 및 싱크탱크적인 기능만 갖는 형태
- 현행 순회사무국 제도에서는 지휘명령계통이 종래대로 운영됨. 연합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신설하는 상설사무국은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독립시켜 현행 순회 사무국의 사무총장 밑에 상설 사무국장을 배치하는 형태
- 경상북도의 제안은 이 안과 비슷한데 지휘명령계통에서 상설사무국에도 의장 직속의 상설 사무총장을 배치하여 의장 밑에 동급의 사무총장을 2명 두는 것이 차이점임.
- 예상되는 문제점
  - 순회사무국에서는 사무국이 2년마다 바뀔으로써 사무국 기능의 불연속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이 안에서는 순회사무국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음.
  - 순회사무국 기능인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상설사무국의 기능으로 할 연합 관련 자료의 수집이나 정보지 발간, 이러한 것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장기프로젝트의 연구 및 제안도 하나로 묶어서 해야 할 사업, 사무국 기능에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 연합현장 안에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합지원기관, 연합 센터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案에서의 상설사무국은 위의 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게 됨.
  - 연합은 多언어로 운영되므로 2개 사무국 간의 지휘명령 혹은 분담업무, 기능을 원활하게 통합,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양 사무국간의 연락조정 등이 더욱 번거롭게 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상설사무국과 실무위원회의 관계, 혹은 분과위원회와의 관계, 나아가 상설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의 위치 등이 아직 충분히 정리 및 검토되지 않았고 더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의 이원화 문제는 조직 운영에서 사무국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조직론 면

- 에서도 큰 과제를 가짐.
- 효고현을 제외한 35개 자치단체에게 상설사무국 설치 의향을 알아본 결과 경상북도와 토야마현이 의향이 있다고 회답
  - 경상북도 : 현행 순회사무국을 남겨둔 채 새롭게 데이터뱅크 및 싱크탱크 기능을 특화한 한정적인 기능을 가진 상설사무국을 경북에 설치한다는 제안, 상설사무국의 운영경비는 회비제 도입 등 경비 부담 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경상북도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
  - 토야마현 :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연합 전체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갖는 독립적인 상설사무국으로 하겠다는 의견, 먼저 현재 연합체제의 불충분한 부분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무국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설치장소 결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
- 현재의 순회사무국 제도의 검증
- 경위 : 연합 창설전 1996년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사무국의 설치형태에 대해 고정 사무국과 순회사무국 방식이 비교 검토된 결과 현행 순회 사무국제로 합의됨.
  - 순회사무국제도의 장점
    - 회원단체 모두가 사무국 운영 주체로서 참가할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참여의식 고양을 기대할 수 있음.
    - 2년이라는 비교적 한정된 부담으로 폭넓은 국제업무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음.
  - 순회사무국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순회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업무의 연속성과 신속한 정보전달 기능이 결여된다는 지적
    - 회원자치단체간의 비슷한 사업 조정과 연합공동사업의 장기적인 발전, 실시가 곤란하다는 점 : 분과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더 많은 회원이 각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해결 가능
    - 순회로 인한 경비부담이 부담이 되어 후보단체가 원하지 않음 : 회의 개최경비의 일부 분담제를 실시하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생각
    - 2년마다 사무국이 바뀌어 국제기구로서의 창구가 이동함에 따른 불안정한 이미지가 정착한다는 지적 : 다른 기관에 대한 통지나 홍보를 통해 해결 가능
  - 사무국 입장에서 제안하는 향후 방침
    - 복수의 단체가 상설사무국 설치안을 제안했는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음.
    - 순회사무국 제도에도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으므로 운영상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무국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
    - 사무국의 방향성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이며 1996년 연합 창설 전부터 매우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가 순회사무국임. 앞으로 연합이 신뢰관계를 토대로 운영, 발전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

[의장]

- 사무국은 현행 순회사무국의 검증을 포함하여 사무국 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좀 더 검토 및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
- 상설사무국 설치 의향이 있으신 한국 경상북도와 일본 토야마현에서 보충 설명과 의견을 들겠음.

[경상북도]

- 상설사무국 설치에 대해 2000년 효고총회에서 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 실무소위원회에서도 경상북도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안,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타 참가 단체의 동의를 얻음. 실무소위원회에 출석한 자치단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오늘 실무위원회에 제안하게 됨.
- 따라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처럼 상설 사무국을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것.
- 실무소위원회에서 순회사무국의 문제점,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참가 자치단체가 찬성했으므로 상설사무국의 필요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 국제회의에서 다양한 의결을 거쳐 여기까지 온 문제를 사무국이 필요 여부에 대해 논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

[토야마현]

-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 그러나 어떻게 사무국을 설치해야 할지, 예를 들면 병설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 지휘계통문제, 순회 의장단체와의 관계, 경비문제, 여러가지 점에서 아직 회원자치단체의 합의를 얻기까지의 논의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인식함.
- 따라서 상설사무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더욱 심도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 토야마현도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의향이 있음.

[사무국]

-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 그러나 어떤 사무국으로 만들어야 할지는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이 먼저 기본적인 인식
- 실무소위원회는 안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검토에 이바지하기 위해 초안을 잡는다는 입장에서 논의한 것.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실무위원회에 제안할 상설 사무국 설치에 관한 안을 사무국이 작성하는 것으로 하게 됨.
- A안, B안 모두 문제점들이 있어 좀 더 검토한 뒤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
- 따라서 당분간은 좀 더 검토하면서 현행 사무국을 보다 개선해 가는 것이 연합 전체에 적합

하다고 생각

[사할린주]

- 상설사무국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는 경북이 설치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 지리적으로 봐도 연합의 전 회원자치단체가 방문하기 쉬운 곳에 있음.
- 홋카이도나 미국·중국·한국의 몇몇 자치단체, 러시아의 사하공화국, 핀란드 등도 포함된 북방권 포럼에도 상설사무국이 있음.
- 1년 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의결하기 위한 안을 책정하자.

[경상북도]

- 사무국이 B안에 대해 제기한 5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현행 사무국의 방법으로는 연합 역사가 일관성을 잃게 됨. 우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싱크 탱크가 필요하며 종합적,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서 연합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기능이 필요. 그리고 국제기구로서 항구적으로 연합의 컨택포인트를 만들 필요가 있음.
  - ②, ③ 자치단체간 상호 비슷한 사업의 조정이나 관념성, 일관성 부분에 대해 사무국이 통합 기능을 담당해야 함. 상설사무국의 장을 연합 의장이 임명하면 지휘명령계통은 일관성을 갖춘. 지리적으로도 경상북도는 조정 역할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점이 있음. 상설사무국은 정보수집과 교환 등 싱크탱크적인 기능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도록 해야 함.
  - ④ 상설사무국이라는 것이 없으면 국제기구로서의 발판을 굳건히 할 수 없음. 정보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연합 발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해야 함.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인 상황에서 봐도 경북이 구심력을 갖고 하나의 중심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 ⑤ 실무소위원회의 결과 이미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생각. 기능 구분, 역할 분담도 그때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되었을 터. 우린 지금까지 8년이나 끌어왔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기로 해서 상설사무국을 설치를 어떻게 해서든 다음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의장]

-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무소위원회에서는 상설사무국 설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정 및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 것임.

[토야마현]

- 현행 순회사무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설사무국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 그러나 경북의 병설 기관 형태의 제안보다는 단독 사무국이 바람직함. 현재 연합은 회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경북의 병설안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논의를 더 진행시켰으면 함.

[의장]

- 한가지 코멘트를 하자면 조금 전 사할린에서 말씀하신 북방권 포럼은 회비제가 확립되어 있음.

## [경상남도]

- 나라별로 시스템, 제도상의 차이에 따른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 작년 '효고, 아와지 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경북의 상설사무국 제안에 여러분들은 찬성쪽 반응이었고 분명하게 반대하신 분은 없었음. 따라서 모두가 동의했다고 생각. 그리고 그 제안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함. 거기서 각 단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보완한다는 형태로 해왔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걸 뒤집으면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이 되는가.
- 경북이 상설사무국 설치를 처음 제안하고 경비부담도 하겠다고 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함. 물론 개선해야 할 문제도 있을지도 모름. 어떤 단체가 뭘 하려고 할 때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이유를 자꾸 붙여서 못하게 하려는 것은 연합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 각 단체가 참여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면 다수결로 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 [사무국]

- 작년 총회에서는 반대가 없었다는 것 자체일 뿐임. 예를 들면 실무소 위원회에서 병설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정해진 건 아님. 우리는 어디까지나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사무국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검토한 것.
- 실무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형성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한 것과 약간 다름. 상설사무국의 설치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 기능 부분도 실무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실은 없음.
- 연합 설립된 지 5년, 설립 전까지 포함하면 8년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연합 창설 당시 수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순회사무국이 최선이라고 합의했음. 이에 반해 상설사무국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작년 총회 이후 약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로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
- 사무국으로서 연합의 장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

## [강원도]

- 사무국이 특정 자치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 토야마현이 주장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사무국이 제안하고 있는 최종 결론은 대동소이. 회의진행을 봐도 사무국의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 토야마현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
- 상설사무국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함. 실무소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사무국은 각 자치단체에 '귀 자치단체에서 사무국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함. 경상북도도 명백하게 의향이 있다고 했으나 토야마현은 설치할 의향이 있지만 회비제와 같은 부대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했음.

- 따라서 경북과 토야마의 제안에 각각 어떤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는지 정리해서 총회에 제출. 아니면 경북의 설치안과 토야마의 설치안을 바탕으로 사무국을 어떻게 설치할건지 사무국이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해서 보고하는 방법을 제안

[의장]

- 편중된 의사 진행을 한 게 아니라 검토해야 할 내용에 대해 사무국이 각각 구체적으로 충분한 검토, 정리한 후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하바롭스크변경주]

- 경상북도가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으니 실험적인 형태로 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실제 상설사무국을 만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 상설 사무국을 2년간 설치해보자.

[의장]

-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일보 진전된 제안을 해주셨음.

[이시카와현]

- 경북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무국은 싱크탱크적인 역할이라고 이해함. 그 부분은 연합의 하나의 공인 기관적인 성격으로 하고 상설사무국은 좀더 검토할 것을 제안

[의장]

- 연합지원기관으로 인정하자는 의미인가.

[이시카와현]

- 경북이 제안하는 것은 싱크탱크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로 하시고, 상설 사무국은 좀 더 논의 하는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가.

[토야마현]

- 효고총회에서 경상북도 지사님이 상설사무국을 경상북도에 설치하고 싶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 것은 상설기관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상설기관의 방향성을 검토하자는 것이지 경상북도에 병설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안으로 한정해서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었음. 상설기관 설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음.
- 실무소위원회의 결과 순회사무국과 병행하는 형태로 경북에 상설기관을 설치한다는 안이 의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음.
- 사무국에서 토야마현에게 상설기관 설치 의향이 있는지 물었던 것에는 의향이 있다고 회답 하였으나 어떤 형태로 상설기관을 하겠다는 제안까지는 하지 않음.
- 토야마현 이외에도 후보 단체가 있을지도 모르니, 하나의 절차로서 비용 문제도 포함하여 상설기관을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의장]

- 토야마현에서 상설기관의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심. 물론 실무위원회에 결정권한은 없지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함.

[전라북도]

- 의장단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음.
- 우리의 일반적 생각으로는 실무소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하면 그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보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 실무소위원회에 대해 경상북도는 회비제 도입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는 경상북도가 상설사무국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토야마현은 상설사무국은 병설이 아닌 단독 사무국이 되어야 하며 회비부담 문제가 해결된 뒤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자는 것. 이런 논의 내용이 사무국에서 정리되어 오늘에 이른 것인데 지금 사무국은 2개의 안을 제쳐두고 현행 순회사무국 문제점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음. 이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 경북의 안은 상설사무국을 현재 사무국과 병행 설치하고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했고 토야마현은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 해도 성격에 대해 먼저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고 했음. 그리고 이시카와현은 경북이 이야기하는 상설기관을 설치하더라도 싱크탱크적인 기관으로 하고 상설 사무국은 다른 형태를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냈으며 사무국에서는 현행 사무국의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4가지 의견이 나왔음.
- 이 4가지 중 어떤 것을 택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단 현재 경북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방금 러시아 단체와 경남, 강원도도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시켜주기 바람.

[의장]

- 실무소위원회의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무국에서 말씀드리겠음. 토야마현이 사무국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야마현의 의견을 들겠음. 그리고 이시카와현의 발언에 대해서는 현장 규정에서 싱크탱크 기관으로 놓는 연합지원기관이라는 것이 이미 제도로서 정립되어 있는데 그걸로 자리매김해도 좋은지 확인하고자 함.

[사무국]

- 지금까지의 경위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무국으로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음. 실무소위원회에서도 경상북도 안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기록으로도 남아 있음.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좀 더 정리하기로 한 것임. 따라서 사무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여러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나열하는 입장이 아니라 연합에 있어서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지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오늘 보고한 2개 안에 대해 여러가지로 검토했지만 아직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 이러한 상설사무국을 둘러싼 상황을 바탕으로 현행 사무국에 대한 개선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것을 함께 제안드린 것이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무시한 것은 아님.

[이시카와현]

- 상설사무국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여러가지로 개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들여 검토했으면 한다는 말씀에 동의
- 연합을 활성화시키자는 경상북도의 제안도 중요한데 경상북도의 안을 보면 싱크탱크적인 기능을 갖게 한다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걸 연합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 뒤, 상설사무국에 대해 더 검토하자는 것이었음.

[경상북도]

- 순회 사무국 없이 단독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데는 더 많은 반대가 예상됨. 상설사무국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설 사무국이라는 명칭이 필요해짐.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
- 몇 번이고 제자리를 돌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 의견을 하나하나 들었으면 좋겠음. 오늘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

[전라북도]

- 경북이 제안한 안과 토야마, 이시카와, 사무국이 제안한 안을 크게 2개로 나눠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함.

[시마네현]

- 실무소위원회의 논의가 어떠했다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 단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상설사무국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소위원회의 결론이었다는 것. 그걸 전제로 상설사무국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것이 좋을지 논의되길 바랬으나 오늘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먼저 상설사무국을 설치해보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유감스러움.
-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방향성 하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건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무국에서 각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실현 가능한 안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
- 결국 현행 순회 사무국에서 상설사무국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경상북도의 안이라고 생각. 효고현을 중심으로 순회사무국에서 노력을 기울여 오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현행 사무국 제도는 존중하고, 그 위에 연합의 발전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상설사무국에서 담당해가자는 것이 경북의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 시마네현은 경북의 안을 가능한 한 높이 평가하며 지지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연합이 발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역시 전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사무국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 앞으로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한 좋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자 함.

[전라북도]

- 상설사무국 설치 여부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설 사무국의 권한, 체제, 시스템, 역할, 기능 등 자세한 부분에 대해 몇 개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정해도 된다고 생각. 먼저 큰 틀을 정하기를 바람.

[투브아이막]

- 상설사무국은 필요하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부터의 문제라고 생각
- 시간이 아직 좀 더 남아있으므로 경상북도와 토야마현 양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회원단체들에게 제출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차기 하바롭스크 총회에서 결정되기 바람.

[의장]

- 저희들로서는 사무국에서 위임받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 선택지는 아직 이 정도다 라는 것을 준비한 것임. 방금 의견처럼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야마가타현]

- 상설사무국 설치가 결론이었다는 이야기와 그 외 사무국에서 이번에 제안한 것처럼 현행 사무국을 개선하는 이야기가 연결이 안됨.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 실무소위원회에서는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해 경상북도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함. 단 사무국에서 상기 안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지휘계통에 대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한 안을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 실무소위원회의 결론
- 사무국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단계에서는 아직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 따라서 상설사무국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순회사무국에 대해서도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여 제안드린 것.

[야마가타현]

- 상설사무국 설치, 사무국이 제안한 현행 제도 개선 이렇게 2가지 제안을 하는 것인 줄 알았음.

[의장]

-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시마네현에서 지금 각 단체에서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으니 상설사무국을 설

치하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뜻이라고 이해해도 괜찮겠는가?

[야마가타현]

- 논의의 방향에 대해 이해했음.

[이시카와현]

- 알겠음.

[의장]

- 방금 시마네현의 의견도 있었듯이 상설사무국은 필요하며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좀 더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라 생각해도 되겠는가?

[사할린주]

- 물론임. 시마네현에서 매우 잘 정리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장]

- 아까 의사 진행을 위해 토야마현의 발언을 뒤로 미루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립니다.

[토야마현]

- 상설사무국은 연합의 기관이며 각 자치단체도 각자의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토야마현으로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싶으며 경북도 그러한 의사를 밝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사를 밝힐 수도 있음. 그래서 토야마현은 상설사무국을 할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상설기관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설치한다는 것이 정해지면 상설기관 설치에 관해 토야마현의 제안을 말씀드리고 기타 상설기관 설치 의향이 있는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한 것임.

[의장]

- 상설기관의 설치의향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는 것, 토야마현도 상설사무국을 맡을 용의가 있으며 검토할 생각이라는 이야기였음.
- 오늘 모든 회원단체가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상설사무국 설치의향에 대해 지금 여기서 재차 확인해두고 싶음. 다른 회원단체들 중에서 의향이 있으신 분은 계시는지?

[전라북도]

- 의장에게 한 번 더 의사진행에 대해 지적하고 싶음.
- 여러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지 않고 아까부터 계속 의견만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늦추는 인상을 받음.
- 토야마현에서도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싶으며 경비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심. 그리고 경북은 이미 계획서까지 갖고 왔음. 따라서 오늘 실무위원회에서는 연합의 상설사무

국을 두기로 결정하고 회비제가 정착될 때까지 모든 경비를 부담할 각오가 있는 자치단체가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사무국에 상설사무국 설치를 신청하고 그걸 하바롭스크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어떻겠나?

[의장]

- 사무국 및 의장은 절대 의사를 늦추려는 것이 아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이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 실무위원회는 검토하는 기관이며 연합의 근간에 관련 되는 것, 현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음.
- 시마네현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상설사무국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검토해 가면서 극복할 수 있다. 근본적인 흐름상으로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이지요'라고 확인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려는 것이며 논의를 중지시키거나 뒤집을 의사는 없음.
- 지금 (경북과 토야마현 외에) 상설사무국 설치를 따로 희망하는 곳이 없고 회의 흐름상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쪽인데 아직 하바롭스크 총회까지 시간이 좀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설 사무국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경북과 토야마현, 그리고 차기 의장단체인 하바롭스크 변경주, 사무국을 맡고 있는 효고현 이렇게 4자가 심도깊은 검토를 하여 하바롭스크 총회에 의제로 낼 수 있게 조정하려 하는데 어떠하신가?

[전라북도]

- 실무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도 않고 끝내려 하시는데 결정을 안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결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람.

[의장]

- 실무소위원회의 논의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바롭스크 총회에 안을 제출하도록 조정하자는 것이었음.
-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설사무국 설치를 희망하지 않으므로 경북과 토야마, 하바롭스크 변경주, 효고현이 조정하여 상설사무국의 방향성을 총회에 제안하는 제안 내용을 조정하자는 것을 확인하고자 함.

[전라북도]

- 준비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준비를 해서 하바롭스크 총회에 보고한다는 것인지.

[의장]

- 준비를 해서 하바롭스크 총회에 보고한다는 것.

[전라북도]

- 오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경북, 토야마, 하바롭스크변경주, 효고현의 4자가 논의하여 모든 논의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여 만든 안을 총회에 제출한다는 말씀인가?

[의장]

- 바로 그 말임.

[경상남도]

- 방금 말씀하신 4개 단체만이 내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다른 단체가 논의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 어디의 제안을 어떤 단체가 지지했다거나 실무적으로 어떤 제안이 나왔다는 것까지 전부 정리해서 하바롭스크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의장]

- 토야마현, 경상북도가 설치 의향을 밝혔으며 오늘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 그러나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아서 설치 방법에 관한 논의까지는 못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부터 정리하여 극복하면서 진전시킨다는 것.
- 그래서 상설사무국 설치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설치할지, 설치장소를 포함해서 차기 총회에 의제로 내는 식으로 준비한다는 것. 결정은 총회에서 하며 4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단 차기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 오늘의 총괄적인 정리로 삼고자 함.

[경상북도]

- 상설사무국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짐. 경북과 토야마현이 제안을 냈는데 양자간에 의견차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림. 의장이 말한 대로 4개 단체가 논의해서 단일안을 내는 것이라면 하나로 합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각의 제안을 차기 하바롭스크 총회에 상정하여 거기서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총괄 정리 속에 포함시켜주기 바람.

[의장]

- 그러한 식으로 하바롭스크 총회에 상정하고자 함.

[토야마현]

- 토야마현은 상설기관을 만들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하바롭스크 총회까지 안을 만들자는 것으로 인식함.
- 토야마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비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토야마현이 상설사무국을 맡을 경우 경비부담을 할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언급하지 않고 실무소위원회나 실무위원회서 논의를 해옴.
- 토야마현은 오늘 이 자리가 상설기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지 경북의 제안을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취지는 아니라 생각하여 계속 여러분들과 심도 깊게 논의하려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따라서 이번에 상설기관을 만들자는 합의는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므로 토야마현도 경비부담 문제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상설기관을 설치하고자 함. 그리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싶으며 경북과 논의했으면 함.

**[흑룡강성]**

- 향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결론이 안날 것 같으니 오늘 본 위원회의 중요한 토론 주제로서 이번 회의에서 경북과 토야마현 이 2곳이 상설사무국을 만들겠다는 의향을 발표했고 내년 9월 하바롭스크 총회에 꼭 제출한다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람.

**[의장]**

-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 그리고 9월 총회를 위해 경북, 토야마현이 상설 사무국 설치를 희망 한다는 것을 다음 하바롭스크 총회에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 보고사항 2 - 2002년 총회 개최 개요에 대해

**[하바롭스크변경주]**

- 북한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됨.
- 하바롭스크 총회는 비행일정을 고려하여 화요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 첫날은 본회의와 리셉션, 둘째날은 본회의와 관광
- 재정면에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검토한 분담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을 해 봄. 총 1만 7,500 달러가 분담대상 총액이며 이중 7,800달러가 회의자료 준비, 9,700달러가 회의운영비, 방금 여러분들과 검토한 방법에 따라 이를 분할하면 250달러가 됨. 극동 자바이칼협회가 차기 총회 준비에 많은 협력을 해주고 있음.

**[경상북도]**

- 250달러는 35개 단체 모두가 참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해진 숫자. 참가하는 자치단체만 분담하기로 되었으므로 20개 단체 밖에 참가 안했을 경우 금액이 변동되므로 내년쯤 참가자 숫자를 보고 1인당 금액을 다시 정해주시기 바람.
- 지난번 총회와 올해 2월 실무소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차기 총회시 북한을 반드시 참가 시켜야 한다는데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경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부탁

**[사무국]**

- 첫번째, 분담금은 협의시에도 설명드렸지만 산출액수, 계산방법의 간편성, 간단히 금액을 산출하여 빠른 시일내에 확정시키자는 것으로서 계산상으로 연합의 회원단체 35개로 비례 배분 하지만 실제 부담은 참가하는 자치단체만 하기로 함. 예를 들면 25개 단체만 올 경우 그 차액은 개최지의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로 가능한 한 많은 자치단체들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개최지도 적극적으로 참가요청을 해 달라는 시스템
-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시마네현도 현의 방문단이 북한을 갔을 때 참

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셨다고 함. 이 부분은 시마네 현에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는지.

[시마네현]

- 5월에 시마네현이 북한에 방문단을 보냈는데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의 위원장에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 대해 설명하고 하바롭스크 변경주에서 2002년에 총회가 열리니 반드시 참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가능한 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왔음.

[의장]

- 본 회의시간을 16시까지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연장시키고 있는데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 남은 시간으로 회의의 총괄을 하고자 함. 회의록은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각 자치단체에 보고서를 보내겠음.

○ 의장총괄

[의장]

- 예상외로 장시간을 요하는 바람에 예상 통역시간을 넘어버렸으므로 의장 총괄을 짧게 보고 하겠음.

[사무국]

- (읽음)

단, 5번은 이하의 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했다.

5. 상설사무국의 설치 등, 사무국의 방향성에 대해 연합의 합리적·효과적인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의 방향성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조직으로서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① 사무국의 기능, ② 지휘명령계통, ③ 사무국운영경비 등, 그리고 검토 및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상설사무국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기능 등 설치 형태를 포함해 더욱 검토하기로 하고 2002년 9월의 하바롭스크 총회에 구체적인 제안을하기로 합의했다.

[의장]

별도로 회의록도 만들겠으니 부족한 부분은 회의록과 함께 활용해 주시기 바람.

[경상북도]

- 5번의 상설사무국 설치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한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음. 먼저 효고현이 아직 문제가 있다, 연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이런 합의문을 만든 것 같음. 방금 의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먼저 상설사무국의 설치에 전원이 합의함.
- 두번째로 경상북도의 상설사무국 설치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가 찬성했다. 그리고 토야마현도 설립 의사를 표명했다. 세번째로 상설사무국 기능과 설치형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토야마현, 효고현, 하바롭스크 4개 자치 단체가 합의 사항을 만들어 그 사항을 하바롭스크 총

회에 제출한다. 네번째로는 4개 단체의 논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각각의 의견을 하바롭스크 총회에 상정하자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좀 더 논의를 한 후 총괄안을 정리하기 바람.

[의장]

-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것, 하바롭스크 총회에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시간이 한정되어서 지금 의장총괄로써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일치했음. 이에 대해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바롭스크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경상북도, 토야마현, 의장단체인 효고현, 차기의장단체인 하바롭스크변경주 4자가 더욱 조정해서 보고하도록 준비를 진행시켜 간다는 것.

[경상북도]

- 의장총괄은 회의의 결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도 반영되고 있지 않음. 말씀하신 4개 자치단체의 논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상설사무국 설치하는 연기되는 것. 따라서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경상북도와 토야마현의 안을 하바롭스크 총회에 제출한다고 의장이 말씀하지 않으셨나.

[의장]

-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방향에 동의함.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하바롭스크 총회에 상정할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말

[사할린주]

- 의장에 대한 태도로서 방금 경북이 말씀하신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 이 의장총괄에는 제대로 적혀있음. 그리고 하바롭스크 총회 시 제출할 제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음. 혹시 의견통일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논의를 완결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부산광역시]

- 5번째 항목에 방금 논의한 결과는 없음. 상설사무국 설치에는 합의를 봤고 경상북도와 토야마현이 사무국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남겨둔다면 되지 않겠는가.

[의장]

- 시간상 오늘은 상세하게 기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오늘 사할린주, 부산광역시의 말씀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와 토야마현이 상설사무국 설치 희망을 표명했다고 덧붙이겠음.

[경상남도]

-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아무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회의결과가 이런식으로 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음. 방금 경상북도가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서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다시 적어주시기 바람.

[의장]

-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듯이 첫번째는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합의됨. 그리고 경상북도, 토야마현, 효고현, 하바롭스크변경주가 조정한다는 것은 썩여있지 않지만 의사록에는 나옴. 2002년 9월 하바롭스크 총회에 제안한다는 것으로 이 두가지는 포함되어 있음.
- 거기에 부산에서 제안한 경상북도, 토야마현이 상설사무국의 설치 희망을 표명했다는 것을 부가하기로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경상남도]

- 충분하려면 명문화 되어야 함. 합의안을 만들기로 하고 그게 안될때는 2개 자치단체의 안을 그대로 하바롭스크 총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하기로 아까 합의하지 않았는가. 문안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달라.

[전라북도]

- 시간도 없으니 기존 사무국과 상설을 희망하는 경상북도와 토야마현 2자가 모여서 의견을 집약하고 그걸 본 회의에 보고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람.

[토야마현]

- 수정은 의장에게 부탁드립니다. 두번째줄의 ‘국제조직으로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에서 먼저 끊고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토야마현이 상설사무국 설치 의향을 밝혔다. 그리고 경상북도 및 효고현, 의장인 효고현, 부의장인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진행시키기로 했다는 삽입. 마지막에 2002년 9월에 하바롭스크 총회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을 내게 될테고 경상북도가 말씀하신 대로 안이 안나올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여기에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
- 따라서 토야마현 및 경상북도에서 손을 들었고 하바롭스크 총회를 위해 의장, 부의장(차기 의장단체)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2002년 하바롭스크 총회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고치는 것이 어떻겠나.

[의장]

- 같은 이야기라 생각. 빠진 것은 첫번째로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 두번째로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진 않지만 상설사무국 설치를 위해 경상북도, 토야마현, 하바롭스크변경주, 효고현이 조정하여 2002년 9월에 하바롭스크 총회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는 것, 세번째로 이걸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지만 경상북도와 토야마현이 상설 사무국의 설치 희망을 표명했다는 것. 이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 일본의 토야마현, 그리고 한국의 경상북도가 자신들의 의향을 표명했고 상설사무국을 자기 지역에 설치해서 회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비용을 자기 부담으로 한다고 한 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

[의장]

- 경비부담 문제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면 사무국에서 한 번 더 지금 부분을 설명하겠음.

[사무국]

- 그럼 재정리 하겠음.
- 첫번째는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 두번째는 경상북도 및 토야마현에서 상설사무국 설치 의향을 제시했음, 세번째는 경상북도, 토야마현, 하바롭스크변경주, 효고현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그리고 검토 결과를 갖고 2002년 9월 하바롭스크 총회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합의함. '구체적인 제안'이란 '어떠한 형태로 제안을 하는 것'이며 하나의 안으로 좁힐 경우, 2개의 안이 있을 경우는 쌍방의 제안을 포함한 형태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이 세가지가 여러분들의 일치점이라고 생각함.

[의장]

- 이 요소들을 넣어서 가능한 조속히 수정하여 참가 기간 중에 드리도록 하겠음.

[하바롭스크변경주]

- 경상북도와 토야마현이 재정문제, 회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비로 상설 사무국을 운영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추가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자치단체가 상설사무국 설치를 희망하는 제안을 새로 낼 가능성이 있음.

[의장]

- 알겠음.

[경상북도]

- 경상북도의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찬성을 표명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음. 따라서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그대로 살려주기 바람.
- 4개 자치단체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각각의 희망을 보고사항에 넣는다는 것도 기재해 주기 바람. 4개 단체가 의견을 조정하므로 반드시 의견 일치를 본다고는 할 수 없음.

[강원도]

- 시간을 이대로 보내지 말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끼리 지금 한 번 더 조정 기회를 갖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다른 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가.

[의장]

- 그 발언은 (오늘 회의의) 총괄에 관한 것인가?

[강원도]

- 5번 항목에 관한 것.

[의장]

- 논의한 것은 회의록에 꼼꼼히 남길테니 가능한 한 요점만 일단 합의했으면 함.

[강원도]

- 경상북도와 토야마현, 그리고 다른 여러 단체에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 단 수정내용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그 부분은 의논해서 함께 작성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함.

[의장]

- 통역 계약 시간을 1시간 넘기고 있음. 문언상 수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관한 표현 문제 이므로 가능하면 5번 부분의 문언 수정은 이번 회의가 끝난 후에 한번 더 토야마현, 경상북도, 하바롭스크변경주, 효고현에서 조정하는 것이 어떨겠나.

[전라북도]

- 지금 의장의 말씀은 4개 단체가 조정한다는 제안. 그러나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리는 형태로 해야한다고 생각

[경상남도]

- 통역이 없어도 각 자치단체끼리 간단히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 회의라는 것은 결론이 필요함. 자꾸 반복해도 끝이 없으므로 여기서 5분 정도 쉬고 문안을 작성하여 회의 결과로 하는 것을 제안함.

[토야마현]

- 경상북도의 병설안에 대해 회의 중에 찬성을 표시한 자치단체가 있었다는 것은 회의 흐름상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토야마현은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님. 토야마현은 상설기관을 맡을 의향과 회비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토야마현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의향표명을 분명히 함. 따라서 지금부터 경상북도처럼 구체적인 제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는 단계인데 경상북도의 안 하나에 찬성이 표명되었다는 것이 의장 총괄에 들어간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

[경상남도]

- 사무국은 설문조사를 하고 우리들은 상설사무국에 관해 엄청나게 준비해서 진지한 입장에서 임했음.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진지하게 제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하며 다른 단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아닌가.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도 충분히 검토해 온 것을 뒤집는 발언을 하시면 지금까지 토의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의장]

- 이 이상 논의를 계속해도 결론이 안날테니 의장으로서 판단하겠음.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사무국이 항목을 확인하겠으며 우리가 느끼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에서 미묘한 톤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은 회의 종료 후에 의논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음. 그럼 사무국에서 방금 총괄문의 5번 요소에 대해 구두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음.

[사무국]

-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의 방향성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조직으로서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및 일본국 토야마현에서 회비제가 도입될 때까지 경비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상설사무국을 설치 희망을 표명했다. 사무국의 기능과 설치 형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토야마현, 하바롭스크 변경주, 효고현에서 더욱 검토하기로 하고 2002년 9월 하바롭스크 총회에 구체적인 제안을하기로 합의했다. 이상.

[의장]

- 논의한 요소는 들어있다고 생각하며 미묘한 표현은 뒤에 좀 더 조정하고자 함.

[경상북도]

- 이의 있음. 문안을 수정해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리해서 전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고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기를 요청

[의장]

- 의장총괄은 회의록이 아니라 일단 정리하는 것. 협의의 완전한 내용은 회의록에 남음. 그리고 경북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사할린주와 부산광역시에서도 말씀을 하셨음. 논의한 요소가 들어있고 나중에 미묘한 표현상의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조정한다는 것.

[경상북도]

- 문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결론을 내길 바람. 의장의 직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님. 다른 단체에서 나온 이야기만 반영시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편중된 느낌이 듬.

[의장]

- 한 번 더 포함시킨 요소를 사무국에서 말씀드리겠음. 이것은 의장의 메모이므로 한 번 더 구두로 말씀드리겠음.

[사무국]

-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고 경상북도 및 토야마현에서 회비제가 도입되기까지 경비부담을 전제로 상설사무국 설치 희망을 표명함, 그리고 사무국의 설치형태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토야마현, 하바롭스크 변경주, 효고현에서 더욱 검토하며 2002년 9월 하바롭스크 총회에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이상 4가지임.

[의장]

- 경상북도에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함.

[경상북도]

- 경상북도의 상설사무국 제안에 대해 다른 단체에서 찬성했다는 것이 안들어가 있음. 그리고 4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을 상정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렸음.

[의장]

-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문제는 두 이야기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를 병기한다는 것이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인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인가.

[부산광역시]

- 경상북도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째서 그렇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이건 원래 그렇게 상세한 것을 써넣는 문서가 아님. 그런 것은 회의록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 이걸 총회에서 철저히 제시되기로 했음.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면 참가자들 중에서도 공연히 이론이 날뿐임. 오늘 사무국의 결론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이만 회의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

[의장]

- 그럼 이걸로 일단 회의를 마치겠으며 부산시에서도 제안이 있었듯 우리는 별도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함.

[전라북도]

- 부산시 대표의 말씀도 일리 있고 경북 대표 말씀도 일리 있음. 그러나 명약관화하게 문제점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함. 경상북도와 토야마현이 앞으로 상설사무국의 설치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경우 2개의 안을 총회에 상정한다는 부분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

[의장]

- 2개의 안을 (의장총괄에) 넣을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일절 합의하지 않았음. 단지 2개의 안이 있고 2개의 설치 희망이 있어서 그것을 경상북도, 토야마현, 하바롭스크 변경주, 효고현에서 조정하여 기본적으로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상설사무국 안을 이 4자가 9월 총회를 위해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간다, 이것이 전부. 이 이상 연장하

는 것은 우리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의장 책임으로 방금 정리한 것으로 이만 종료 하겠음.

#### ○ 제3회 실무위원회 의장총괄

2001년 8월 28일 일본 효고현 아와지 유메부타이 국제회의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 자치단체의 실무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의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은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제조직으로서 설립된지 5년째를 맞이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자치단체간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이 더욱 내실있는 활동을 도모하며 동북아시아의 공동된 과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제3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 2000>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한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함과 동시에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활동과 2002년 하바롭스크 총회의 개최개요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참석 자치단체간 합의 사항 및 보고 내용을 의장총괄로 정리한다.

#### 1.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각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이 활동보고가 이루어졌다.

##### (1) 경제·통상분과위원회

1998년 및 1999년에 개최된 2회의 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의 개최상황과 제3회 동북아비즈니스 촉진회의를 2002년 4월 경상북도에서 개최함과 동시에 전자무역추진을 위한 정보센터의 구축과 연합회원간의 통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 (2) 문화교류분과위원회

2001년 11월에 제1회 문화교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자치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제안 등 의견을 모으면서 문화교류분야의 공동사업 실시에 대해 검토한다.

##### (3) 환경분과위원회

2000년에 개최된 제2회 환경분과위원회 개최상황과 2001년 7월 12일의 제3회 환경분과 위원회에서 2000년의 개별 프로젝트의 실시결과와 함께 2001년 개별프로젝트의 제안과 실시상황에 대해서 협의했다.

##### (4) 방재분과위원회

회원자치단체의 방재체제, 시책 등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효고현이 실시한 「재

해대책 국제종합검증사업」의 보고서를 모든 회원자치 단체에 송부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향후 효고현의 고베 동부 신도심에서 2002년 봄에 오픈할 예정인 한신·아와지 대지진 메모리 얼센터(가칭)와 아시아 방재센터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5) 일반교류분과위원회

2000년에 개최된 제2회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개최상황과 2001년 7월 12일에 개최된 제3회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교류를 지탱할 인재육성사업으로서 「NEAR인재육성 액션프로그램」이 합의됨과 동시에 금년 10월 27일~29일에 토야마현에서 개최되는 동북아여성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참가 및 조사연구기관의 연계강화에 대해 합의했다.

2. 회의개최경비의 일부분담제에 대해서

회의개최경비의 부분적인 분담제를 실현함으로써 각국 각 자치단체에서의 회의 개최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향후 연합의 재정기반강화 및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개최경비 일부를 회의 참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하여 차기총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3. 특정사업에 대한 연합의 인정에 대해서

국제박람회 등 사업화 촉진과 개최자치단체의 성공 및 역내외의 교류촉진을 기하며 공동의 과제해결이라는 연합의 목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합회원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연합인정제도를 창설하는데 합의하고 차기 총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4. 개별사업에 대한 연합의 후원에 대해서

동북아지역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연합회원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연합이 후원하는 제도창설에 대해서 합의하고 「후원명의 사용승인에 관한 요강」을 제정했다.

5. 상설사무국 설치 등 사무국에 대해서

연합의 합리적, 효과적인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 체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국제조직으로서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협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토야마현으로부터 회비제가 도입될 때까지 경비부담을 전제로 상설사무국 설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표명이 있었다.

또한 사무국의 기능 등 설치형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토야마, 하바롭스크 변경주, 효고현이 더 검토·조정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 9월 하바롭스크 총회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6.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4회 총회에 대해서

2002년에 러시아 연방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 제4회 총회의 일정, 장소 등 개최개요를 하바롭스크변경주가 보고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실무위원회의 의장총괄로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작성한다.

라. 제4회 실무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 2002년 9월,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개최한 동북아연합 제4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헤이룽지양성(黑龍江省)에서 제4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회원자치단체간의 연락 및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등 제5회 총회 준비

(2) 회의개요

- (가) 기 간 : 2004년 1월 12일 ~ 15일
- (나) 장 소 : 중국 헤이룽지양성 하얼빈시
- (다) 주 최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중국 헤이룽지양성 인민정부
- (라) 참가회원단체 : 5개국 24개 자치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4	헤이룽지양성, 허난성, 닝시야후에이쭈 자치구, 산둥성
일본	9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한국	8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러시아	3	하바롭스크변경주, 캄차카주, 치타주

(마) 주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

(바) 회의시간계획표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1월 12일 (월)	17:00	환영만찬
1월 13일 (화)	09:00	회의개막 참석자 소개 헤이룽지양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주임 축사
	09:00 ~ 10:00	의제 1)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한 전문위원회 회의 보고 (1) 상설 사무국 설치에 관한 제안 (경상북도) (2) 상설 사무국 설치에 관한 제안 (효고현) (3) 적당히 성숙한 시기에 상설 사무국 설치(산둥성)
	10:00 ~ 10:10	의제 2) 회원단체 자격 재확인에 관해 (헤이룽지양성 순회 사무국)
	10:10 ~ 10:30	의제 3) 연합 회장 제정 방안(토야마현, 헤이룽지양성)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10:30 ~ 10:40	휴식
	10:40 ~ 11:30	의제 4) 각 회원자치단체의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헤이룽지양성 순회 사무국)
	12:00 ~ 13:30	오찬
	14:00 ~ 14:30	의제 5) 회원단체간 인재교류 방안
	14:30 ~ 15:30	의제 6) 회원단체간 경제, 무역, 환경보호 등에 관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 (1) 협력 교류 확대 공동번영 실현(헤이룽지양성) (2) 경제, 환경 보호 분야 교류, 협력의 추진(토야마현) (3) 변경지역간 협력(하바롭스크변경주) (4) 산동반도 제조업기지 홍보, 2004년 제2회 동북아 경제포럼 및 친환 경산업박람회 홍보(산동성) (5) 동북아기업 EXPO 개최(경상북도) (6) '2004 한국 국제기계 EXPO' 참가 제안(경상남도) (7) 철도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협력(강원도)
	15:30 ~ 15:40	휴식
	15:40 ~ 16:20	의제 7) 연합 차기 순회 사무국 문제에 관한 의제 (헤이룽지양성 순회 사무국)
	16:20 ~ 16:30	휴식
	16:50	회의 총정리
	17:00	회의 종료

(3) 회의내용 총괄

(가) 개회선언 (헤이룽지양성 외사판공실 주임)

(나) 축사 (헤이룽지양성 외사판공실 주임)

(다) 주요활동 경과보고

○ 각 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 2003년 10월, 제5차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환경백서 소개, 개별 프로젝트 실시 상황 보고
-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 2003년 10월, 제5차 일반교류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동북아지역 여성회의 개최 제안

- 동북아시아 어린이, 청소년 상호 교류행사 개최 제안
  -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
    - 2003년 10월, 제5차 방재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방재분과위원회 활동상황 소개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한국 경상북도)
    - 2002년과 2003년에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
    - '동북아 경제통상 네트워크' 구축 설명 등
- 제안 및 토의
- 경상북도 : 상설 사무국 설치 제안
  - 효고현 : 연합 회원자치단체의 신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 토야마현, 헤이룽지양성 : 연합 회장 제정 제안
  - 토야마현 : 연합 회원간 인재교류 강화 제안
  - 토야마현 등 : 연합 회원간 경제, 환경보호 등의 교류와 협력 강화
  - 헤이룽지양성 : 연합 차기 의장단체 신청 제안
- 제안사항에 대한 종합정리
- 상설사무국 설치 제안, 순회사무국에서 각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제5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
  - 연합 회원자치단체의 신분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 연합현장을 지지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동북아시아의 모든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인정할 것에 동의
  - 연합회장 제정에 관한 제안. 연합회장 제정 제안에 찬성하고 이를 제5회 총회에 상정하여 연합회원간 인재교류 강화 제안. 회의참석 대표들은 인재교류가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와 공동 발전에 유리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연합회원간 경제, 환경보호 등의 교류와 협력 강화. 회의참석 대표들은 경제, 환경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제시
  - 연합의 차기 의장단체 신청 제안.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신청을 받고, 회의가 끝나고 순회사무국에서 회원단체의 의견을 조사해서 제5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 제4회 실무위원회 합의문

2004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헤이룽지양성 하얼빈시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제4회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24개 회원자치단체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의 참석 대표들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평등, 우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 공동의 관심사인 경제, 무역, 환경보호 및 연합 상설사무국 설치 등의 의제에 대해서 토론했으며 많은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밖에, 각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 대표들이 분과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아울러, 2002년 9월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개최한 연합 제4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국 하이룽지양성, 일본 효고현, 토야마현, 한국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등 6개 자치단체 대표가 2004년 1월 12일 중국 하이룽지양성 하얼뻬시에서 상설사무국 문제에 관한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6개 자치단체 대표는 연합 상설사무국의 설치, 기능, 임기 등에 관해서 토론을 실시했다.

제4회 실무위원회 회의의 토론사항 및 합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한 안건

연합 순회 사무국은 제4회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설사무국 문제에 관한 전문위원회 회의 토론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의 경상북도는 회의에서 재차 경상북도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일본 효고현은 연합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상설사무국의 기능, 임기 등에 관해서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시, 연합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차기 상설사무국을 맡을 회원 단체를 선출하며, 임기는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

한국의 경상북도는 연임제 실시에 동의하는 한편 6년을 임기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각 자치단체 대표는 이상 두 단체의 제안에 관해 토론을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상설사무국의 기능, 임기, 설치장소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지만, 상설사무국의 기능에 있어서는 순회 사무국에서 경상북도와 효고현의 제안을 기초로 하여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사무국 기능 관련 제안을 내놓고, 이를 각 회원자치단체에 발송하여 각 단체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그 결과는 9월에 개최되는 제5회 총회에서 보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 2. 회원자치단체의 신분을 명확히 하는 안건

효고현 대표가 연합 회원자치단체의 인정 방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연합은 연합 현장을 지지하고 연합 총회에 참석하는 동북아시아의 모든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간주한다. 단, 각국의 상황에 근거하여 개별 회원자치단체의 호칭은 다를 수 있다. 회의 참석 대표들은 이를 인정했다.

### 3. 연합회장 제정에 관한 안건

일본 토야마현과 중국 하이룽지양성이 공동으로 연합회장 제정에 관한 제안을 내놓고 제안에

대해서 설명. 회의참석 대표들은 이 제안에 관해서 토론 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 제안을 9월에 개최되는 제5회 총회에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통과시킬 것에 동의했다.

#### 4.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1) 환경분과위원회

연합의 환경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인 일본 토야마현은 2003년 10월 토야마현에서 제5차 환경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 상황을 보고, 일본, 중국, 몽골, 한국 등 4개국 14개 자치단체가 참석하여 토야마현이 다시 한 번 환경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에 당선됐으며 임기는 2005년 7월까지이고 그밖에 환경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소개

- 환경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 (참가단체 : 일본, 러시아의 자치단체)
-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세미나 개최 (참가단체 :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의 자치단체)
- 동해, 황해 연안의 표류물에 관한 조사 실시 (참가단체 :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의 자치단체)
- 동북아시아의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 실시 (참가단체 : 일본, 한국, 러시아의 자치단체)

회의 참석대표들은 향후 활동 방침 및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했다. 그밖에 토야마현에서 제작한 2003 환일본해(환동해) 환경 백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 (2)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연합의 일반교류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인 일본 토야마현은 2003년 10월 토야마현에서 개최한 '제5차 일반교류분과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 회의에는 총 5개국 16개 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회의참석 대표들은 토야마현이 제정한 동북아연합 인재양성 강화에 관한 '인재양성 행동계획'에 관해서 토론했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안

- 동북아시아 여성회의 개최
- 동북아시아 어린이, 청소년 상호 교류행사 개최

##### (3) 방재분과위원회

연합의 방재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인 일본 효고현은 2003년 10월 효고현에서 개최한 '제5차 방재분과위원회 회의' 상황을 보고. 회의는 총 3개국 11개 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

- 방재대책 체제 및 정보교류에 관한 의향조사 실시
- 한신 대지진의 교훈과 경험 소개
- 2002년 7월, 효고현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의 12개 자치단체가 참석한 방재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회의참석 대표들은 방재 관련 정보에 관해서 교류를 실시하고 앞으로의 활동방침 및 활동내용을 제시
  - 동북아시아의 방재 정보 수집 및 발표
  - 효고현을 방문한 동북아시아 각 자치단체 시찰단에게 효고현을 소개하고 효고현에서 실시

하는 방재 대책에 관한 연수 실시

4)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인 한국의 경상북도는 2002년과 2003년에 개최한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 상황을 보고했다.

2002년 5월, 5개국 18개 회원단체가 참석한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의 주요 토론 의제는 다음과 같다.

- ‘동북아 기업 EXPO’ 개최에 관한 제안. 연합 제6회 총회개최 기간에 ‘동북아 기업 EXPO’를 개최하여 회원자치단체간 경제교류를 강화할 것을 제안
- ‘동북아 경제통상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제안
 

2003년 5개국 18개 회원단체가 참석한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기업간 교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제 제안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 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 회원 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 제안
  - ‘동북아 경제 통상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단체간의 교류를 더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더 풍부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에 관한 토론 실시
  - 회의 참석 대표들은 각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가 분과위 활동을 위해 많은 유익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에 동의했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가 연합 회원간의 교류와 협력 확대와 연합의 발전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의견을 같이 했다.

5. 연합 회원간 인재교류 강화에 관한 의제

회의 참석 대표들은 연합 회원단체간 인재교류 강화에 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인재교류가 동북아시아 각 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6. 연합 각 회원단체간 경제, 무역, 환경보호 등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한 의제

경제, 무역,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본 회의의 핵심 사안이며 연합의 취지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회의 참석 대표들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간의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일본 토야마현의 대표가 동북아시아지역의 무역 및 투자교류 강화를 주제로, 본 현의 환동해 무역교류센터에서 개최한 행사를 소개했다.
  - 동북아시아지역의 무역동향, 투자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
  - 동북아시아지역 기업이 참가하는 전시 및 상담회 개최
  -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제품 전시회에 현 내 기업의 참가 지원
- 중국 흑룡강성 대표가 ‘협력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공동번영을 실현하자’는 주제의 보고 발

표, 회의참석 대표들에게 본 성(省)의 경제 발전 및 투자유치에 있어서의 장점을 소개하고 중국에서 실시하는 '동북지역 노공업(老工業)기지 진흥 전략' 이 본 성에 발전기회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외국의 투자자 및 기업에게도 무한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임을 강조, 아울러 동북아시아 각국의 경제계, 기업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을 희망

-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의 대표가 변경지역 협력 강화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이 변경협력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의하고 이 분과위의 코디네이터를 담당할 것을 희망. 또한 이번 회기 순회 사무국이 변경협력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의제를 9월에 개최되는 연합 제5회 총회에 상정할 것을 희망
- 한국 경상남도 대표가 '2004 한국 국제 기계 EXPO' 초청장을 제출하고 연합 회원자치단체 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단체간의 경제 교류를 강화할 것을 요청
- 중국 산둥성 대표가 산둥반도 제조업 기지를 소개. 또, 2004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2004 제2회 동북아경제포럼' 과 2004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개최하는 '산둥성 생태성 건설 고위급 포럼 및 친환경 산업 박람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회원단체 대표단의 참석을 요청했다.
- 한국 강원도 대표가 한국의 최남단에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국, 러시아를 지나 유럽에 직접 닿을 수 있는 횡단철도를 구축하여 주변 도시의 물류와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각 지역경제 발전을 가속화하자고 제안
- 한국 전라북도 대표가 2007년에 개최하는 '세계 물류 EXPO'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연합 회원단체의 공동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희망
- 한국 경상북도 대표가 연합 제6회 총회 개최 시 의장단체가 '동북아 기업 EXPO' 를 동시에 개최하자고 제안. 이에 대해 일본 효고현, 토야마현에서 우선 연합 제6차 순회 사무국 소재지(연합 제6차 의장단체)를 결정한 다음에 이 제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자는 의견 제출  
회의참석 대표들은 각 회원단체가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각 행사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각 국가 및 지역의 경제무역의 연계가 날로 긴밀해짐에 따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간 경제, 무역,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강화가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에 유익하고 각 지역의 공동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7. 연합 차기 순회 사무국 관련 안건

연합의 이번 회기 순회 사무국인 헤이룽지양성이 회의참석 자치단체 대표들에게 순회 사무국 후보 신청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이에 한국 부산광역시도 연합의 차기 순회 사무국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의에서는 본 회기 연합 사무국에서 회의가 끝난 후, 후보 자치단체를 제안하는

것에 관해서 연합의 각 회원단체의 의견을 조사한 다음 9월 총회에 상정하여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8.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5회 총회 관련 안건**

연합의 이번 회기 사무국은 회의 참여 자치단체의 회원자치단체장이 2004년 9월 중국 헤이룽강성 하얼빈시에서 개최하는 제5회 연합 총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회의 준비 과정에서 각 회원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줄 것을 희망

이상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4회 실무위원회 회의 합의문이며, 본 합의문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조선어),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연합의 모든 회원자치단체에게 발송한다.

**(4) 행사성과 및 과제**

**(가) 주요성과**

공동 관심사인 경제, 무역, 환경 및 상설사무국 설치, 연합회장 제정 등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룸.

**(나) 과제**

연합상설사무국 설치, 연합회장 제정, 차기 의장단체 선출 등을 제5회 총회에 상정하여 논의 할 예정

**마. 제 5회 실무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5회 실무위원회는 2004년 9월 중국 흑룡강성에서 개최된 제5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새로운 의장자치단체로 선임된 부산광역시가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의 각종 현안을 실무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정으로 소집하여 개최. 이번 실무위에서는 5개국 20개의 회원 단체를 비롯,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러시아 톰스크주가 옵서버로 참가

**(2) 회의개요**

- 가) 기 간 : 2005.11.30 (수) 09:00~12:00
- 나) 장 소 : 부산시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 다) 주 최 : 대한민국 부산시
- 라) 참 가 : 5개국 20개 자치단체 58명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계	20	5개국 20개 자치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3	흑룡강성, 하남성, 산둥성
일본	3	토야마현, 효고현, 시마네현
러시아	5	아무르주, 브랴티아공화국,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주, 하바롭스크변경주
한국	8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몽골	1	투브아이막

읍서버 : 한국 대구광역시, 러시아 톰스크주

마) 회의시간계획표

시 간	11/29(화)	11/30(수)	12/1(목)
09:00	입국/등록 환영만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li> <li>• 참석대표 소개</li> <li>• 인사말씀</li> <li>• 동북아사무국 현황보고</li> </ul>	출국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사진촬영 및 휴식</li> </ul>	
0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위원회 활동보고</li> </ul>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및 토의</li> <li>NEAR회장 제정 - 사무국</li> <li>회원단체 직원 NEAR사무국 파견 - 사무국</li> <li>산동성과 동북아지방정부간 협력강화 - 산동성 등</li> </ul>	
1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정리 발언, 폐회</li> </ul>	
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찰 : 태종대 → BEXCO → APEC하우스</li> </ul>	

(3) 회의내용 총괄

(가) 개회선언 (사회자)

(나) 참석대표소개 (부산시 국제협력과장)

(다) 인사말씀 (안준태 동북아연합 실무위원회 위원장, 김용대 동북아연합 사무국 사무총장)

(라) 사무국 활동보고 (동북아연합 사무국장)

(마)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1)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경상북도)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회원단체간 호혜적·실질적 경제통상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주최로 2004년 10. 5 ~ 10. 8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2004동북아비즈니스 촉진회의」에 대한 활동보고

- 「2004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의 주요 협의사항
  - 각 단체의 민간인 2명, 공무원 2명으로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구성
  - ‘수출상담회’에 ‘전문품목상담회’ 병행 실시
  - 외국인 투자요청 및 합작개발에 대한 공동노력
  - 2006년 제6차 총회 및 기업박람회에 적극 참여
- 회의개최성과
  - 상품전시장운영 및 개별상담회 등을 통해 상품신뢰도·이미지 제고
  - 시장규모와 구매력이 큰 미주 및 러시아지역의 많은 바이어가 참가
- 2)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시마네현)
  - “문화교류분과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2005년 8월 시마네현의 우호교류자치단체와 함께 청년교류사업 실시(4개 연합회원단체 참가, 일본전통문화 체험, 홈스테이 등)
  - 2005년부터 시작한 동북아지역 국제문화 팔레트사업 일환으로 영하회족 자치구의 가무단 초청, 현내 3곳에서 공연과 교류활동
- 3) 환경분과위원회 (도야마현)
  - 제7회 환경분과위원회가 2005년 7월 14일 5개국 14개 회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 제7회 환경분과위원회 회의결과
    - 효고현, 후쿠강성 등 각 자치단체의 환경현황과 과제 보고, 동북아 환경 현황 등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
    - 동해와 황해연안의 해변 표착물조사, 동북아시아청소년 환경심포지엄 등 2005년 개별 프로젝트 실시상황 보고
    - ‘동해의 해저지형 및 심층생물군집의 생물다양성과 분포조사’ 등 4개 2006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
    - 도야마현이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 선출
- 4) 일반교류분과위원회 (도야마현)
  - 일반분과위에서는 동북아 역내의 정보교류와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작성상황과 인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해 각 자치단체의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야마현 홈페이지에서 공개, 각 자치단체에 통지함.
  - 각 자치단체간의 홈페이지 상호링크,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외국어판 게재정보의 업데이트 등,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인재교류 및 육성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하고 각 단체간의 연계 및 공동사업실시를 검토할 계획

5) 방재분과위원회 (효고현)

- 동북아 지역의 방재능력 향상에 공헌하기 위해 「아시아의 재해와 그 대책」을 주제로 2005년 2월 1일 ~ 4일 효고현에서 제3회 방재분과위원회 개최
- 참가단체는 아시아 방재센터 연구원에게 방재강습을 받은 후, 아시아 방재센터, 효고현립 재해의료센터, 효고현 재해대책센터, 미키진재기념공원 등 시찰연수

6) 변경협력분과위원회 (하바롭스크변경주)

- 변경협력분과위는 변경 협력의 활성화 방안과 동북아시아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모색하고자 2005년 6월 7일 제1차 변경협력분과위원회 회의를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에서 개최함.
- 제1차 변경협력분과위 결의 사항
  - 변경협력지대활동의 지속화 및 특별경제지대 창설에 대한 동북아연합 회원국가 국경에 대한 법안 통합 및 연구 활성화
  - 동북아국가 세관 간의 수출량에 대한 정보교환 메커니즘 형성
  - 변경지역 대외무역에 대한 러시아 및 동북아국가 은행의 융자활성화
  - 동북아국가 은행에 개설되는 변경지역 무역회사의 LC 정보공유 등

(바) 제안 및 토의

1) NEAR 회장 제정 (사무국)

- 동북아연합 회장 제정의 추진경과를 보고.
- 실무위에서 회장 제정에 관한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하여 제6회 부산총회에서 회장을 확정할 계획

2) 회원단체직원 NEAR 사무국 파견 (사무국)

- 2004년 9월 개최된 제5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사무국을 설치, 1차적으로 경북 및 대한민국 국적의 직원 배치 및 채용을 마무리함. 그러나 사무국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각 회원국별 직원을 1명씩 사무국에 파견받고자 함.
- 파견경비는 원칙적으로 회원단체 부담이나, 필요시 사무국에서 주거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마련 예정
- 2005. 12 ~ 2006. 2 파견공무원 희망자 접수, 2006년 3월부터 1년간 사무국 파견 근무 토록 할 계획

3) 산동성과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산동성)

- 산동성 소개
-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 동북아연합 제7회 총회 산동성 개최 신청

4) 제17회 하얼빈 경제무역 상담회 및 '러시아 해' 행사 초청 (흑룡강성)

- 제 17회 하얼빈 경제무역 상담회 및 ‘러시아의 해’ 행사 초청
- 러시아의 해 맞아 2006년 개최될 “제22회 하얼빈 국제얼음·눈 축제”, “제17회 하얼빈 경제무역상담회” 등 행사에 연합회원단체 초청
- 5) 동북아시아 경제교류 EXPO 2006 in 토야마 개최협조 (토야마현)
  - “동북아시아의 경제교류 EXPO 2006 in 토야마”에 대한 회원단체 내 기업에 대한 참가 권유 요청
- 6) 한국기업인 사절단의 하바롭스크 방문 행사 (하바롭스크변경주)
  - 투자설명회, 비즈니스 미팅 등 2006년 4월~5월 개최될 한국기업인 사절단 방러 행사에 대한 참여 독려 요청

### 합 의 문

2005년 11월 30일 한국 부산광역시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인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22개 자치단체 실무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5회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가 활동상황을 보고하였고 연합 회장 제정, 회원국 직원 사무국 파견 등 연합의 각종 현안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여러 회원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분과위원회의 활동 보고

각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는 본 회의에서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1)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경상북도는 회원단체간 호혜적, 실질적 경제 통상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연합회원 5개국 19개 단체 441명이 참가하여 개최된 『2004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 (2)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시마네현은 회원단체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교류분과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청년교류사업” 및 동북아시아의 전통 예능단체를 초청하여 현내 각 지역에서 공연을 하는 “국제문화 팔레트” 사업 결과를 보고하였다.

##### (3) 환경분과위원회

토야마현은 2005년 7월 14일 5개국 14개 단체가 참가한 제7회 환경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각 회원단체의 환경 현황, 2005년 프로젝트 추진 상황이 보고 되었으며 2006년 사업을 제안하여 논의하였다.

(4) 일반교류분과위원회

토야마현은 동북아시아 지역내의 정보교류와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각 회원단체의 『홈페이지 작성 상황』과 『인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5) 방재분과위원회

효고현은 한신 대지진 10주년을 맞아 2005년 2월 1일부터 4일간 5개국 9개 단체가 참가하여 제3회 방재분과위원회 개최하여 다국간 방재협력과 방재능력 향상을 위해 방재강습 및 방재거점시설 시찰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내년 2월에 예정된 제4회 방재분과위원회에 참여 협조를 요청했다.

(6) 변경협력분과위원회

하바롭스크변경주는 변경협력의 활성화 방안과 동북아 지역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05년 6월 7일 하바롭스크시에서 3개국 12개 회원단체가 참가하여 개최된 제1회 변경협력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2. 제안 및 토의

(1) 연합회장 제정에 관하여

연합 사무국에서는 흑룡강성 총회에서 채택된 연합회장 제정에 관한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연합차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요청하였다. 회원단체들은 연합회장은 향후 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2) 회원단체 직원 연합 사무국 파견에 관하여

연합 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각 회원국별로 직원의 사무국 파견을 제안하였다. 회원단체들은 직원 사무국 파견 근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국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산둥성과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산둥성은 산둥성의 경제현황 및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2008년 동북아자치단체 연합 총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4) 제17회 하얼빈 경제무역 상담회 및 2006년 러시아의 해 초청

흑룡강성은 2006년 러시아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제22회 하얼빈 국제 얼음·눈 축제” 및 “제17회 하얼빈 경제무역 상담회” 등에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5) 동북아시아 경제교류 EXPO 2006 in 토야마 개최 협조

토야마현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교류 촉진을 위해 개최되는 『동북아시아 경제교류 EXPO 2006 in 토야마』 행사에 회원단체들의 많은 참가를 요청하였다.

(6) 한국기업인 사절단의 하바롭스크 방문

하바롭스크변경주는 태평양경제협력 러시아 국가위원회가 주최하여 개최되는 한국기업인 사절단의 하바롭스크 방문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 개최예정인 제6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하바롭스크변경주가 코디네이터로 있는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개최지를 논의할 것을 희망했다.

(7) “제4차 중국 하남성 국제 투자 무역상담회”

하남성 인민정부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2006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하남성 정주시에서 “제4차 중국 하남 국제 투자 무역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 등 중앙의 각 부처가 지원하고 한국, 일본, 미국, EU 등의 경제협회가 협찬하는 상담회는 공업, 공공시설, 상업, 대외무역, 물류, 관광, 금융, 보험, 정보 교육 및 보건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하남성은 각 회원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8) 제6회 총회 개최 관련 협조

부산광역시는 제6회 총회는 9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참조하여 2월말 최종 결정할 것이며, 내년 총회에 북한의 함경북도, 라선 직할시 2개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상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5회 실무위원회 합의 사항으로 본 합의 사항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각 회원단체에게 발송한다.

바. 제6회 실무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6회 실무위원회는 2006년 9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6회 연합 총회에서 새로운 의장단체로 선임된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이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연합의 각종 현안을 실무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

(2) 회의개요

(가) 기 간 : 2007년 9월 3일 ~ 6일

(나) 장 소 : 중국 산둥성 지난시

(다) 주 최 : 산둥성 인민정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라) 참가단체 : 5개국 31개 자치단체 (연합사무국 포함)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9	헤이룽지양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닝시야후에이쭈 자치구, 산둥성, 산시성(山西省), 산시성(陝西省), 티엔진시
일본	4	토야마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한국	1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사무국
몽골	5	아르항가이아이막, 볼강아이막, 오르홍아이막, 움느고비아아이막, 울랑바타르시
러시아	3	사하(야쿠치아)공화국, 이르쿠츠크주, 마가단주

(마) 회의시간계획표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9월 3일 (월)	09:00 ~ 17:00	회의등록
	18:00 ~ 18:15	차이 리민 산동성 부성장 각 자치단체 대표단 단장 접견
	18:15 ~ 20:00	산동성 환영만찬
9월 4일 (화)	07:30 ~ 08:30	아침식사
	09:00 ~ 09:20	실무위원회 회의 개막식 (1) 산동성 부성장(실무위원회 의장) 축사 (2) 연합 사무총장 축사
	09:30 ~ 10:10	회의 1 :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1)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경상북도) (2) 환경분과위원회 (토야마현) (3)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시마네현) (4)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시마네현) (5) 방재분과위원회 (효고현) (6) 변경협력분과위원회 (아무르주) (7) 과학기술분과위원회 (경기도)
	10:10 ~ 10:20	연합사무국 활동보고
	10:20 ~ 10:30	티 타임
	10:30 ~ 12:00	회의 2 : 각 자치단체 활동보고 (1) 2008년 NEAR 제7회 총회를 계기로 산동성과 동북아 지역간 협력 강화 (산동성) (2) 연합회비제 도입 (하바롭스크변경주) (3)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연합사무국) (4) 2010년 총회 유치 신청 (경기도) (5) 연합사무국 연임 제안 (경상북도)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6)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모집(토야마현) (7) 교육·문화교류 분과위원회 신설(시마네현) (8) 2008년 동북아 환경보호산업 상담회 소개(산동성)
	12:00 ~ 13:00	점심식사
	13:30~14:30	회의 3 : 자유토론
	14:30~15:00	티 타임(합의문 초안작성 및 번역)
	15:00~15:15	합의문 내용 논의
	15:15~15:30	합의문 작성
	15:30	실무위원회 회의 마침
	16:00~18:30	동북아자치단체 국제협력 대화의 장
	18:30~19:30	저녁식사
9월 5일 (수)	07:00~07:50	아침식사
	08:00~10:30	취후우(曲阜)로 이동
	10:30~12:30	콩미아오(孔廟 : 공자사당), 공푸우(孔府 : 공자후손의 고택) 관람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콩린(孔林 : 공자의 묘지) 관람
	18:00~19:30	지난시 인민정부 주최 환송만찬
9월 6일 (목)	07:00~07:50	아침식사 행사종결, 대표단 귀국

**(바) 회의내용 총괄**

- 1) 개회선언(사회자)
- 2) 기조연설 (산동성 부성장)
  - 2008년 제7회 총회를 통해 산동성과 동북아 지역간 협력을 확대하여 공동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
- 3) 제안사항
  -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동북아 지역협력에 새로운 기반을 다지자.
  - 전문화된 교류강화로 동북아지역의 실무 협력을 촉진하자.
  - 환경보호 협력 강화로 아름다운 동북아촌을 공동건설하자.
- 4) 축사 (연합 사무국 사무총장)
  - 21세기는 자원, 기술, 자본의 인프라가 풍부한 동북아의 시대가 될 것이며 연합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연합은 앞으로 신뢰와 협력 그리고 상생의 공동가치를 토대로 열린 동북아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무국은 공동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5) 주요활동 경과보고

##### 가) 각 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대한민국 경상북도)
  - 2006년 12월 제7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비즈니스 촉진회의와 다자간 무역 상담회 개최, 5개국 35개 자치단체 참가
    - 비즈니스 촉진회의에서 “동북아시아 경제통상교류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14개 자치단체에서 발언, 22개 자치단체에서 온 66개 기업이 다자간 무역 상담회에 참가
  - 2007년 10월에 16일부터 18일까지 비즈니스 촉진회의와 연합사무국이 주최하는 동북아 국제경제포럼 병행 개최예정
-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
  - 환경분과위원회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21개 회원단체 발송 및 동북아시아 환경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게시
  - 2007년 7월 30일 제8회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5개국 12개 자치단체 참석
    - 각 자치단체의 환경현황과 과제, 2007년 개별 프로젝트의 실시와 진전상황, 2008년 개별프로젝트 제안 상황 통보, 토야마현의 지속적인 환경분과위 코디네이터 담당 등이 주요 의제
-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
  - 2007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5회 방재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5개국 15개 자치단체 32명 참석
    - “정보교류 교류연수”에서 “참여·과제해결형”으로 변화
    - 지진체험, 모의 연기피난 등 체험형 학습과 선진사례 발표, 방재관련 시설 시찰 등이 주된 내용
-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 자치단체 직원상호 파견, 유학생·연수생·청소년의 해외 파견 및 인재양성 사업 조사 실시, 그 결과를 중, 일, 한, 러, 영어로 토야마현 홈페이지에 게시 등
- 변경협력분과위원회 (러시아 아무르주)
  - 2007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분과위 회의 개최 예정, 그러나 중국, 몽골, 러시아 3개국 4개 회원단체만이 회의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2008년 4월로 연기함. 회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희망

○ 과학기술분과위원회 (대한민국 경기도)

- 2007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수원시 나노소자 특화 팹센터에서 “역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5개국 20개 자치단체의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과학기술 분과위 회의 개최.
- 12개 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과학기술 현황과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
-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발전 촉진을 내용으로 합의문 발표

6) 사무국 활동보고 (연합사무국)

- 2007년 4월 22일까지 28일부터 한국의 경상북도와 기타 자치단체간 통상교류 활동 협력
- 2007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5개국 32개 회원단체의 대표 실무자 워크샵에 초청
- UCLG, CITY-NET, ANMC21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
- 한국 경상북도의회 대표단의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방문 협조, 지방의회 교류 추진
- 연합홍보 강화를 위해 6개국 언어로 뉴스레터와 홍보책자 발행
- 4개국 4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제기구로서 사무국의 이미지를 높임.
- 2007년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연합의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포
- 2007년 10월 17일 동북아 국제경제포럼 실시 예정
-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억원을 투자하여 연합 홈페이지 보수 예정
- 이번 의장단체인 산동성의 2007년 실무위원회 회의와 2008년 총회의 개최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

7) 제안 및 토의

- 산동성 :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신설 제안 등
  - 동북아지역 협력과 발전을 실무적으로 추진하자
    -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협력의 새로운 기반 마련
    - 전문화된 분야별 교류를 강화하여 실무협력을 촉진
    - 환경보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동북아촌 건설
  - 산동성이 2008년 NEAR 제7회 총회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 제7회 총회의 기본방안과 환경보호 상담회 방안 소개, 참가단체의 의견 청취. 적극적인 참여 희망
    -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신설과 산동성의 코디네이터 담당 희망, 참가대표들의 토론을 거쳐 2008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 2008년 총회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교류협력과 이 지역의 대규모 국제행사, 핵심교류

프로젝트 등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전방위적인 동북아시아 협력 추진계획

- 허난성, 산둥성 : 관광분과위원회 신설 제안
  - 관광분과위원회 신설 제안. 참가대표들의 심의를 거쳐 이 제안을 2008년 총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기로 결정
- 하바롭스크변경주 : 연합 회비제 도입 제안
  - 연합 회비제를 도입하여 연합행사 개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참가회원의 책임감을 높이는 제안 제출. 2008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 경기도 : 2010년 총회 유치 신청
  - 회의참가대표들의 토론을 거쳐 2008년 제7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 경상북도 : 사무국 연임신청
  - 회의참가 대표들은 2004년 경상북도가 연합사무국을 유치한 이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사무국의 정상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제안을 2008년 제7회 총회에 상정
- 토야마현 :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새 코디네이터 모집  
 일반교류분과 위원회의 코디네이터인 토야마현이 차기 코디네이터를 맡기를 희망. 회의참가 대표들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시마네현의 문화교류분과위원회와 일반교류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제안에 동의
- 연합사무국 :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제의
  - 연합이 1998년 제정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는 당시의 5개 분과위원회만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04년 흑룡강성 총회와 2006년 부산 총회에서 각각 변경협력분과위원회와 과학기술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회의대표들은 협의를 거쳐 연합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고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명칭에 상술한 두 분과위원회를 추가했다.

8) 제안사항에 대한 종합정리

-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신설 제안, 2008년 제7회 총회에 상정
- 관광분과위원회 신설 제안, 2008년 제7회 총회에 상정
- 연합 회비제 도입 제안, 2008년 제7회 총회에 상정
- 2010년 총회 유치 신청, 2008년 제7회 총회에 상정
- 연합 사무국 연임 신청, 2008년 제7회 총회에 상정
- 일반교류분과위원회와 문화교류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신설 결정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고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명칭에 상술한 두 분과위를 추가

합의문(발표문)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2007년 산둥성 제6회 실무위원회 회의 합의문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제6회 실무위원회회의가 2007년 9월 3일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의 31개 연합 회원자치단체, 옵서버단체 연합사무국에서 온 80명의 대표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개막식 축사, 연합의 7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의 활동보고, 중국 산둥성, 한국 경기도, 한국 경상북도, 일본 토야마현, 일본 시마네현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중국 하남성, 연합사무국이 제출한 의제와 지난 총회가 토론을 위임한 문제에 대한 심의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동북아 각 지역이 국제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축적한 경험을 교류하고 실무위원회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산둥성은 이번 회의기간에 동북아자치단체 국제협력대화의 장을 가졌고 연합의 12개 회원단체의 대표가 발표했다.

이번 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와 연합 사무국의 활동보고

(1)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한국 경상북도는 2006년 12월 경주시에서 제7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즈니스 촉진회의와 다자간 무역상담회를 개최했으며 5개국 35개 자치단체에서 참가했다. 비즈니스 촉진회의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통상교류 활성화의 방안”을 주제로 14개 자치단체에서 발언했으며 22개 자치단체에서 온 66개 기업이 다자간 무역상담회에 참가했다. 상담회 규모는 역대 회의를 능가했다. 2006년 5월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개통하여 5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6개 국 374개 기업의 6,563개 상품의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촉진회의는 올해는 사무국이 추진하는 ‘동북아국제경제포럼’과 병행하여 연합 사무국과 공동 주관으로 경제분야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국의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된다.

(2)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은 환경분과위원회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번역을 거쳐 환경분과위원회의 21개 회원단체에 발송하는 동시에 이를 동북아시아환경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8회 환경분과위원회는 2007년 7월 30일 개최되었다. 5개 국 12개 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각 자치단체의 환경현황과 과제, 2007년 개별 프로젝트의 실시와 진전상황, 2008년 개별 프로젝트의 제안 상황 통보, 일본

토야마현이 환경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를 계속 맡는 것이 주요 의제였다.

### (3) 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시마네현이 2006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동북아시아 국제문화파레트' 사업을 실시하였고 중국 길림성의 길극단 22명이 시마네현의 예술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했으며 약 1,000여 명의 관중이 이를 관람하였다. 그 밖에 현내의 장애인단체, 초등학교와 교류활동 공연을 실시했다. 올해도 동북아시아의 전통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시마네현에서 상호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2007 동북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를 실시하여 4개국 9개 자치단체에서 온 47명이 참가했다. 참가지역의 요리교류와 문화소개, 일본전통문화체험, 환경 및 복지학습 등이 그 내용이며 홈스테이, 각종파티 참석으로 참가자간의 교류를 촉진했다.

### (4)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은 2007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5회 방재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5개국 15개 자치단체의 3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보교류형 연수'에서 '참여·과제해결형'으로 변화했으며 해저드맵의 제작연수, 기진차를 이용한 지진체험, 모의연기피난 훈련 등 체험형 학습 및 훈련과 선진사례 발표, 효고현의 관련 방재시설 시찰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 (5)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은 관련 자치단체의 직원 상호파견, 유학생 및 연수생 등의 파견 및 수용, 청소년 등의 해외파견 등 인재양성 사업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영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토야마현 국제·일본해정책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가 현재 추진중인 행사내용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간의 연락 및 공동행사개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치단체의 다양한 제안을 수용하여 새로운 과제를 탐구할 계획이다.

### (6) 변경협력분과위원회

러시아 아무르주는 원래 2007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변경협력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몽골, 러시아 3개국 4개 회원단체만이 회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의를 2008년 4월로 연기. 많은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7)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한국 경기도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수원시 나노소자특화팍센터에서 '역내 과학기술분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5개국 20개 자치단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 12개 자치단체가 각각 참가지역과 기관의 과학기술개발현황과 과학기술의 국제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했고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지방자치단체협력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8) 연합 사무국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했다. (1)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경상북도와 기타 자치단체의 통상교류 활동 협조, (2)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5개국 32개 회원단체의 대표 실무자워크숍 초청, (3) UCLG, CITY-NET, ANMC21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 (4) 한국 경상북도의회 대표단의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방문을 협조, 지방의회교류 추진, (5) 연합홍보 강화를 위해 6개국 언어로 뉴스레터와 홍보책자 발행, (6) 4개국 4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제기구로서 사무국의 이미지를 높임, (7) 2007년 6월 30일부터 7월 15일 까지 연합의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포, (8) 2007년 10월 17일 동북아경제포럼 실시 예정, (9)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억원을 투자하여 연합 홈페이지 보수예정, (10) 사무국은 이번 의장단체인 중국 산둥성이 2007년 실무위원회 회의와 2008년 총회의 개최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

2. 회의 발언, 의제 심의 및 토론 상황

(1) 동북아지역 협력과 발전을 실무적으로 추진하자

연합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중국 산둥성 차이리민 부성장은 개막식 발언에서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실무적으로 추진하자는 3가지 제안을 내 놓았다. (1)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동북아지역협력에 새로운 기반을 닦자. (2) 전문화된 분야별 교류를 강화하여, 동북아지역의 실무적인 협력을 촉진하자. (3) 환경보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동북아촌을 함께 만들자.

(2) 중국 산둥성이 2008년 NEAR 제7차 총회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1) 산둥성은 2008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7회 총회의 기본 방안과 동북아 환경보호상담회 방안을 통보하고 회의참가대표들의 의견을 청취, 모든 회원단체가 상술한 두 행사에 적극 참가하기를 희망

2) 산둥성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해양 및 어업분과위원회의 신설을 공식 신청하고 산둥성이 이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를 맡을 것을 희망. 회의참석 대표들은 심의를 통해 이 제안을 2008년 총회에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할것에 동의. 산둥성은 2008년 NEAR 총회를 계기로 동북아지역 교류·협력과 이 지역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긴밀히 연계하고, 동북아 지역의 교류·협력과 이 지역의 대외 문화홍보, 관광관촉, 투자유치, 제품시장개척 등 핵심 교류 프로젝트를 긴밀히 연계하며, 동북아 지역의 교류·협력과 이 지역의 양자간 대외 교류의 핵심지역을 긴밀히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3) 중국 산둥성, 하남성 관광분과위원회 신설 제안

회의 참석 대표들은 심의를 거쳐 이 제안을 2008년 총회에 정식으로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데 동의

(4) 연합 회비제 도입에 관한 문제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는 연합 회비제를 도입하여 연합행사 주관 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회원단체가 행사참가시의 책임감을 높이자고 제안. 회의는 내년 총회에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데 동의

(5) 한국 경기도가 2010년 총회 유치 신청

한국 경기도는 2007년 연합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년 총회 유치를 서면으로 공식 제출했으며 회의참가대표의 토론을 거쳐 2008년 제7회 총회에 공식 상정,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6) 한국 경상북도가 사무국 연임 신청

2004년 경상북도 연합사무국을 유치한 이후, 재정, 인력 등 여러 분야에서 사무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참가대표들은 경상북도가 4년 여 동안 연합의 발전, 특히 사무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큰 공헌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경상북도의 사무국 연임 신청을 2008년 제7회 총회에 공식 상정,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7) 일본 토야마현 일반교류분과위원회 차기 코디네이터 모집 및 일본 시마네현 교육·문화분과위원회 신설

토야마현은 1998년 12월 22일 일반교류분과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계속 코디네이터를 맡아왔다. 연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토야마현은 최대한 많은 자치단체가 연합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를 하기 희망하며, 아울러 기타 회원이 차기 코디네이터를 맡기를 희망했다. 회의참가대표들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일본 시마네현의 문화교류분과위원회와 일반교류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교육·문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제안에 동의했다.

(8)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문제

연합이 1998년 제정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는 당시의 5개의 분과위원회만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04년 흑룡강성 총회와 2006년 부산 총회에서 변경협력분과위원회와 과학기술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회의대표들은 협의를 거쳐 연합의<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명칭에 상술한 두 분과위원회를 첨가했다.

부 칙

이상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6회 실무위원회 회의 합의문은 영어와 병행하여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5개 언어로 작성하여 회의가 끝난 후 연합사무국에서 연합의 모든 회원단체에 발송한다.

9) 행사성과 및 과제

○ 주요성과

일반교류분과위원회와 문화교류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를 신설

○ 과제

-연합 회비제 도입 방안을 차기 총회에 상정하며 논의

10) 부대행사

○ 동북아자치단체 국제협력 대화의 장 마련

### 제3절 분과위원회

#### 1. 분과위원회 개요

##### 가. 구성

-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실무위원회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로 구성
-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자치단체 담당 부 또는 국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하고, 상호 호선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연락, 조정, 운영을 행하는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선정

##### 나. 기능

- 분과위원회는 연합에서 제안된 개개의 프로젝트 또는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참여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별프로젝트를 검토·협의
- 각 분과위원회는 활동상황과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 다. 분과위원회 현황

- '98년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 등 5개 분과위원회 구성
- 2004년에 흑룡강성 총회에서 변경협력분과 위원회 신설
- 2006년 부산총회에서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신설
- 2008년 산둥성총회에서 해양·어업·관광분과위원회 등 2개분과 위원회가 신설되고 문화교류와 일반교류 분과위원회가 교육·문화분과위원회로 통합됨.

## 2. 분과위원회별 활동결과

### 가. 경제통상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 경상북도)

투자요청에 대하여는 각 회원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 <경제통상분과위원회-“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

#### (1) 개최배경 및 목적

- '98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시 경상북도가 경제분과위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 선정
- 회원단체간 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경제·통상 촉진을 위한 연합의 공동프로젝트로 회의를 개최

#### (2) 주요활동

##### (가) 제1회 회의

###### 1) 회의개요

가) 기 간 : 1998. 9.29 ~ 10.2

나)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다) 주 최 :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라) 참가인원 : 300명 (연합 16개 단체 공무원, 기업인, 바이어 국내기업인)

###### 마) 주요행사

- 통상촉진 세미나 (9.30, 09:00~12:00)
  - 이해두 교수진행, 공무원 15개 단체 38명 (한국 5, 중국 2, 일본 6, 러시아 3)
- 투자정책 정보교류회 (9.30, 13:00~16:00)
- 통상상담 (2일간, 해외바이어 70명, 도내업체 198명)
  - 계약 300만불, 상담 2,400만불
- 특산품 및 카탈로그 전시 (2일간, 경북·산동·토야마현 42개 업체)
- 관광 및 산업시찰 (10.1) - 공예촌, 문화Expo, 참가자 100명

(바) 예산 : 78백만원

##### (나) 제2회 회의

###### 1) 회의개요

가) 기 간 : 1999. 11.24 ~ 11.25

나)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다) 주 최 :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라) 참가인원 : 200명 (연합 14개 단체 공무원, 기업인, 바이어 국내기업인)

###### 마) 주요행사

- 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개최 (11.24, 10:00~12:00)
    - 박명호 교수 진행, 14개 단체 (한국 5, 중국 2, 일본 5, 러시아 2)
  - 수출상담회 (2일간, 해외바이어 36명, 도내업체 100명)
    - 계약 357만불, 상담 697만불
  - 상품 및 카탈로그 전시 (2일간, 도내 70개 업체)
  - 관광 및 산업시찰 (2일간) - 양동마을, 천마총, 불국사, 박물관
- 바) 예산 : 90백만 원 (환영만찬 11.24, 150명, 정무부지사)

**(다) 제3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기 간 : 2002. 5.22 ~ 5.25

나) 장 소 : 경주 콩코드 호텔

다) 주 최 :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라) 참 가 : 468명 (외빈 104, 내국인 364)

- 연합 회원단체 통상담당 공무원 42명 (5개국 18개 단체)
- 해외바이어 76명 (16개국 63개사)
- 도내 기업체 280명
- 기관단체장 및 시군 경제통상관계 공무원 등 70명

마) 공용어 : 한국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바) 회의시간계획표

- 5. 22(수) 환영만찬 (19:00) : 지사님 주재
  - 5. 23(목) 수출상담회 (09:30~17:30)  
경제통상분과위 회의 (10:00~16:30) : 경제통상실장
  - 5.24(금) 개별상담, 시찰 (09:30~18:00)
- ※ 상품 및 카탈로그 전시 : 5. 23 09:30 ~ 5. 24 13:00

사) 회의내용 총괄

① 환영만찬

- 일시 : 2002. 5. 22
- 장소 : 경주 콩코드 호텔 에메랄드볼룸
- 참석 : 150명
  - 동북아연합 : 42명 (5개국 18개 단체 공무원)
  - 해외바이어 : 76명 (동북아 14, 기타 62)
  - 경상북도 : 32명

- 진행
  - 경북관광광고비디오 상영
  - 환영사 (경북도지사)
  - 참석 내빈소개, 건배제의 (장성호 전 의장)
  - 만찬, 폐회

② 동북아연합 경제분과위원회

- 일시 : 2002. 5. 23
- 장소 : 경주 콩코드 호텔 루비룸
- 참석 : 82명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5개국 18개 단체 42명
    - 한국 7 (14명), 중국 3 (8명), 일본 4 (12명), 러시아 3 (6명), 몽골 1 (2명)
    - 시군 국제통상관계 공무원 40명
- 주제 : 동북아연합 경제통상교류 활성화 방안
  - 발표자 : 13명 (경북, 경기, 전북, 영하회족자치구, 영하대학, 토야마, 효고, 시마네, 돗토리, 하마, 사할린, 부라티야, 투브아이막)
  - 진행 : 영남대학교 이효수 교수 (전 상경대학장)
  - 언어 : 한·중·일·러 4 개 국어 동시통역
- 회의 결과

[의결사항 3건]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전자무역 공동홈페이지' 구축
- 총회 개최지 단체에서 '동북아 기업박람회' 개최 제안
  - 제 4회 (9월) 연합총회 의결 후 제 5회 총회 시부터 개최
- 함경북도, 셀렌게아이막 (몽골)의 총회가입 환영 및 가입협력

[협조사항 7건]

- 외국인투자요청 및 합작개발에 대한 상호 홍보 등 협력
- 경상북도에 상설사무국 설치지지 및 국제행사 상호 참가 협조 등

『합 의 문』

2002년 5월 23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원단체인 중국, 일본,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18개 자치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

아자치단체연합 제3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창설 6년을 맞이하여 우리 연합의 경제통상분야에 있어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가일층 공고히 하고 나아가 금후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실질적인 경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공동 사업의 수행 및 과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참가 자치단체대표단은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회원단체 모두 동북아지역의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유익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참가 자치단체대표간의 진지한 토론의 결과,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 동북아연합 공동사업으로 확장하거나 회원단체간 상호 협조할 사항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본 회의에서 제안되어 합의된 사항을 정리한다.

### 1. 의결사항

- (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전자무역공동홈페이지」 구축 제안에 대하여 효고현, 전라북도, 경상북도, 하바롭스크는 동북아지역의 실질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회원자치단체 기업인과 해외바이어 등에게 통상정보를 제공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전자무역공동홈페이지」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통상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는데 참가 각 대표단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동북아지역 내 다자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전자무역공동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은 경상북도에서 시안을 마련하여 동북아연합의 전 회원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2) 총회개최지 단체에서 「동북아 기업박람회」개최 제안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동북아비즈니스 촉진회의의 발전을 위해 총회개최지 자치단체에서 총회 개최와 함께 회원자치제 기업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 기업박람회」개최를 제안하였다. 본 건에 대하여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의 명의로 금년 9월 제4회 하바롭스크 연합총회에 제안하여, 의결을 거친 후 2004년 총회 개최시부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공식사업으로 할 것을 건의키로 의결하였다.
- (3) 「함경북도(북한), 셀렝게(몽골) 아이막의 총회가입」 의사 표명에 대하여 하바롭스크주가 공식 확인하였다고 발표한 북한의 함경북도와 몽골의 셀렝게 아이막의 동북아자치단체 가입의사 표명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 단체 모두가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동북아 경제통상분야 교류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9월 개최되는 제4회 하바롭스크 총회에 2개 단체가 참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의결하였다.

### 2. 회원단체간 협조사항

- (1) 「외국인 투자」 요청 및 합작 개발에 대하여 영하회족자치구, 흑룡강성, 요녕성, 투브아이막, 사할린주, 브라티야공화국은 지역산업과 투자여건 등을 소개하고 에너지, 과학기술, 농림분야,

관광,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하여 각 회원단체 경제계의 적극적 투자를 요청하였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한 각 자치단체의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관련 홍보자료 소개 등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내에서 회원자치단체 상호간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가기로 하였다.

- (2) 동북아연합 「일반교류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토야마현에서 오는 7월 11~12일 2일간 개최되는 동북아연합 일반교류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 참석 협조를 요청하였다.
- (3) 「방재분과위원회」개최에 대하여 효고현은 오는 7월 23일 개최되는 방재분과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석 협조를 요청하였다.
- (4) 경제통상 시책 소개 및 관심당부 시마네현, 돗토리현,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국제 교류시책, 통상진흥 시책 등을 소개하고 회원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5) 「상설사무국」유치협조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오는 9월 제4회 하바총회에서 경상북도에 상설 사무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6) 「세계농업한마당」과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02년 10월 개최되는 「세계농업한마당」과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모든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석 협조를 요청하였다.
- (7) 하바롭스크 「제4차연합총회」 개최에 대하여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2002년 9월 10~11일 2일간 개최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4차 총회에 모든 회원단체의 참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상을 제3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의결사항 및 협조사항으로 하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작성한다.

### ③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시 : 5. 23 (24일은 개별상담 및 현지방문 등)
  - 장소 : 콩코드호텔 에메랄드볼룸
  - 초청바이어 : 16개국 63개사 76명
    - 동북아 4개국 14개사 14명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 기타 12개국 49개사 62명 (미국, 헝가리, 이란 등) 도내 280개사와 상담
  - 실적
    - 계약추진 : 504만불 (목표 300만불)
    - 상담추진 : 2, 625만불 (목표 2,000만불)
- 동북아 자치단체 : 계약추진 447천불, 상담 3,598천불

○ 품목별 실적

품 목 별	계 약 추 진	상 담 추 진
합 계	5,043천불	26,247천불
• 컴퓨터/통신	135	1,195
• 전기/전자	778	390
• 기계/장비	241	9,316
• 섬유/피혁	1,856	6,003
• 자동차/운송장비	335	3,240
• 문구/선물	750	1,130
• 농산물	720	2,415
• 기타(화학제품 등)	228	2,558

④ 상품 및 카탈로그 전시

○ 일시 : 5. 23 ~ 5. 24

○ 장소 : 콩코드호텔 에메랄드 볼룸 로비 (전시장 30평)

○ 전시물 : 155종 1,500여 점

○ 운영 : 4개국 통역 배치, 설명 및 안내

○ 전시내용

- 전시품목 (108종, 도내 35개 업체)
- 공예품 50종 (도자기, 하회탈 등) / 식음료 20종 (감식초 등)
- 주류 8종 (안동소주, 신라주, 오정주 등)
- 기계류 30종 (예초기, 분무기, 연막소독기, DVR 등)
- 47품목(수공예품)
  - 시마네현 20, 돗토리현 8, 토야마현 12, 효고현 7

※ 기업홍보물 및 자치단체 홍보물 등 100여 종

○ 전시성과

- 해외 바이어에게 경북상품의 우수성 인식
- 외국의 우수한 제품과의 비교전시로 연구개발 동기부여 (제품의 질, 디자인, 포장 등)
- 일부 상품에 대한 구매희망 (연락처 등 문의)

아) 행사성과 및 과제

① 주요성과

○ 경북의 역량 확인으로 회원자체단체로 하여금 신뢰와 안정감 획득

- 공동사업 발굴 및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합의
- 경북이 주창해 온 북한의 동북아연합 가입의 구체화 및 지지확산

② 과 제

- 경제분과위의 공동관심사항 및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상시운영체제 확립 (국제통상과 인력, 기구의 충원)
- 총회차원의 가칭 '동북아 기업박람회' 개최로 전 회원단체의 대대적 참여 유도  
금년 9월 북한의 연합 회원가입 확정시 동 위원회 일원으로 영입하여 남북간 자매결연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 도모
- 해외바이어 초청상담 시 참가 자치단체에게도 수출상담회 기회제공으로 다자간 상호 무역 상담

자) 부대행사

① 관광 및 산업시찰

② 일시 : 5. 24

③ 장소 : 경주 일원 (불국사, 석굴암, 엑스포 공원), 포항제철

④ 인원 : 43명

- 동북아 참가자 26명 (중국 10, 일본 4, 몽골 6, 러시아 6)
  - KOTRA 초청 바이어 12, 시도 공무원 등 5

⑤ 기타

○ 언론보도

• TV방영 : 8회

- KBS 2회, MBC 5회, TBC 1회

• 신문보도 : 17회 (중앙지 3, 지방지 14)

- 동아일보 1, 중앙일보 1, 세계일보 1

- 매일신문 1, 영남일보 4, 경북일보 2, 대구일보 3, 경상매일 2, 경북매일 1, 대구신문 1

• 라디오 인터뷰 : 2회

- 대구 교통방송 (황대주 국제협력담당 출연, 15분)

- 포항 CBS 뉴스의 현장 (황대주 국제협력담당 출연, 15분)

(라) 제4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기 간 : 2003. 9.23 ~ 9.26

나)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다) 주 최 : 경상북도, 동북아시아지자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라) 참 가 : 380명 (외빈 125, 내국인 255)

○ 연합 회원단체 통상담당 공무원 55명 (5개국 23개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한국	8	경북,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대구광역시
중국	4	흑룡강, 하남, 요녕성, 영하회족자치구
일본	5	아마가타, 니가타, 효고, 돗토리, 시마네현
러시아	5	브라티야공화국, 하바롭스크변경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몽골	1	셀렝그아이막

○ 해외바이어 125명 (12개국 43개사)

○ 도내 기업체 161명

○ 기관단체장 및 시군 경제통상관계 공무원 등 39명

마) 회의시간계획표

○ 9. 23(화) 환영만찬 (19:00) : 지사님 주재

○ 9. 24(수) 수출상담회 (09:30~17:30)

경제통상분과위 회의 (10:00~16:30) : 경제통상실장

○ 9. 25(목) 개별상담, 시찰 (09:30~18:00)

※ 상품 및 카탈로그 전시 : 9. 24 09:30 ~ 9. 25 13:00

바) 회의내용 총괄

① 환영만찬

○ 일시 : 2003. 9. 23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에메랄드홀

○ 참석 : 200명

• 동북아연합 : 55명 (5개국 23개 단체 공무원)

• 해외바이어 : 106명 (바이어 84, 투자단 22)

• 경상북도 : 39명

○ 진행

• 환영사 (경북도지사)

• 참석 내빈소개, 건배제의 (최원병 의장)

• 만찬, 공연, 폐회

② 동북아연합 경제분과위원회

- 일시 : 2003. 9. 24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 참석 : 100명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5개국 23개 단체 55명
    - 한국 8 (18명), 중국 4 (18명), 일본 5 (9명), 러시아 5 (8명), 몽골 1 (2명)
    - 시군 국제통상관계 공무원 45명
- 주제 : 동북아연합 경제통상교류 활성화 방안
  - 발표자 : 12명(경북, 충북, 대구, 하남성, 요녕성, 영하회족자치구, 효고, 시마네, 돗토리, 하바, 사할린, 셀렝그아이막)
  - 진행 : 영남대학교 이효수 교수(전 상경대학장)
  - 언어 : 한·중·일·러 4개 국어 동시통역
- 회의 결과

[합의사항 2건]

-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구성
- 동북아경제통상정보시스템 구축
  - 경상북도가 주관, 회원자치단체 협조

[협조사항 14건]

- 외국인투자요청 및 합작개발에 대한 공동 협력
- 회원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대해 회원자치단체의 적극참여
- 정기컨테이너항로, 항만이용요망에 대해서는 회원단체의 적극협조

『합 의 문』

2003년 9월 24일 대한민국 경주시에서 중국, 일본,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23개 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4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창설 7년을 맞이하여 우리 연합의 경제통상분야에 있어서 교류협력네트워크를 가일층 공고히 하고 나아가 금후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실질적인 경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공동사업의 수행 및 과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참가 자치단체대표단은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회원단체 모두 동북아지역의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유익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참가 자치단체 대표간에 진지

한 토론을 거쳐 본 회의에서 제안되어 합의된 사항을 정리한다.

### 1. 민관투자촉진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경상북도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부응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하였다.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도 공통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함께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회원자치단체 상호간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동북아연합 민관투자촉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 실무협의를 거쳐서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 2. 동북아경제통상정보시스템의 구축제안에 관하여

경상북도는 동북아지역내의 인적, 물적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회원 자치단체의 부존자원과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분석, 제공하기 위한 동북아경제통상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바 있는 “전자무역 공동홈페이지” 구축작업을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 우선적으로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고 각 회원자치단체는 자료제공, 기술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 3. 각 회원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사항에 대하여

#### (1) 3-1 외국인투자요청 및 합작 개발에 대하여

셀랭그아이막에서 구상중인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회원단체간 협조와 하남성, 요녕성, 영하회족자치구, 효고현, 충칭북도,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에서 소개한 농업분야, 에너지, 바이오산업,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 (2) 3-2 회원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대하여

돗토리현이 오는 11월 요나고시에서 개최하는 수출입품 전시상담회와 사하공화국에서 2004년 6월 개최되는 국제아동체육대회에 회원자치단체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 (3) 3-3 정기 컨테이너항로 및 항만 이용 요망에 대하여

시마네현에서 2001년 개설한 부산~하마다간의 국제정기컨테이너항로 이용촉진과 전라남도의 광양~하마다간의 정기항로 개설요청, 또한 돗토리현에서 사카이항을 연안제국과의 무역, 물류교류를 위해 활용해 주기를 요청한 데 대하여 회원자치단체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상을 제4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결과로 합의 추진하기로 하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각각 작성한다.

#### ③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시 : 9. 24
  - ※ 25일은 개별상담 및 현지방문 등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 B홀
- 초청바이어 : 93명
  - 동북아 4개국 26개사 31명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 기타 10개국 47개사 62명 (미국, 버어마, 인도 등)
  - ※ 도내 200개사와 상담
- 실적
  - 계약추진 : 1,532만불 (목표 300만불)
  - 상담추진 : 1억 4, 702만불 (목표 2,000만불)
  - ※ 동북아 자치단체 : 계약추진 348천불, 상담 454천불
- 품목별 실적

품 목 별	계 약 추 진	상 담 추 진
합 계	15, 323천불	147,022천불
• 전기/전자	1,500	122
• 기계/장비	9,008	42,668
• 섬유/피혁	4,042	83,216
• 자동차/운송장비	419	3,064
• 문구/선물	300	300
• 농산물	1	2
• 기타(화학제품 등)	53	17,650

④ 상품 및 카탈로그 전시

- 일시 : 9. 24 ~ 9. 25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로비
- 전시물 : 129종 1,000여 점
- 운영 : 4개국 통역 배치, 설명 및 안내
- 전시내용
  - 전시품목 (120종, 도내 48개 업체)
    - 공예품 40종 (도자기, 보석함 등) / 식음료 20종 (홍삼음료 등)
    - 주류 10종 (안동소주, 신라주, 불로주 등)
    - 공산품 50종 (예초기, 분무기, 연막소독기, DVR 등)
  - 외국 9개 품목 (의류, 원단, 식품, 포도주, 사료 등)

- 요녕성 5품목, 영하회족 자치구 4품목
- ※ 기업홍보물 및 자치단체 홍보물 등 100여 종

○ 전시성과

- 해외 바이어에게 경북상품의 우수성 인식
- 외국의 우수한 제품과의 비교전시로 연구개발 동기부여 (제품의 질, 디자인, 포장 등)
- 일부 상품에 대한 구매희망 (연락처 등 문의)

사) 행사성과 및 과제

① 주요성과

- 상설사무국을 경북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확인, 회원단체로부터 신뢰 및 인정 획득
- 민관투자촉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방안 마련
- 동북아경제통상 정보시스템을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의 부존자원과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 분석, 제공

② 과제

-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통상분과위 실무협의회 개최
- 동북아경제통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4년도 예산반영, 국제통상과 인력, 기구의 충원
- 사하공화국의 국제아동체육대회에의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추진
- 해외바이어 초청상담 시 참가 자치단체에게도 수출상담회 기회제공으로 다자간 상호 무역 상담

아) 부대행사

① 관광 및 산업시찰

② 일시 : 9. 25

③ 장소 : 경주문화엑스포, 포항제철, 불국사

④ 인원 : 65명

- 공무원 28, 바이어 30, 수행 및 통역 7

(마) 제5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기간 : 2004. 10.5 ~ 10.8

나) 장소 : 경주 현대호텔

다) 주최 :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라) 참가 : 441명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한국	9	경북,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대전, 대구광역시
중국	2	흑룡강, 하남성
일본	5	니가타, 토야마, 효고, 돗토리, 시마네현
러시아	2	아무르주, 사할린주
몽골	1	셀렝그아이막

- 연합 회원단체 통상담당 공무원 50명 (5개국 19개 단체)
- 해외바이어 86명 및 도내수출업체 200명
- 도내 유관기관 단체장 및 담당공무원 105명

마) 회의시간계획표

- 환영만찬
- 경제통상분과위 회의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우수상품 및 카달로그 전시회
- 산업시찰 (경주, 포항)

바) 회의내용 총괄

① 환영만찬

- 일시 : 2004. 10. 5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에메랄드 룸
- 참석 : 196명
  - 동북아연합 : 50명 (5개국 19개 단체 공무원)
  - 해외바이어 : 86명, 도내 유관기관단체 60명 등
- 진행
  - 환영사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 참석 내빈소개, 건배제의 (경북도, 하남성)
  - 만찬, 공연

② 동북아연합 경제분과위원회

- 일시 : 2004. 10. 6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A홀

- 참석 : 95명 (연합회원자치단체 50, 시군 공무원 45)
- 주제 : 동북아연합 경제통상교류 활성화 방안
  - 발표자 : 10명(흑룡강성, 하남성, 영하회족자치구, 토야마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전라북도, 경상북도, 아무르주)
  - 진행 : 영남대학교 이효수 교수(전 상경대학장)
  - 언어 : 한·중·일·러 4개 국어 동시통역

사) 회의 결과

[합의사항 및 협조사항 6건]

-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본 회의에 흡수 개최(공무원 2, 민간인 2)
- 수출 상담회를 병행하여 회원단체간 '전문품목상담회' 를 개최
- 외국인 투자요청 및 합작 개발에 대한 공동협력
- 회원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대해 회원자치단체의 적극 참여 및 'NEAR경제통상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회원단체간의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교류
- 회원단체들 간 여성, 공공단체, 체육,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참여
- '06년 제6회 총회 및 기업박람회에 적극적인 참여

『합 의 문』

2004년 10월 6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원 단체인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19개 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자치단체 연합 제5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8일 중국 흑룡강성에서 열린 제5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상설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명실공히 본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제안과 실천 노력이 회원 단체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동북아의 발전과 실질적 교류확대에 견인차적 역할 수행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1. 합의사항 및 협조사항

- (1) 2003년 9월 「제4차 동북아연합비즈니스촉진회의」시 의결되었던 「동북아연합 민간투자촉진 협의회」구성과 관련하여 차기 회의 시부터는 회원단체 대표자(2명)와 함께 민간경제인(2명)도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 개최 등 운영방법은 「동북아연합비즈니스촉진회의」에 흡수하여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2) 「동북아연합비즈니스촉진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는 「수출상담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통상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정상품(예: 가공식품, 자동차부품, 핸드폰 부품, 섬유기계 등)을 선정하여 「전문품목상담회」를 개최하는 경상북도의 제안에 대해 전 회원자치단체가 공감을 표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합작개발에 대하여 중국 흑룡강성, 하남성, 일본 시마네현은 지역산업과 투자여건 등을 소개하고 에너지, 농림분야, 과학기술, 관광산업 등 투자요청에 각 회원단체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하였다.
- (4) 중국 흑룡강성에서 2005년 6월 개최되는 「제16회 하얼빈 경제무역상담회」에 동북아연합 회원단체가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회원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박람회의 무역상담회에 관해서는 「NEAR경제통상정보시스템」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5) 러시아 아무르주에서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회원단체들 간에 여성, 공공단체, 체육, 문화 등 다양한 교류증진을 희망하였고 각 단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로 하였다.
- (6) 2006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6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와 이와 병행하여 개최되는 동북아 기업박람회에 전 회원단체가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상 6개항을 제5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합의 및 협조사항으로 하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작성한다.

③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시 : 10.6 ~ 10.7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 B·C홀
- 초청바이어 : 286명
  - 해외 15개국 바이어 86, 도내업체 200개사
  - 미국, 러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등
  - ※ 도내 200개사와 상담

○ 실적

- 계약추진 : 1,036만불
- 상담추진 : 2,160만불

④ 상품 및 카탈로그 전시

- 일시 : 10.5 ~ 10.8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로비

- 전시물 : 연합회원단체 특산품 전시 80개 품목, 상품 카탈로그 등 40여 종
- 아) 행사성과 및 과제

① 주요성과

- 상설사무국 유치 결정 후 경북에서 개최된 첫 국제회의로서 '동북아 경제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추진상황 영상물 보고
- '동북아 민관투자촉진협의회'의 발전적 운영방안 보고
- 주도면밀한 준비를 통한 친절한 공방영접, 환송, 신속하고 믿음직한 합의문 정리, 역사와 첨단산업 현장의 동시 시찰 등 19개 연합단체 모두 경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추억에 남을만한 행사를 경험하고 돌아간다는 반응 보임.
- 시장규모와 구매력이 큰 미주 및 러시아지역의 많은 바이어 참가

② 과 제

- '민관투자촉진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발전지향적 '경제통상분과위' 운영
- '수출상담회'와 병행하여 참가 자치단체에게도 '전문품목상담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연합회원단체들에게 경제교류 기회제공과 다자간 상호 무역상담

자) 부대행사

① 관광 및 산업시찰

② 일시 : 10.7

③ 장소 : 경주 및 포항 (포스코, 불국사, 석굴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바) 제6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기 간 : 2005. 12.1 ~ 12.3

나)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다) 주 최 :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라) 참가 : 185명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한국	7	경북,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중국	3	흑룡강, 산둥성, 하남성
일본	5	야마가타, 니가타, 토야마, 효고, 시마네현
러시아	5	브라티야공화국, 아무르주,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주, 톨스크주
몽골	1	투브아이막

- 연합회원단체 통상담당 공무원 41명(5개국 21개 단체)
- 국내외 기업인 80명(4개국 7개사)
- 시군직원 및 기타 : 64명

마) 회의시간 계획표

- 환영만찬
- 경제통상분과위 회의
- 다자간 전문품목 상담회
- 동북아사무국 방문
- 산업시찰 (경주, 포항)

바) 회의내용 총괄

① NEAR 사무국 방문

- 일시 : 2005. 12.1
- 참석 : 48명
- 내용 : 사무실 및 홍보전시관 관람, 연합 경제통상네트워크 시연회

② 환영만찬

- 일시 : 2005. 12. 1
- 장소 :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참석 : 100명
  - 동북아연합 : 41명(5개국 22개 단체 공무원)
  - 국내외기업인 : 40명
  - 초청인사 및 기타 : 19명
- 진행
  - 환영사(경북행정부지사)
  - 건배제의 (경북도, 러시아 브라티야공화국)
  - 만찬, 공연

③ 동북아연합 경제분과위원회

- 일시 : 2005. 12. 2
- 장소 :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B·C룸
- 참석 : 88명(연합회원자치단체 43, 시군 공무원 45)
- 주제 : 동북아연합 경제통상교류 활성화 방안

- 발표자 : 7명(흑룡강성, 하남성, 산둥성, 아무르주, 이르쿠츠크주,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진행 : 영남대학교 이효수 교수(전 상경대학장)
- 언어 : 한·중·일·러 4개 국어 동시통역

사) 회의 결과

[합의사항 1건]

- 7회 회의부터 회의를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

[협조사항 3건]

- 중국 흑룡강성, 산둥성,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지역개발프로젝트에 회원단체의 현지투자, 기술합작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
- 2006년도 중국 하남성 및 경상남도 개최 국제박람회 적극참여
- 러시아 아무르주와 중국 흑룡강성간 국제경제특구 개발에 회원단체 적극참여

「합 의 문」

2005년 12월 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원단체인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21개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제6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의 톰스크주가 처음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특히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2004년도 회의 시 합의한 바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다자간 전문품목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상담회는 중국, 한국, 몽골, 러시아 등 4개국 9개 단체 60개 업체 95명의 바이어와 셀러가 전기, 전자, 섬유, 농수산물 가공, 기계류 등 4개 품목을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상담이 이루어졌다.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는 「동북아지역 경제통상 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놓고 참석 회원단체간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다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1. 합의사항

- (1) 7회 회의부터는 회의를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부에서는 회원단체별 주제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공동주제를 논의한다.

2. 협조사항

- (1) 중국 흑룡강성에서 추진 중인 6대 기지 건설사업과 산둥성에서 추진 중인 중점 개발계획 그리고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현지투자, 기술합작 등 요청에 대

하여 각 회원 단체간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2) 2006년도에 중국 하남성에서 개최되는 국제투자무역상담회(4월), 한국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국제자동차 정밀기기전(5월), 자동차부품전시회(6월), 국제기계박람회(10월)에 각 회원 단체가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 행사계획은 동북아자치단체 연합사무국에서 발간되는 뉴스레터지와 경제통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기로 하였다.
- (3) 러시아 아무르주와 중국 흑룡강성 간 국제경제특구개발에 회원단체의 업체가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아무르주에서는 회원단체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상 4개항을 「제6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분과위원회」 합의 및 협조사항으로 의결하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작성한다.

④ 다자간 전문품목 상담회

- 일시 : 12.2
- 장소 :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초청바이어 : 95명 (국외바이어 3개국 15개사 20명, 국내 50개사 75명)
- 실적
  - 계약추진 : 500만불
  - 상담추진 : 1000 만불

⑤ 우수상품 및 카탈로그 전시

- 일시 : 12. 1 ~ 12. 2
- 전시물 : 연합회원단체 특산품 전시 70개 품목, 카탈로그 전시 50종

아) 행사성과 및 과제

① 주요성과

- 회원단체대표 동북아연합 사무국 방문 및 경제통상네트워크 시연회 개최로 명실상부한 동북아중심 회원단체로 위상제고
- 지난 해 합의사항인 '다자간전문품목상담회' 개최를 통한 수출증대 도모
- 7차 비즈니스촉진회의부터 1차와 2차 회의구분 실시로 내실운영 합의 등 경북도가 동북아연합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

자) 부대행사

① 관광 및 산업시찰

② 일시 : 12. 1 ~ 12. 2

③ 장소 : NEAR사무국, POSCO, 불국사, 석굴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 제7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기 간 : 2006. 12.5 ~ 12.8

나)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다) 주 최 :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라) 참가 : 5개국 35개 단체 300여 명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한국	6	대구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도
중국	5	산둥, 섬서, 호남, 호북, 흑룡강성
일본	4	아마가타, 니가타, 시마네, 토야마현
러시아	8	알타이변경주, 브라티야공화국, 트이바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톰스크주, 하바롭스크변경주
몽골	12	비안울기, 비안흥고르, 불간, 도르노고비, 도르노드, 고비알타이, 헝티셀렝그, 투브, 움느고비, 읍스, 자브항아이막

마) 회의시간계획표

- 환영만찬
- 경제통상분과위 회의
- 다자간 무역상담회 및 상품카탈로그 전시회
- 산업시찰 및 문화유적 답사 (POSCO, 민속공예촌, 대릉원 등)

바) 회의내용 총괄

① 환영만찬

- 일시 : 2006. 12. 5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 참석 : 250여 명
  - 회원자치단체공무원, 바이어, 기업인
  - 국내 초청인사, 유관기관, 기타
- 진행
  - 개회, 참석자 소개, 환영사, 축사 등

- 건배제의
- 만찬, 공연

② 동북아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일시 : 2006. 12. 6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 참석 : 130명 (연합회원자치단체 33)
- 주제 : 회원 자치단체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통상증대 방안
  - 발표자 : 16건 (섬서성, 시마네현, 하바롭스크변경주, 헝티아이막, 경기도, 브라티야공화국, 산둥성, 알타이변경주, 바양홍고르아이막, 호남성, 읍스아이막,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톱스크주, 호북성)

「합 의 문」

2006년 12월 6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회원 단체인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32개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7차 경제통상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와 함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다자간 무역상담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상담회는 중국·한국·몽골·러시아 등 4개국 22개 단체 66개 업체 180여 명의 바이어와 셀러가 전기·전자, 섬유, 농수산물 가공, 기계류 등 4개 품목을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상담이 이루어졌다.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통상 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놓고 참석 회원 단체간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다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1. 합의사항

- (1) 중국에서는 섬서성의 서부 대개발 전략 추진, 산둥성의 창조적인 지역 건설, 호남성의 중부 쉼기정책 추진 소개를 통해 동북아 지역간 경제협력을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회원단체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력하기로 한다.
- (2) 러시아에서는 하바롭스크변경주가 목재, 수산물, 물류 수송분야에서, 브라티야공화국이 관광 분야에서, 알타이변경주가 곡물생산을 바탕으로 한 공산품과 관광분야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가 관광산업과 투자협력발전 분야에서, 톱스크주가 과학·교육 분야에서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회원단체 간 다방면의 교류와 투자를 기대함에 따라 회원단체는 적극

적으로 호응하고 협력하기로 한다.

(3) 몽골에서는 바얀호그르아이막이 자체 경제발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헨티아이막은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읍스아이막은 갈매나무 생산에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회원단체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4)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기업체의 선진 국제화 경영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였으며, 한국 경기도에서는 회원단체간 기업 CEO 연수를 통한 상호 통상증대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회원단체도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 2. 협조사항

(1) 2007년 4월 중국 섬서성에서 개최되는 “중국 동서부지역 협력투자 무역상담회”에 각 회원단체가 적극 참여하기로 한다.

이상 5개항을 「제7차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경제분과위원회」 합의 및 협조사항으로 결정하고, 연합 회원단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006년 12월 6일

2006동북아시아비즈니스촉진회의 참가단체 대표

### ③ 다자간 전문품목 상담회

- 일시 : 12. 6
-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 B·C홀)
- 참석 : 약 180명 (국내외 바이어 및 기업인)
  - 해외 - 4개국 22개 자치단체 (66개 업체 80명)
  - 국내 - 6개 자치단체 (80개 업체 100명)
- 실적
  - 총상담액 : 7,569천불

### ④ 우수상품 및 카탈로그 전시

- 일시 : 12. 6
- 장소 : 현대호텔 (상담장 및 로비)

### 사) 부대행사

- ① 관광 및 산업시찰
- ② 일시 : 12. 7
- ③ 장소 : POSCO, 불국사, 민속공예촌, 대릉원

(아) 제8회 회의 ( '2007동북아국제경제포럼 및 다자간 무역상담회' 로 대체)

1) 회의개요

가) 기 간 : 2007. 10.16 ~ 10.19

나)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다) 주 최 : 경상북도, NEAR사무국 공동주최

라) 참 가 : 5개국 22개 단체 300여 명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한국	5	강원, 경남, 경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국	1	흑룡강성
일본	6	교토, 니가타, 시마네, 야마가타, 토야마, 돗토리현
러시아	1	이르쿠츠크주
몽골	10	도르노고비, 비양홍고르, 불강, 오르홍, 움느고비, 셸렝그, 투브, 호브드 바양올기아이막, 울랑바타르시

마) 회의시간 계획표

- 환영만찬
- 국제경제포럼회의, 다자간 무역상담회 동시 개최
- 산업시찰 및 경주EXPO관람

바) 회의내용 총괄

- ① 2007제1회 NEAR국제경제포럼
- ② 일시 : 2007. 10. 17
- ③ 장소 : 대구 인터불고 호텔
- ④ 주관 : NEAR사무국, 경상북도 공동
- ⑤ 주제 : “동북아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증진”
- ⑥ 참석 : 약 150명 (경제전문가, 회원자치단체 공무원 등)
  - 포럼발표자 - 5개국 11명

국가명	포럼 발표자
한국	김영호(유한대 총장), 김인철(성균관대 교수), 손병해(경북대 교수)
중국	장위엔(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부소장), 장진(상해복단대 교수)
일본	이와쿠니 테츠노(중의원 의원), 와다 하루키(동경대 명예교수)
러시아	이반코프(시베리아협의회 사무총장), 브리야나톨리(극동바이칼경제협의회 사무국장)
몽골	도우동 발차르(중앙몽골 개발청장), 하쉬출롱(국립몽골대학 경상대학 학장)

사) 다자간 무역상담회

- ① 일시 : 10. 17
- ② 장소 : 대구 인터블고 호텔 (컨벤션홀)
- ③ 참석 : 약 130명 (국내외 바이어 및 기업인)
  - 해외 - 2개국 8개 자치단체 22개사 23명(러, 몽골)
  - 국내 - 한국 각 지자체 기업 100명 정도
- ④ 주관 : 경상북도
- ⑤ 협조 : 무역협회, KOTRA, 경북통상(주), 한국수입업자협회 등
- ⑥ 품목 :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농축수산 등
- ⑦ 운영방식
  - 단체 무역상담회, 경북우수상품 전시 개최
  - 우수상품 전시회 병행개최
    - 경북 투자유치, 관광홍보부스 설치 운영
    - 국내외 참가기업체 우수상품 및 홍보부스 제공
  - 실적
    - 총상담액 : 8,200천불
    - 계약유망 상담수 : 6건

아) 부대행사

- ① 관광 및 산업시찰
- ② 일시 : 10. 18
- ③ 장소 : POSCO, 경주 EXPO

나. 환경분과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 1998년 10월에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회의98](제2차 총회)에서 설치된 5개 분과위원회(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 중 하나
- 1999년 7월에 열린 첫 회의에서 토야마현이 연락, 조정, 운영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선출되었고, 환경협력(공동조사 등)에 대한 추진방안이 검토되어 환경에 관한 개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통일적인 조사(개별프로젝트 제안조사, 개별프로젝트 참가의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환경관련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단체 간 의견 조정과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

(2) 구성현황 (4개국 21개 단체)

코디네이터 : 토야마현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9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한국	2	충청남도, 강원도
몽골	2	투브아이막, 셸렝그아이막
러시아	8	치타주, 브라티야공화국, 사하공화국,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이르쿠츠크주, 사할린주

(3) 주요활동

(가) 제1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일시 : 1999. 7. 14

나) 장소 : 토야마현 다이이치(第一) 호텔

다) 참여 : 5개국 19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8 (1)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시마네현(돗토리현)
한국	1 (3)	충청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러시아	2	브라티야공화국, 하바롭스크변경주
중국	(3)	(요녕성, 길림성, 산둥성)
몽골	(1)	(투브아이막)

라) 주요내용

-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선출
- 환경협력(공동조사 등) 추진방안 검토
  - 개별프로젝트 제안조사, 참가의향조사 등에 관해 통일적인 조사표에 따라 실시할 것, 그 리고 조사표의 사용언어는 영어로 할 것 등

(나) 제2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일시 : 2000. 8. 2

나) 장소 : 토야마 국제회의장 2층 홀

다) 참여 : 3개국 15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7(1)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한국	1(1)	충청남도(전라북도)
러시아	3(2)	아무르주, 사할린주, 연해변경주(캄차카주, 극동자바이칼협회)

라) 주요내용

- 1999년에 제안된 개별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4개 프로젝트가 연합 자치단체의 참가를 통해 실시하게 되었음.
  - 동해 연안 해변의 매립·표착물조사(일본 10개 단체, 러시아 3단체(하바롭스크변경주, 연해변경주, 사할린주))
  - 동북아시아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토야마현, 연해변경주)
  - 동북아시아 환경평가 공동사업(일본 8개 단체)
  - 동북아시아 야생생물조사사업(돗토리현, 토야마현, 강원도,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하공화국)
- 환경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의
  - 2000년도 개별 프로젝트의 제안, 참가의향조사 등을 실시
  - 환경분과위원회의 연1회 정도의 정례적 개최

(다) 제3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일시 : 2001. 7. 12

나) 장소 : 토야마 현민회관 302호실

다) 참여 : 4개국 13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8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시마네현
한국	1(1)	충청남도(충청북도)
러시아	(1)	(극동자바이칼협회)
몽골	(2)	(흑룡강성, 영화회족자치구)

라) 주요내용

○ 2001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

• 동해연안해변의 매립·표착물 조사

동해연안의 인공물 매립·표착 상태에 대해 참가 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기로 함. 그리고 2001년부터 큐슈의 3개 자치단체가 참가하기로 함.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시베리아를 비롯한 대륙에서 이동하는 철새의 이동경로, 수명, 번식시작연령 등을 해명하기 위한 표식조사를 러시아 연해변경주와 공동 조사하기로 함. 그리고 2001년도는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및 사할린 주, 한국 충청남도에서 조류조사에 관한 연수생을 토야마현에 파견하기로 함.

•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심포지움

일본의 8개 단체가 동북아시아 지역 환경협력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중국, 한국, 러시아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중국(2001년), 한국(2002년), 러시아(2003년)에서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환경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함.

○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선출- 토야마현 (2001년 7월~2년간)

○ 환경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3회 실무위원회에 개요 및 활동내용 보고

○ 기타 (환경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안 등)

- 각 자치단체의 국제환경공동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소개하여 가능한 더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하고,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라) 제4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일시 : 2002. 7. 11

나) 장소 : 토야마 현민회관 302호실

다) 참여 : 5개국 17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7(1)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한국	1(1)	충청남도(경상북도)
러시아	3	사할린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연해변경주
중국	(3)	(요녕성, 흑룡강성, 산둥성)
몽골	(1)	(투브아이막)

라) 주요내용

- 2001년 ~ 2002년 환경분과위원회 활동 개요 및 개별 프로젝트 실시상황 설명
  - 동해연안해변의 매립·표착물 조사 실시상황 및 결과보고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실시상황 및 결과보고
  -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심포지움 : 환경보호대책과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기 위해 연안에 위치한 단체 (2001년 : 중국 강소성, 2002년 한국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심포지움 실시내용 보고
  - 환동해지역 '산의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움 실시내용 보고
- 2003년 개별프로젝트 제안 및 설명
  - 연합 환경분과위원회의 환경정책 관련 정보교류 사업
    - 환경분과위원회 참가단체간의 인터넷을 통한 환경정책 정보교류사업
  - 농촌 생활하수처리기술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 환경 NGO의 행정참여에 관한 심포지움
    - NGO와 행정기관의 환경정책 공동참여 및 기획
  - 2003년 동북아 국제환경 심포지움
    -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움에 관하여
  - 동해·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동해 및 황해연안에서 실시하는 해변의 표착물 조사에 대하여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 철새 이동경로 등을 해명하기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에서 실시하는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에 대하여
- 환경분과위원회 활동일지
- 기타
  - 환경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해
  - 환경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의 국제환경협력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설명 및 각 단체의 실시상황에 대한 사례보고
    - '환동해·동북아시아 그린벨트 구상' (토야마현 제안) 설명  
환동해·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보호는 각국, 각 지역 공통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참가자들은 토야마대학 극동지역연구센터의 카와다 교수가 제안한 환동해 및 동북아시아의 상호이해 강화와 숲과 강, 바다를 하나로 묶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환동해·동북아시아 그린벨트 구상'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참가자들이 인식을 같이함.

• 환경관련 정보제공

- '폐기물 처리 현황'을 주제로 각국당 1 단체씩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 (중국 : 흑룡강성, 일본 : 후쿠이현, 한국 : 충청남도, 러시아 : 하바롭스크변경주, 몽골 : 투브아이막)

(마) 제5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일시 : 2003. 10. 16

나) 장소 : 오크스카날파크호텔 토야마

다) 참여 : 4개국 14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8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한국	2 (1)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중국	(2)	(흑룡강성, 산둥성)
몽골	1	투브아이막

※ 환경성 지구환경국 환경협력실장 참석

라) 주요내용

-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선출- 토야마현(2005년 7월 13일까지)
- 신규 참여 자치단체 소개- 돗토리현(일본), 강원도(한국), 치타주(러시아), 투브아이막, 셀렝그아이막(몽골)
- 2002년 ~ 2003년 환경분과위원회 활동 개요 및 개별 프로젝트 실시 개요 설명
- 연합 환경분과위원회의 환경정책 관련 정보교류 사업
  - 환경분과위원회 참가단체간의 인터넷을 통한 환경정책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개설된 웹 사이트의 작성상황에 관하여
- 농촌 생활하수처리기술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 2003년 9월에 예정되었던 심포지움을 2005년으로 연기
- 환경 NGO의 행정참여에 관한 심포지움
  - 2003년 9월에 예정되었던 심포지움을 2005년으로 연기
- 2003년 동북아 국제환경 심포지움
- 2003년 11월 실시되는 심포지움 개최에 관하여
- 동해 · 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 동해 및 황해연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변의 표착물 조사 실시상황 및 결과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 러시아 연해변경주 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의 실시상황 및 결과
- 2004년 개별프로젝트 제안 및 설명
- 동해·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 어린이 해양안전 환경교육 및 계몽활동
  - 동북아시아지역의 어린이들이 함께 환경보호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서로 발표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환경교육과 계몽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 환경분과위원회 활동일지
- 기타
  - ‘환동해 환경백서 2003’ 개요 설명 및 토론  
환동해지역의 환경보전 현황을 이해하고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환동해 환경백서 2003’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 자치단체가 의견을 교환. 이와 함께 지역의 환경보호 현황소개와 문제제기가 있었음.

(바) 제6회 회의

- 1) 회의개요
  - 가) 일시 : 2004. 7. 22
  - 나) 장소 : 오크스카날파크호텔 토야마
  - 다) 참여 : 5개국 15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7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한국	2(1)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중국	(3)	(요녕성, 흑룡강성, 산둥성)
러시아	1	연해변경주
몽골	1	투브아이막

※ 일본 환경성 지구환경국 환경협력실장보좌 참석

라) 주요내용

- ① 보고사항
  - 각 자치단체의 환경현황 및 과제

요녕성, 충칭남도, 강원도, 연해변경주,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이시카와현, 교토부에서  
환경현황 및 과제에 관해 보고

- 2004년 개별 프로젝트 실시상황 보고
- 동해·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토야마현)
  - 동해 및 황해연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변의 표착물 조사 실시상황 및 결과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토야마현)
  - 러시아 연해변경주등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의 실시상황 및 결과
  -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토야마현, 충칭남도)
  - 2004년 8월 한국 충칭남도에서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개요 설명

마) 주요내용

- 2005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상황

① 신규

- 동해연안 기름오염 현황평가 (연해변경주)
  - 동해연안지역에서 실시하는 토양의 기름오염에 관한 조사
- 동북아 환경보호 국제 유스 심포지움 (연해변경주)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관한 심포지움

② 기존

- 동해·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토야마현)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토야마현)
-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토야마현, 요녕성)
  - 환경보호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요녕성에서 2005년 8월 개최예정인 동북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개요 설명
- 환경분과위원회 활동 계획

(사) 제7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일시 : 2005. 7. 14

나) 장소 : 오크스카날파크호텔 토야마

다) 참여 : 5개국 14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4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효고현
중국	{3}	(요녕성, 흑룡강성, 산둥성)
몽골	1	셀렝그아이막
한국	2(1)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러시아	3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 일본 환경성 지구환경국 환경협력실장보좌 참석

라) 주요내용

① 보고사항

- 각 자치단체의 환경 현황과 과제 보고
- 셀렌게 아이막 : 삼림의 상실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 및 그 대책
- 하바롭스크변경주 : 아무르강 수질오염대책, 도시부의 대기오염대책, 황새보호, 자연보호 구역 관리
- 사할린주 : 수질오염대책, 유해폐기물 적정처리, 천연자원 및 자연보호구역 관리
- 효고현 : 환경보전 (創生) 5% 시스템, 디젤자동차의 운행규제
- 흑룡강성 : 송화강유역 등의 수질오염의 현황 및 대책
- 산둥성 : 대기오염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대기오염 대책
- 경상북도 : 휴폐광된 금속광산 인근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 조사
- 2005년 개별 프로젝트 실시상황 보고
- 동해연안 기름오염 현황평가(연해변경주)
  - 참여 자치단체가 적어 실시중지.
- 동북아시아지역 환경보호 국제 유스 심포지움(연해변경주)
  - 2005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예정
- 동해·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토야마현)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토야마현)
-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토야마현, 요녕성)
  - 동북아시아지역 청소년(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심포지움. 2005년 8월에 중국 요녕성에서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주제로 개최 예정

② 협의사항

-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선출 - 토야마현(임기 2년)

- 2006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 상황
- ③ 신규사항
  - 동해 해저지형 및 저생생물군집의 생물 다양성 및 분포 조사 (연해변경주)
- ④ 기존 프로젝트
  - 동해·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토야마현)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토야마현)
  -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토야마현)
  - 환경분과위원회 활동 계획

(아) 제8회 회의

- 1) 회의개요
  - 가) 일시 : 2007. 7. 30
  - 나) 장소 : 토야마 국제회의장
  - 다) 참여 : 5개국 10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4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교토부, 돗토리현
중국	(2)	(요녕성, 산둥성)
몽골	(1)	(도르노고비아이막)
한국	2	강원도, 충청남도
러시아	1	하바롭스크변경주

※ 일본 환경성 지구환경국 환경협력실장보좌 참석

라) 주요내용

- ① 보고사항
  - 각 자치단체의 환경 현황과 과제 보고
  - 충청남도 : 충남의 건전한 자연환경 구축
  - 이시카와현 : 이시카와현의 환경국제협력사업
  - 교토부 : 교토부의 지구온난화 대책 방안
  - 산둥성 : 중국 산둥성의 환경문제와 대책
  - 요녕성 : 2006년 요녕성의 환경상황과 대책
  - 도르노고비아이막 : 도르노고비아이막의 황야화, 야생동물 종류감소에 따른 각종 문제와 원인

- 2007년 개별 프로젝트 실시상황 보고
- 동해·서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토야마현)
  - 2008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 예정
- 동북아 철새 공동조사 (토야마현)
  - 극동지역 철새에 관한 공동조사, 올해로 일단 사업중지 예정
- 동북아 청소년 환경 보호 리더 회의 (토야마현)
  - 동북아지역의 환경보전을 담당할 리더가 될 청소년 (중학생 등)을 육성하기 위한 회의, 2007년 8월에 일본 토야마에서 '해양환경보전(해양쓰레기)'를 주제로 개최 예정

② 협의사항

-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선출- 토야마현 (임기 2년)
- 2006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 상황  
러시아 연해변경주 및 토야마현에서 2008년 개별 프로젝트로서 다음 4개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개요설명 및 참가요청이 있었다.

③ 신규사항

- 제3회 국제환경포럼 '경계가 없는 자연' (연해변경주)
  - 적절한 환경형성, 안전한 폐기물 처리, 합리적인 천연자원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 및 국내지역간 협력 촉진에 관한 검토, 의견교환 실시
- 황사를 대상으로 한 광역 모니터링 제도 구축 (토야마현)
  - 국내외 자치단체, 경제계, 학계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황사 실태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간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황사 대책 수립 및 실시
- 동북아지역 환경체험프로그램 (토야마현)
  - 자치단체, 경제계, 학계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재를 육성

④ 기존 프로젝트

- 동해·황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토야마현)

다. 문화교류분과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1998년 10월에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회의98](제2차 총회)에서 설치된 5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 동북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이해와 우호교류 증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있는 전통 예능 단체의 초청공연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동북아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등 동북아의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

(2) 구성현황 (3개국 9개 단체)

코디네이터 : 시마네현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3	니가타현, 교토부, 시마네현
중국	1	산둥성
러시아	5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 이르쿠츠크주, 사할린주

(3) 주요활동

(가) 제1회 회의

- 1) 취지 :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업 사례를 참고 삼아 향후 다자간 공동사업실시 가능성에 대해 검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연합의 지원 및 참가에 대해서도 검토
- 2) 기간 : 2001. 11.7 ~ 11.9
- 3) 장소 : 시마네현 마츠에市
- 4) 참여 : 3개국 9개 단체
- 5) 주요내용
  - 가) 공동사업 실시사례 발표
  - 나) 공동사업 제안
  - 다) 기타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교류의 날개〉

1) 개 요

동북아시아지역의 청소년들이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호이해와 우호교류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청년 교류사업

(나) 제2회 회의(2002년도)

- 1) 제목 : 한중일 국민교류기념사업~한중일을 잇는 '교류의 날개'
- 2) 취지 : 중일 국교정상화 30주년, 한중 국교정상화 10주년 및 2002 월드컵 공동개최를 맞이하여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정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국민적인 교류사업을 실시하기로 한중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시마네현의 우호교류단체인 한국 경상북도와의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와 공동으로 각각 청년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서로 청소년을  
파견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교류 추진

- 3) 주최 : 일본 시마네현, 한국 경상북도,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
- 4) 후원 : 외무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 5) 일정 : 중국 프로그램 2002. 8. 1 ~ 8. 8  
일본 프로그램 2002. 8. 23 ~ 8. 28  
한국 프로그램 2003. 2. 20 ~ 2. 27

**(다) 제3회 회의(2003년도)**

- 1) 제목 : 한중일을 잇는 '교류의 날개'
- 2) 취지 : 시마네현과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와의 우호체결 1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3지역이 공동으로 청소년을 상호 파견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교  
류를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성을 목표로 했다.
- 3) 주최 : 일본 시마네현, 한국 경상북도,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 후원 : 외무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 일정 : 일본 프로그램 2004. 1. 30 ~ 2. 4  
중국 프로그램 2004. 2. 19 ~ 2. 26

**(라) 제4회 회의(2004년도)**

- 1) 제목 : 2004년 동북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 2) 취지 : 시마네와 경상북도의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중국 길림성과 우호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시마네현, 경상북도, 길림성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기타 동북아시아(중국 영하  
회족 자치구, 러시아 연해주)의 청년들이 시마네현에 와서 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각 지역의 상호이해 및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새로운 네트워크형성
- 3) 주최 : 일본 시마네현, 한국 경상북도,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길림성, 러시아 연해변경주
- 4) 후원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 5) 일정 : 2004. 8. 19 ~ 8. 24

**(마) 제5회 회의(2005년도)**

- 1) 제목 : 2005년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 2) 취지 : 시마네현이 우호교류 관계에 있는 동북아시아지역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중국 길림  
성, 러시아 연해변경주)의 청년을 대상으로 본 현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 지

역의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 3) 주최 : 시마네현
- 4) 후원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 5) 일정 : 2005. 7. 21 ~ 7. 26
- 6) 참여단체 : 시마네현, 영하회족자치구, 길림성, 연해변경주

**(바) 제6회 회의(2006년도)**

- 1) 제목 : 2006년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 2) 취지 : 동북아시아지역 청년들이 시마네현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호이해 및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
- 3) 주최 : 시마네현
- 4) 후원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 5) 일정 : 2006. 8. 3 ~ 8. 8
- 6) 참여단체 : 시마네현, 영하회족자치구, 길림성, 흑룡강성, 연해변경주, 사하공화국

**(사) 제7회 회의(2007년도)**

- 1) 제목 : 2007년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 2) 취지 : 동북아시아지역 청년들이 시마네현의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호 이해와 우호교류를 추진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
- 3) 주최 : 시마네현
- 4) 후원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 5) 일정 : 2007. 8. 2 ~ 8. 7
- 6) 참여단체 : 시마네현, 영하회족자치구, 길림성, 산둥성, 연해변경주, 사하공화국, 브라티야공화국, 투브아이막, 홉스쿨아이막

**(아) 제8회 회의(2008년도)**

- 1) 제목 : 2008년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 2) 취지 : 동북아시아지역 청년들이 시마네현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
- 3) 주최 : 시마네현
- 4) 후원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 5) 일정 : 2008. 8. 7 ~ 8. 12

- 6) 참여단체 : 시마네현, 영하회족자지구, 길림성, 연해변경주, 사하공화국, 도르노드아이막, 움느고비아이막

<동북아 국제문화 팔레트사업>

○ 개요

동북아 국제 문화 팔레트 사업은 동북아지역에서 전통예능 단체를 초빙, 공연이나 주민들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동북아지역 전통문화, 예능을 널리 소개하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촉진을 위한 것.

1) 2005년도

가) 영하가무단 공연

① 활동내용

시마네 예술문화센터 ‘그란토와’에서 11월 6일 개최한 제19회 ‘마스다 산업제’(주최: 마스다시(益田市) 상공회의소 청년부)에서 영하회족자지구의 전통예능단의 공연이 펼쳐짐. 그리고 마츠에시의 ‘가시마 문화홀’, 마스다시의 ‘후레아이 홀 미토’에서 공연을 열고 예능단과 주민들의 교류 기회를 통해 중국 전통문화를 소개

나) 블라디보스톡 일본센터 일본 문화 동호회 부지사 예방

① 활동내용

고우츠키 종합시민센터에서 11월 27일에 개최된 ‘러시아 민속 예능과 시민의 모임’에서의 공연, 홈스테이, 학교방문. 하마다시나 츠와노쵸에서 일본문화 체험과 워크숍을 통한 교류

2) 2006년도

가) 길림성 길극단 공연

① 활동내용

시마네현 예술문화센터 ‘그란토와’에서 11월 5일 공연. 시마네현내의 양호시설, 장애인 시설, 초등학교 등의 방문교류

3) 2007년도

가) 러시아 소녀민요코러스 ‘야르마르카’ 공연

① 활동내용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마츠에 잉글리쉬 가든, 오키노시마쵸 문화제, 하마다시 세계 어린이 미술관, 고우츠키 산업제 등에서 공연. 마츠에시, 니시노시마쵸의 학교나 고우츠키시의 와키 공민회관 등도 방문 교류

나) 한국 리사이클 창조 공연 그룹 ‘놀이단’ 공연

① 활동내용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마츠에시내의 쇼핑가 등에서 공연 및 퍼레이드, 요코다 커뮤니티센터 마츠에 잉글리쉬 가든, 오키노시마쵸 문화제, 하마다시 세계어린이 미술관, 고우츠시 산업제 등에서도 공연했으며 마츠에시, 니시노시마쵸의 학교와 고우츠시의 와키 공민회관 등도 방문 교류. 그리고 공연과 교류활동에 앞서 마츠에 공업고등학교에서 폐품 재활용을 통한 악기 제작 워크숍을 열었음.

4) 2008년도

가) 영하가무단 공연

① 활동내용

11월 18일 마츠에시의 시마네현민회관에서 공연. 11월 20일 하마다시의 시마네현립대학 강당에서 이시미 카구라(하마다상업고교 향토예능부)와의 공동 공연

※ 문화교류분과위원회는 2008년 산동성에서 열린 제7차 총회에서 일반교류분과위원회와 통합하여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로 변경됨.

라. 방재분과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방재분과위원회는 현재 일본 5개 단체, 몽골 1개 단체, 러시아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재 분야의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방재 능력 향상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재분과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에 따라 지진, 수해, 산불, 가뭄 등 발생재해의 종류 및 각 자치단체의 대처 능력에 차이가 있기에 정보 및 인재 방면의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구성현황 (3개국 11개 단체)

코디네이터 : 효고현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5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몽골	1	투브아이막
러시아	5	사하공화국,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캄차카주, 사할린주

(3) 주요활동

(가) 제1회 회의

1) 취지 :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각 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방재체제 및 지역간 연계의 강화를 위해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방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재대책의 상황 및 과제에 대해서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고 '한신 아와지 대지진 기념 사람과 방재미래센터'의 기능 등에 대해 소개

2) 일시 : 2002년 7월 23일

3) 장소 :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4) 참여 : 4개국 12개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2	산둥성, 영하회족자치구
일본	5	토야마현, 후쿠이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한국	4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러시아	1	하바롭스크변경주

5) 주요내용

- 각 자치단체 방재대책 소개
- 영하회족 자치구 : 지진 및 가뭄 대책
- 충청북도 : 풍수해 연구
- 하바롭스크변경주 : 산불 대책, 흑룡강성과 아무르강의 환경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측정치를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
- 동북아시아지경의 방재교류 추진방법에 관한 의견교환
-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시찰

(나) 제2회 회의

1) 일시 : 2004년 2월 12일

2) 장소 : JICA 센터 브리핑룸

3) 참여 : 5개국 12개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2	요녕성, 영하회족자치구
일본	3	토야마현, 후쿠이현, 효고현
한국	2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몽골	1	투브아이막
러시아	4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캄차카주, 사하공화국

4) 주요내용

- 각 자치단체 주민의 방재의식 고양 노력 보고
- 요녕성 : 지진방재주관부서에서 계몽사업 추진.
- 토야마현 : 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진연구성과를 알리고 자주(自主)방재조직의

결성 추진

- 투브아이막 : 홍보활동 및 삼림과 초원의 화재 예방활동
- 부산광역시 :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활동. 매월 5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매월 15일인 민방위의 날에는 재해훈련과 방재교육 실시
- 캄차카주 : 러시아연방 교육부의 지령에 따라 긴급사태방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학생을 위한 특별코스인 BLS, SAL을 1994년부터 시작
- 아시아 방재센터 소개
- 해외 식수조립 지원사업 설명, 설문조사 실시에 합의
- 방재분과위원회 회의와 연계한 방재 연수 실시

(다) 제3회 회의

- 1) 취지 : 2002년 개최된 제 1회 방재분과위원회에서 한신아와지대지진 (고베대지진)을 교훈 삼아 효고현이 실시중인 노력에 관하여 시찰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2월에 이어 방재분과위원회에 의한 방재시찰연수 실시 이번 연수에서는 재해다발지역인 아시아의 다국간 방재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 된 '아시아 방재센터'가 실시하는 강습을 통해 다국간 방재협력의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지 10년째 되는 해에 개최되는 만큼 효고현이 지진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해온 방재거점시설을 시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북아시아의 방재대책 향상에 기여
- 2) 일시 : 2005년 2월 1일~2월 4일
- 3) 장소 : 아시아 방재센터
- 4) 참여 : 5개국 10개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1	산둥성
일본	1	효고현
한국	4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몽골	2	투브아이막, 셸렝그아이막
러시아	2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5) 주요내용

- 방재강습 : 아시아의 재해와 그에 관한 대책 (아시아 방재센터)
- 방재거점시찰 : 효고현 재해의료센터, 효고현 외상스트레스 연구소, 효고현 재해대책센터, 미키 지진기념공원 (실제크기 3차원 진동파괴 실험시설)

(라) 제4회 회의

- 1) 취지 : 동북아시아 방재체제의 충실화 및 강화에 이바지하고 지역간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 4회 방재분과위원회를 개최. 각 자치단체 방재담당자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방재거점 시설을 시찰할 기회 제공
- 2) 일시 : 2006년 2월 1일~2월 2일
- 3) 장소 : 효고현 재해대책센터
- 4) 참여 : 5개국 12개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1	영하회족자치구
일본	1	효고현
한국	7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몽골	1	셀렝그아이막
러시아	2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하공화국

5) 주요내용

- 방재강습 : 효고현의 광역 방재협력에 대하여
- 방재거점시찰 : 효고현 재해대책센터, 아시아 방재센터,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효고현 재해의료 센터

(마) 제5회 회의

- 1) 취지 : 동북아시아의 재해 감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5차 방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재담당자의 실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수 및 광역방재협력의 틀 조성에 힘쓰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방재담당자(과장급)간의 정보교류 실시
- 2) 일시 : 2007년 2월 13일(화)~2월 16일(금)
- 3) 장소 : 효고현 (고베시, 아와지시, 미키시)
- 4) 참여 자치단체 : 5개국 14개 자치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1	영하회족자치구
일본	1	효고현
한국	7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몽골	2	투브아이막, 헝티아이막
러시아	3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연해변경주

5) 주요내용

가) 참가형, 과제해결형 연수 실시

- 해저드 맵 작성 시뮬레이션 (강의 및 효고현 광역방재센터 현지연수)
- 방재강습 (효고현의 방재대책)

나) 광역 방재협력 추진

- 효고현 제안설명 : 구조물자 표시의 통일화 방안 제안
- 선도사례 발표 : 경기도, 부산광역시, 하바롭스크변경주
- 구조물자 표시 통일화 방안에 대한 내용 및 일정에 관한 합의 형성

다) 현내 시찰

- 효고현 광역방재센터 (응급물자의 집적 및 배송과 응급활동요원의 집결 및 출근 거점)
- 효고현 재해대책센터 (최고의 내진성을 갖춘 재해시 지휘 거점)
-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교훈을 세계로 알리는 방재 박물관)
- 아와지유메부타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시설)
- 아카시 해협대교 (내진성이 뛰어난 세계 최장 현수교)

(바) 제6회 회의

- 1) 취지 :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교훈을 계승하고 동북아 전체의 재난 및 재해 대처 능력 향상
- 2) 일시 : 2008년 3월 3일(월)~3월 6일(목)
- 3) 장소 : 효고현
- 4) 참여 자치단체 : 5개국 17개 자치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3	영하회족자치구, 호북성, 호남성
일본	1	효고현
한국	5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몽골	5	고비알타리아이막, 도르노고비아이막, 움느고비아이막, 우부르항가리아이막, 오르홍아이막
러시아	3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하공화국, 캄차카주

5) 주요내용

가) 방재강습

국토교통성 수자원정책과장의 기초강연 : 방재와 환경

나) 선진사례 발표

효고현, 호북성, 경기도, 하바롭스크변경주, JICA 효고

다) 방재 관련 기관 시찰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롯코 치산(治山) 사무소 사방(砂防)사업 현장시찰

(사) 제7회 회의

- 1) 취지 : 방재담당자의 현장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와 광역방재협력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재난 감소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회원 자치단체 방재 담당자(과장급 직원)을 효고현에 초청하여 제7회 방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함.
- 2) 일시 : 2009년 3월 10일(화)~3월 13일 (금)
- 3) 장소 : 효고현
- 4) 참여 자치단체 : 5개국 20개 자치단체

※ 사천성은 비회원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6	영하회족자치구, 호북성, 호남성, 산둥성, 허남성, 사천성
일본	1	효고현
한국	10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몽골	2	투브아이막, 셸렝그아이막
러시아	1	하바롭스크변경주

5) 주요내용

-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쓰촨대지진의 사례비교 세미나 개최
  - 히메지 방재플라자 (피난 및 소화체험, 구급 및 구명체험),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방재 박물관), 히메지성 방재센터 (히메지성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방재체제, 히메지성의 역사와 구조를 소개하는 전시실 시찰)

마. 일반교류분과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일반교류분과위원회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서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나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설치된 5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1998년 10월에 토야마현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회의98] (제2차 총회)에서 설치가 결정됨. 일반교류분과위원회는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적 교류 추진, 정보교환 촉진 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기초적이고도 핵심적인 활동을 지원

(2) 구성현황 (4개국 14개 단체)

• 코디네이터: 토야마현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중국	6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한국	3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몽골	2	투브아이막, 셸렝그아이막
러시아	3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3) 주요활동

(가) 제1회 회의

- 1) 일시 : 1999년 7월 14일
- 2) 장소 : 토야마현 다이이치(第一) 호텔
- 3) 참여 : 5개국 22개 자치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6(3)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이시카와현, 교토부, 효고현)
한국	2(5)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중국	(4)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산둥성)
몽골	(1)	(투브아이막)
러시아	1	하바롭스크변경주

4) 주요내용

- 동북아시아지역 교류를 위한 인재육성사업 ('NEAR 교류의 배'의 성과를 바탕으로)
  - 각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정보교환 등을 검토하기로 협의
- 조사연구기관의 연계강화
  - 동북아시아 내 조사연구기관을 연합 홈페이지와 연계시켜 동북아 조사연구기관의 상호 정보교류를 지원
  - 조사연구기관끼리의 정보교류회 개최나 공동연구지원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협의
- 동북아시아 여성회의(가칭)의 개최 검토 합의
  - 동북아시아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의 관점에서 논의할 기회 마련을 검토

〈동북아시아(NEAR) 교류의 배〉

○ 사업 목적

- 국제 감각을 갖춘 청년을 육성한다. 특히 21세기의 동북아시아 국제교류를 뒷받침할 인재의 육성을 도모한다.
- 참가자들이 당면한 국제교류 협력의 바람직한 실천 방법을 검토, 향후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참가자들의 유대를 향후 교류촉진의 밑거름으로 삼아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적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한다.

○ 사업 개요

- 참가자지단체 : 일본 5, 중국 3, 한국 1, 러시아 3
- 참가자수 : 358명
- 실시시기 : 1997.09.10 ~ 09.22
- 항해지 : 시마네현에서 집결 후 사카이항, 다렌, 포항, 블라디보스톡(해산) 니이가타

(나) 제2회 회의

- 1) 일시 : 2000년 8월 2일~8월 3일
- 2) 장소 : 우나즈키 국제회관
- 3) 참여 : 4개국 19개 자치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가	단체수	자치단체명
일본	6 (2)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교토부, 효고현)
한국	1 (4)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중국	(1)	(흑룡강성)
러시아	3 (2)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극동자바이칼협회)

4) 주요내용

- 동북아시아 여성회의(가칭)의 개최 계획
  - 2001년 토야마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동북아시아지역 교류를 위한 인재육성사업
  - 시마네에서 제안한 인재육성사업의 공동 추진 액션프로그램 합의
  - 각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재육성사업에 가능한 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협력하기로 합의
- 조사연구기관의 연계강화책

- 동북아 학술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인식, 조사연구기관 리스트 작성 합의
- 조사연구기관의 구체적인 연계책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

(다) 제3회 회의

- 1) 일시 : 2001년 7월 12일
- 2) 장소 : 토야마 현민회관 특별 회의실
- 3) 참여 : 4개국 14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5(1)	니가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효고현)
한국	1(3)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중국	(3)	(요녕성, 영하회족자치구, 길림성)
몽골	1	투브아이막

4) 주요내용

- 동북아지역 교류를 위한 인재육성사업
- NEAR 인재육성 액션프로그램 합의
  - 인재육성사업 공동추진에 합의하고 향후 절차 등을 결정하기로 함.
- 개별프로젝트 :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교육기관 설치’ (토야마현)제안 채택
-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
  - 동북아지역 여성현황에 대한 각국 발표 (중국 요녕성, 일본 토야마현, 한국 강원도)
  -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 및 참가하기로 합의
  - 여성회의의 정례화 필요성 제안. 연합인정제도를 기반으로 여성회의의 정례화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라) 제4회 회의

- 1) 일시: 2002년 7월 11일
- 2) 장소: 토야마 현민회관 특별 회의실
- 3) 참여: 3개국 11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5(1)	니가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효고현)
한국	1(3)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몽골	1	투브아이막

#### 4) 주요내용

- NEAR 인재육성 액션 프로그램
- 개별프로젝트 채택
  - 토야마 시니어 국제협력사업 (토야마현): 뛰어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고 토야마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40~69세)이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회원단체에 파견, 기술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에 기여
  - 토야마현민 해외파견사업 (토야마현)
  - 한중일을 연결하는 교류의 날개 (시마네현)
-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교육기관 설치' (토야마현)의 추진상황 보고
- 동해학 (일본해학)
  - 동해학(일본해학) 추진 경위와 동해학(일본해학)의 시점에서 본 정책, 금후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 협의
  -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 동해학(일본해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
-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 결과와 지속적인 개최
  -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 개최결과와 보고, 향후 지속적인 개최에 대해 협의
  - 일반교류분과위원회에서 여성회의의 지속적인 개최 검토를 합의

####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

##### (1) 의의

동북아시아 지역은 경제, 학술,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제 문화권을 형성하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 지역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2) 주제

주요 테마 : 21세기로 비약하는 동북아시아의 창조

기타 각 분과별로 교육, 경제, 환경, 건강의 4가지 주제 및 총괄 분과회에서 '함께 사는 동북아시아의 미래' 를 주제로 의견 교환

##### (3) 개최 개요

- ① 일정 : 2001. 10. 27 ~ 10. 29
- ② 장소 : 토야마 국제회의장, 우나즈끼 국제회관 대홀
- ③ 주최 : 동북아 21세기 여성회의 실행위원회, 토야마현, 토야마시
- ④ 참가자 : 총 2,300여 명

⑤ 내용

1일째- 개회, 기조강연, 환영리셉션

2일째- 제1~4분과회

3일째- 총괄분과회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선언’ 토야마선언 채택

⑥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 토야마선언

동북아시아에서 세계로, 순환과 공생의 메시지

1. 2001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국 토야마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및 러시아 연방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 21세기 여성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 20세기는 자연과의 관계를 경시한 인류문명이 직선적으로 진보, 발전한다는 인간중심주의로 채색된 근대적인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신봉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은 드디어 막다른 곳에 처해 이대로는 절망적인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예로부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평화의 바다, 일본해(동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21세기 공생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인 여성들의 힘이며, 또한 그 평화의 힘은 나아가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우리들 이 회의 참가자는 이러한 공통 인식을 갖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육, 경제, 환경, 건강의 네 분야에 걸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강한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가치관과 과제를 공유하는 지역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5. 그리고 공통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의 여성이 그 원동력이 되어 남녀가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가는 것의 중요성을 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6.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여성들의 깊은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이해의 증대와 새로운 우정이 싹트게 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성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7. 우리는 이러한 본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지역간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순환과 공생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 제5회 회의

1) 일시 : 2003년 10월 16일

- 2) 장소 : 오크스카날파크호텔 토야마
- 3) 참여 : 5개국 16개 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5(2)	니가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이시카와현, 효고현)
한국	1(3)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중국	(1)	(흑룡강성)
몽골	2	셀렝그아이막, 투브아이막
러시아	1(1)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하공화국)

4) 주요내용

가) 신규 프로젝트 제안

-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의 것발 및 휘장제정 (토야마현, 흑룡강성)
  - 제안 취지와 절차에 대해 설명, 참가단체들의 합의를 얻음.
- 동북아시아 6개국 공동의 집 (경상북도)
  - 연합 각 단체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역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등 실시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

나) 인재육성 액션 프로그램

- 인재육성을 위한 공동 추진 사업 실시 검토
  - 동북아여성회의 개최 (토야마현)
  -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상호교류 (흑룡강성)
  -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여성모임’ 국제여성포럼 (하바롭스크변경주)
  - 한중일을 잇는 ‘교류의 날개’ (시마네현)
  - 인재육성에 관한 국제협력 (사하공화국)

② 각 자치단체 단독 추진 사업 보고 (5건)

- 일본어교육기관 설치 (토야마현)
- 시니어 국제협력사업 (토야마현)
- 환동해 각국 유학생의 상호파견사업 (돗토리현)
- 동북아 지방정부 대학생 초청연수 (강원도)
-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한 인재육성사업 (전라북도)

③ 국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사례 보고 (11건)

- 환경보호 교류사업 및 농업기술교류 (흑룡강성)

- 환일본해(동해)교류회관(가칭)의 정비 (토야마현)
- 일본어 · 일본문화 연수 프로그램 (이시카와현)
- 후쿠이현 · 절강성 우호제휴 10주년 기념사업 (후쿠이현)
- 국제연대 효고회의 (효고현)
- 한일교류 ‘인연 만들기의 장’ 정보 발신 사업 (돗토리현)
- 동북아시아5개지역지방정부 국제교류 · 협력 서밋 2004 개최예정, 인재 파견 및 수용 사업 (투브아이막)
- 백두산 항로개설 및 활성화 추진 (강원도)
- 충청남도 쿠마모토 사무소 소개 (충청남도)
- 제5회 국제투자포럼 (하바롭스크변경주)
- ‘EXPO 극동관광’ 국제관광박람회 (하바롭스크변경주)

(바) 제6회 회의

- 1) 일시 : 2004년 7월 22일
- 2) 장소 : 오크스카날파크호텔 토야마
- 3) 참여 : 4개국 18개 단체, ( )는 옵서버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일본	6(2)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이시카와현, 효고현)
한국	2(2)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중국	(3)	(요녕성, 흑룡강성, 영하회족자치구)
러시아	2(1)	하바롭스크변경주, 사할린주 (사하공화국)

4) 주요내용

가) 신규 프로젝트 제안

- 인재육성사업의 중요성 확인 (요녕성)
- 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 (토야마현, 요녕성)
  - 당분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외국어표기의 충실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간 링크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합 홈페이지 안에 각 분과위원회의 홈페이지 설치와 메일매거진 발행을 검토하기로 함.
- 2004년 동북아시아를 잇는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시마네현)
- 직원 및 관리직 육성사업의 중요성을 확인 (사하공화국)

나) 인재육성사업 추진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을 보고(20진)하고 향후 추진에 대한 의견교환, 그리고 각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에 대해 토야마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기로 함.

※ 일반교류분과위원회는 2008년 산둥성에서 열린 제7차 총회에서 문화교류분과위원회와 통합하여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로 변경됨.

바. 변경협력분과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가) 개최배경 :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의 활용을 통한 공동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통합계획 모색

(나) 목적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원지역들간의 향후 관광, 금융, 운송, 세관 인프라조성 등의 변경 협력추진 방침의 공동강구

(2) 주요활동

(가) 제 1회 회의

1) 회의 개요

가) 기간 : 2005. 6. 7

나) 장소 : 하바롭스크시 (러시아)

다) 주최 : 아무르주

라) 참가회원단체 : 3개국 13개 지역자치단체, ( )는 옵서버 단체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러시아	3	아무르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중국	3	길림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내몽골
대한민국	2	경기도, 경상북도
러시아	(2)	(알타이주, 마가단주)
중국	(3)	(길림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내몽골)

※ 하바롭스크주재 일본 총영사관대표, 중국 총영사관 대표

(3) 회의내용

- 변경협력의 추진을 방해하는 장애문제와 변경 인프라의 현황과 향후 발전문제
- 변경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법
- 동북아지역간 국제관광추진
- 동북아 변경지역 은행간 협력

## (4) 회의시간 계획표

일 자	시 간	회 의 시 간 계 획
6월 7일 (화요일)	09:30	회의실 출발
	09:30 ~ 10:00	회의참석자 등록
	10:00	개회식
	10:00 ~ 10:05	환영사
	10:05 ~ 11:25	토의테마 1
	11:25 ~ 11:45	커피 타임
	11:45 ~ 12:45	토의테마 2
	12:45 ~ 14:00	중식
	14:00 ~ 14:40	토론테마 3
	14:40 ~ 15:30	토론테마 4
	16:00	회의 폐막
	18:00 ~ 19:30	하바롭스크주정부 주최 만찬

## (5) 회의내용 총괄

- 환영사 (하바롭스크 이사예프 주지사)
- 토의테마 1 발표자 : 하바롭스크주 정부 부수석 알렉산드르 레빈탈  
 토론자 : 흑룡강성 부주지사 류 슈에량, 극동지역 세관국 제1 부국장 보로비요프, 하바롭스크 주 임업부 부장관 구리예프, 사할린주 경제위원회 부 위원장 자로프, 산둥성 정부 외교국장 장지간, 하바롭스크 아프터 협회장 슈파 코프
- 토의테마 2 발표자 : 아무르주 부지사, 대외교류추진청장 고르제예프  
 토론자 : 하바롭스크 일본 문화원장 토시지 마에다, “쁘리모리에” 정보분석 연구원장 스텍니, 마가단주 경제특구 지도자 그레베뉴크, 치타주 대외교류용자 및 관광국장 레베테즈
- 토의테마 3 발표자 : 관광산업협회 아테이사회 부회장겸 “인투르-하바롭스크”사 제 1부사장 스톨비코  
 토론자 : 요녕성 부지사 리 왕짜이, 하바롭스크주재 일본 문화원 토시지 마에다
- 토의테마 4 발표자 : 리연방 국제통상은행 하바롭스크 지국장 보예이코프  
 토론자 : 중국 농업은행 대련 지국장 왕 연 웨이, “레기오 بانک” 통합추진국장 장 예쓰, 리연방 중앙은행 하바롭스크 관리국장 부라야

사. 과학기술분과위원회

(1) 개최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5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한국) 20개 자치단체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내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을 주제로 2007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수원에 소재한 나노소자특화팝센터에서 개최

(2) 주요활동

(가) 제 1회 회의

1) 회의개요

가) 기간 : 2007. 7. 23 ~ 26 (본회의: 7. 24)

나) 장소 : 나노소자특화팝센터 (대한민국 수원)

다) 주최/주관 : 경기도/경기나노특화팝센터, 경기관광협회

라) 참가회원단체 : 5개국 20개 단체 40여 명

국 가	단 체 수	자 치 단 체 명
한국	5	충북, 충남, 경북, 경기도, 대구광역시
중국	3	흑룡강, 호북, 산둥성
일본	1	효고현
러시아	4	하바롭스크변경주, 톰스크주, 이르쿠츠크주, 알타이변경주
몽골	6	도르노고비, 도르노드, 우부르항가이, 움느고비, 자브항, 셸렝그아이막
기타	1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마) 주제 : “자치단체간 과학기술 협력방안 모색”

바) 회의내용 : 환영만찬, 개회식, 분과위 회의, 산업·문화시찰, 기관방문

2) 회의내용 총괄

○ 주제발표 1 :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

광교 테크노벨리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집적단지로서의 기능을 소개하면서 판교밸리, 과학멘토사업과 경기도의 과학기술 관련 출연기관(나노특화팝센터, 경기바이오센터, 경기 테크노파크)과 육성시책에 대해 설명, 도내 대학과 외국과의 공동 협력사례 제시

○ 주제발표 2 : 동북아 역내 과학기술 협력방안

한국정부(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시아 과학협력 정책개발 및 협력 방안을 제안. 특히, 새로운 협력방안 및 발전모형으로 협력의 주체가 국가 중심에서 지역 즉 자치단체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형제시, 단계별 발전모형 제시

○ 해외 및 국내자치단체 발표 (9개 지역)

- 중국 호북성 : 호북성 무한시의 산업, 투자, 기술협력 소개  
 무한시의 경제현황, 주요산업현황, 과학기술산업현황, 국투자기업, 해외기술협력 및 해외 교류현황 소개와 NEAR 네트워크를 통한 무한시와 다방면의 국제교류 제안
- 중국 호북성 :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 촉진  
 호북성 정부와 관련부처에서 지방입법을 통한 과학기술 기업의 발전보장, 기업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과학기술단지 및 서비스 체계구축, 다양한 융자 시스템 구비 등 과학기술 입법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 소개
- 중국 산둥성 : 산둥성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술협력의 다변화  
 산둥성의 과학기술정책 및 현황, 산둥성 과학원의 국제과학교류현황 소개. NEAR 회원지역간의 철강, 전자정보, 농업생명 기술 등의 협력 다변화 방안제시.
- 일본 효고현 : 스프링-8을 핵으로 하는 과학진흥정책  
 ‘Spring-8’을 중심으로 한 과학진흥정책과 ‘하리마’ 과학공원도시의 방사광 산업 이용 추진에 대한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효고현과 고베시의 지원 및 주변지역과의 활용 연계사례 발표
- 대구광역시 : 아시아지역협력을 위한 ASPA의 역할  
 ASPA는 아시아지역의 상호이해, 협력증진,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조직. 아시아 지역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측면에서 NEAR와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아시아 지역간 산업과 기술교류와 인력풀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 교류를 유도해야 함.
- 러시아 톱스크주 : 산학연 과학산업단지간 상호작용  
 톱스크주의 경제 및 과학기술현황 소개.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지역이면서 우수한 인적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준 높은 교육·과학기술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혁신 모델개발 및 실현 정책 추진방안 제시
- 러시아 알타이주 : 혁신분야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가능성  
 알타이 지역의 8개 국립대학 및 폴주노프 알타이 국립기술대학이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 중 하나라고 소개. 알타이 농업대학 등 주요 대학들의 과학연구 분야, 연구소,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잠재력 소개
-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 국립태평양대학의 과학기술 활동전망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인 태평양국립대학교(TOGU)의 과학기술 활동전망 발표. 대학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전망있는 협력 분야로 광자기 소재연구, 레이저 기술, 재료과학, 에너지 절약기술 등을 제시. 러시아와 한국의 과학기술 및 국제교육 공동프로그램 확대 등 발전방향을 제시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이르쿠츠크주 기술연구소의 정보통신 발전, 이르쿠츠크주 기술

연구소 역사, 현황소개와 역대 기술연구소장들의 활동사항, 현재 개발중인 정보통신모델, 주의 과학기술현황 소개

• 초청강연 : 한-러 과학기술 협력사례

한-러 양국 정부의 합의와 지원 아래 양국의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SOI-KOREA를 설립하였고, 러시아 SOI로부터 이전되는 기초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그간 정부 연구원들이 실험실 내에서만 구현하였던 연구개발 수준에서 벗어나 선진국 연구개발 수준으로 올려 상용화를 위한 완성품을 제작, 그 이전까지의 연구개발 소개

합의문

제1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자치단체간 협력방안 합의문

2007. 7. 24(화) 제1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참가 회원 자치단체는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하에 과학기술의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기로 합의한다.

1.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참가 자치단체는 제1회 회의시 발표한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개별 회원단체간 또는 공동으로 협력과제를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2. 자치단체 상호간 우수한 과학기술 지원 및 육성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적극 협력한다.
3. 과학기술분과위원회는 매 2년 주기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 참여는 물론 향후 과학기술 관련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상호 노력해 나간다.

2007. 7. 24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과학기술분과위원회

3) 행사성과 및 과제

가) 주요성과

- 회의 개최를 통해 경기도 광고 테크노밸리를 동북아시아의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국제적 인식 및 계기 마련
- 발표, 토의를 통한 “자치단체간 과학기술 협력방안 적극 모색 합의” 채택
- 특히, 러시아 참가단은 나노팹센터 및 바이오센터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연구협력 (툼스크주: 세포, 신약, 의료분야 등) 방안을 적극 모색기로 논의

나) 과제

- 자치단체 관계자 참여에서 벗어나 회원국의 산·학·연간 협력확대를 위해 2009년 회의는 민간의 참여확대와 분야별 전문가 회의 등 적극 검토
- 각 자치단체의 대학 및 연구기관 적극 초청
- 민간부문간 협력확대 기반 조성